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위한

# 문학 작품 활동 자료집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위한

# 이 책의 활용법



## ‘질문’은 교육의 출발이며 완성입니다!

이 교재는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제작한 문학 교과서 바탕 자료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하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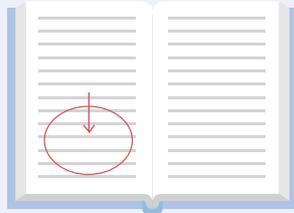
이 교재는 문학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양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선생님들의 수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기본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수업 중 질문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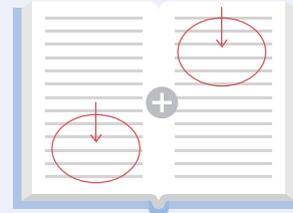
### ● 텍스트 안에서 질문 만들기

**‘바로 거기에’ 질문** 답이 텍스트의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어서 글의 구조를 따지지 않더라도 답할 수 있는 질문



- 예 작품의 사실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 예 낱말과 구의 의미를 묻는 질문
- 예 작품의 핵심어를 묻는 질문

**‘생각하고 탐색하기’ 질문**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들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



- 예 작가가 말하려는 바, 즉 주제를 묻는 질문
- 예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방법을 묻는 질문
- 예 이 작품을 무엇에 관한 쓴 작품인가?
- 예 이것들(작품 속 인물이나 대상) 사이의 차이점/공통점은?

### ● 나에게서 질문 만들기

**‘저자와 나 사이의’ 질문** 답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아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만 답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



- 예 [소설 등에서] 저자는 왜 이렇게 결론지었을까?
- 예 왜 저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 예 이 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성격 등)

**‘나 자신에게’ 질문** 작품을 읽지 않았더라도 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용해야만 답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



- 예 왜 ~한 것이 문제가 될까?
- 예 ~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의견은?
- 예 만약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한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 단원별 수록 내용 및 작품 목록

수록 내용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1) 문학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2) 문학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li> </ul>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li> </ul>
2. 문학의 소통	(1)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li> </ul>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다.</li> <li>•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 관점에서 창작할 수 있다.</li> </ul>
	(3) 문학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다.</li> </ul>
3. 한국 문학의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다.</li> <li>•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할 수 있다.</li> </ul>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li> </ul>
4. 한국 문학의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흐름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다.</li> <li>•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li> </ul>
	(2) 서사 갈래의 흐름	
	(3) 극 갈래의 흐름	
	(4) 교술 갈래의 흐름	



	작품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세계의 이해</li> <li>• 삶의 의미 성찰</li> <li>• 정서적·미적 고양</li> </ul>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_나희덕	9p
	02 두근두근 내 인생 _김애란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가치</li> <li>•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 타자 이해</li> <li>• 문학을 통한 상호 소통</li> </ul>	01 흰 바람벽이 있어 _백석	19p
	0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_양귀자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생활화</li> <li>• 공동체의 문화 발전</li> </ul>	01 광장 _최인훈	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내용과 형식의 관계</li> <li>• 작품 감상의 맥락</li> </ul>	01 산도화 _박목월 / 김연수 바디	35p
	02 흥보가 _작자 미상	38p
	0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_박태원	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소통</li> <li>•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li> </ul>	01 즐거운 편지 _황동규	49p
	02 로디지아발 기차 _네이던 고디머	51p
	03 허생전 _박지원	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li> <li>• 문학과 매체</li> </ul>	01 남한산성 _김훈	63p
	02 촌, 꽃, 시 _정재찬	69p
	03 만화 토지 _오세영	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개념</li> <li>• 한국 문학의 범위</li> </ul>	01 어미 말과 새끼 말 _작자 미상	81p
	02 송인 _정지상	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전통</li> <li>• 한국 문학의 특징</li> </ul>	01 사미인곡 _정철	87p
	02 태평천하 _채만식	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li> <li>• 한국 문학의 변화와 발전</li> </ul>	01 정선 아리랑 _작자 미상	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정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li> <li>• 문학과 시대 상황</li> </ul>	01 제망매가 _월명사	103p
	02 청산별곡 _작자 미상	105p
	03 어부사시사 _윤선도	108p
	04 쉽게 씌어진 시 _윤동주	111p
	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_김수영	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사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li> <li>• 문학과 시대 상황</li> </ul>	01 김현감호 _작자 미상	119p
	02 구운몽 _김만중	123p
	03 너와 나만의 시간 _황순원	129p
	0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_조세희	1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li> <li>• 문학과 시대 양상</li> </ul>	01 봉산 탈춤 _작자 미상	143p
	02 원고지 _이근삼	1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술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li> <li>• 문학과 시대 상황</li> </ul>	01 관상가와의 대화 _이규보	155p
	02 젊은 아버지의 추억 _성석제	159p



# 1

## 문학의 본질과 가치

### (1) 문학의 본질

-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02 두근두근 내 인생

### (2) 문학의 가치

- 01 흰 바람벽이 있어
- 0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 01 광장



# [1] 문학의 본질

핵심 개념

### 문학 언어의 특징

- 정서적 언어: 문학은 언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감동을 줌.
- 구체적 언어: 문학은 사물에 대한 체험을 여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를 통해 감각의 구체성을 드러냄.
- 함축적 언어: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작가의 창의력에 의해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활용함.

### 문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형상화하여 보여 줌.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간접 체험함.

- 인간과 세계의 이해
- 삶의 의미 이해
- 감정의 정화

정신적 삶의 고양

### 인간의 정신 활동과 문학의 관계

인간은 문학으로 사물(事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며, 사물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담아내기도 함. 즉, 문학은 그 내부에 인지적(認知的), 정의적(情意的), 심미적(審美的)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임.

## 1 문학의 개념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	가치 있는 내용	미적 형상화
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종류로, 말과 글(언어)을 표현 수단으로 삼음.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룸.	문학은 심미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그려 냄.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

## 2 문학의 효용

- 문학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감동과 즐거움을 줌.
- 문학은 교훈을 쾌감에 담아 전해 줌.
- 정서를 순화해 줌.
- 언어 사용 능력, 상상력과 감수성의 신장을 가져옴.
- 타자와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탐색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도와줌.

## 3 문학의 기능과 가치

### 문학의 인식적 기능

- 문학의 언어는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형상화를 추구하므로 문학을 통해 삶과 현실에 관한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음.
- 문학 작품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도움.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작품 속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하고, 인물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됨.

### 문학의 미적 기능

-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상화함.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정서적 고양을 느끼고, 문학의 형식미를 맛보는가 하면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음.

문학은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기능을 함.

#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타인의 복잡한 내면(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된 이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타인, 대상을 비유함.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대한 거리감 때문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타인에 대한 선입견(편견)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소통하지 않음.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대상의 본질(타인의 진정한 모습)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작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아의 성숙 과정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 까닭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의 본질, 진가를 아는 데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진 이해와 교감의 상태

▶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 대상에 관한 진정한 이해

▶ 진정한 관계의 모습, 공존과 사랑의 세계

(‘나’와 대상 사이의 조화와 통합)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사색적, 성찰적, 비유적

제재: 복숭아나무

주제: 다른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특징: ①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③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

1  
단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1연: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진.</li> <li>•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게 됨.</li> </ul>
↓
2연: 진정한 관계의 모습, 공존과 사랑의 세계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음.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 작품의 화자는 '나'로, 복숭아나무 또는 타인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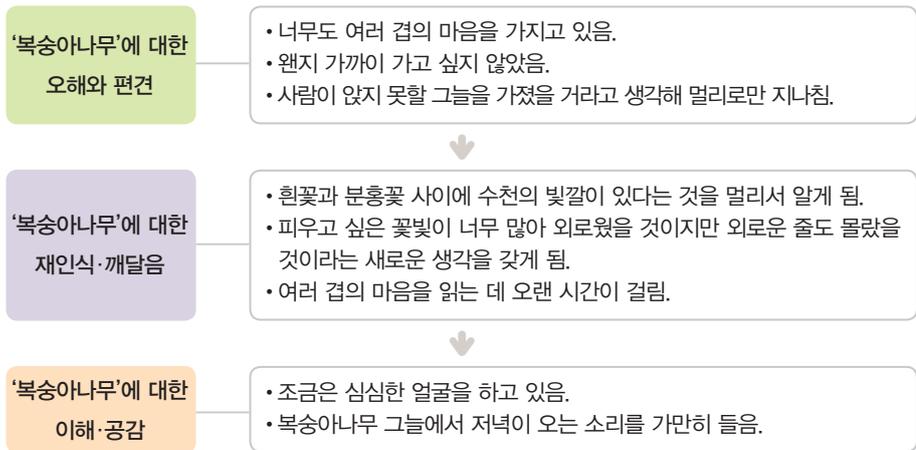
● 표현상의 특징

시구	표현상의 특징
~습니다 /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경어체로 표현함.</li> <li>•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함.</li> </ul>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함.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 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피상적 모습</li> <li>• 이중성, 양면성</li> </ul>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편견</li> <li>•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li> </ul>
수천의 빛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참모습</li> <li>• 여러 겹의 마음</li> </ul>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이 작품의 주제 의식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는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속에서 대상과 교감하게 된다.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다음에 제시된 시어·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 (1) 복숭아나무:
- (2) 흰꽃과 분홍꽃:
- (3)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 (4) 수천의 빛깔:
- (5) 저녁:
- (6)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 (7)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 02 다음에 제시된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1)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때문에 화자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 ×)
- (2) '멀리로 멀리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 ×)
- (3)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외적인 모습, 양면성 등을 나타낸다. (○, ×)
- (4)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
- (5)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 화자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느꼈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

## 02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 작품 연구

**갈래:** 장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자기 고백적, 성찰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시간적 - 현대  
 • 공간적 - 주로 병원과 집  
**제재:** 조로증을 앓고 있는 소년의 삶과 사랑  
**주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  
**특징:** ① 한 소년이 자신이 살아 온 날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서술됨.  
 ②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물의 일생을 시간순으로 전개함.  
 ③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참신하게 드러냄.

### 어휘·어구 풀이

- **여진**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
- **빠라** 전단(傳單),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 '알림 쪽지'로 순화.

[앞부분 줄거리]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는 열일곱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주위에선 쉴 새 없이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그리고 지하 병커에서 모스 부호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 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

쿵쿵- 혹은 등등- 이라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여진(餘震)에 민감한 순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던 까닭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 때문에

'쿵 짹…… 쿵 짹…… 쿵쿵 짹…… 쿵 짹……'  
태아인 '나'와 어머니가 교감하고 있음을 나타냄.

쿵은 어머니 것, 짹은 내 것이었다. 쿵은 센소리, 짹은 여린소리였다. 나는 긴 텃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비트(bit)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beat)이기도 했다. 이 비트(bit)와 저 비트(beat)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빠라처럼 흘날렸다.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거였다. 간이 부풀고 콩팥이 머물며 우뚝우뚝 빠가 돌아났다. 나는 무력무력 자랐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 두서없는 대화를 했다. / '엄마……' / '응?'  
일의 차례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엄마……' / '그래.'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태어날 때가 임박하였음. -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리다 죽을 것만 같은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아가야.’ / ‘네?’

‘나도, 나도 그래. 가슴이 자꾸 뛰어, 가슴이 저리도록 뛰는데 멈출 수가 없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새 생명을 만나는 기대감, 설렘 ▶태아이던 시절에 대한 ‘나’의 상상



[중략 부분 줄거리]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나’가 크는 것을 보며 행복해한다.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 가는 조로증에 걸려 병원에 다니게 된다.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암 투병 중이라는 ‘서하’라는 소녀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는다.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 애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sup>서하</sup>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하나 몰라서였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 서하에게 잘 보이고 싶음.

『나는 그 애에게 때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갑탄이 되니까. ‘아!’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 내는 반항을 타고, 그 반항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 쓸려 오길 바랐다.』 / ‘하지만 어떻게?’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훗훗해지는 내용들이었다.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어우’ 손사래 쳤던 글들을 내가 쓰고 있었다.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교생이 쓴 산문 같고, 또 어떤 것은 인문대 복학생이 쓴 잡문 같았다. 이걸 뭐 공작도 아니고, 수컷들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양새라니.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도대 소녀에 관심을 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자신을 낮설게 느낌. 있는 스스로가 낮설고 불편했다. /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실제 연애를 해 본 적이 없는 ‘나’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라고 촌평한 걸 듣고 깔깔댔었는데, 지금 내 모습 매우 짧은 비평 너무 성숙하고, 힘이 잔뜩 들어갔으며, 유치할. 이 딱 그거 같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다 말인가? 그래도 정말 매우 근심할, 또는 그런 마음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나’가 수심에 잠기게 된 이유 - 첫사랑에 빠짐.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 “이서하……”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속에 조 도대 소녀의 존재로 인해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김.

어휘·어구 풀이

- 임계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이 하나의 상(相)을 이룰 때나 두 액체가 완전히 일체화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이룸.
- 훗훗 달듯이 뜨거운 기운이 이는 모양.
- 도통 도무지.

「두근두근 내 인생」의 성장 소설  
로서의 의미

소년의 성장을 다름.  
조로증에 걸려 죽어 가는 '아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보여 줌.

+

어른의 성장을 다름.  
어린 나이에 '아름'을 낳은 '대수'와 '미라'가 진정한 부모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줌.

어휘·어구 풀이

- 생똥맞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한.
- 풍판 박공집으로 지은 전각이나 신당(神堂)의 두 쪽 박공 아래에, 바람과 비를 막으려고 길이로 잇대는 널빤지.

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열세 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 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고요' 속에서 조금씩 글이 써지려고 함.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란 말을 써 보았다. 하지만 웬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웠다. 한 소년의 팔십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연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 애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똥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돌아났다.

편지의 첫 문장이 불현듯이 일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음을 의미함.

어디선가 삐걱 하고 낡은 풍판(風板)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 자 한 자 따라 읽었다.

▶ 서하에게 보낼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나'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하'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서린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엔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 “아빠?”

나는 호흠이 달려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나 좀 무서워요.” / “……”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 나를 안았다. /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쿵…… 쿵…… 쿵…… 쿵……’

아빠의 심장 소리 -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아버지와와 포옹에서 태아 시절 느꼈던 교감을 느낌.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곤 다시 자리에 누워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 “응, 다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시진 않았을까.” 조로증에 걸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함.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다. / “응.”

“배 한번 만져 봐도 돼요?”

엄마가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름이

어머니는 당황했다.

동생을 가진 사실을 아름이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

“왜?” / “그냥요.”

“알고…… 있었니?” /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왔다.

“응,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찾아봤었어요.”

“……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 주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아름이의 말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갖지 그러셨느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 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 없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아빠.” / “응?”

『: ‘나의 죽음과 가족의 사랑이 나타남.』

“그리고 엄마.” / “그래.”

그러곤 남아 있는 힘을 가까스로 짜내 말했다. / “보고 싶을 거예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구조

- ‘미라’와 ‘대수’가 열일곱 살에 아들 ‘아름’을 낳음.
- ‘아름’은 열일곱 살이지만 조로증에 걸려 여든 살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감.

+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 줌.

어휘·어구 풀이

- **자장** 자기장. 자석의 주위, 전류의 주위, 지구의 표면 따위와 같이 자기의 작용이 미치는 공간.
- **엽산** 폴산. 헤모글로빈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비) 복합체. 태아의 신경과 혈관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전과 임신 초기의 임신부에게 권장되기도 함.

▶ '나의 죽음'



## 작품 한눈에 보기



### 이 작품의 시점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즉 죽음을 앞둔 '나' 아름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 서술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심리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단순히 1인칭 주인공의 회상이 아닌, 과거 사건의 상상과 현재 벌어지는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나'가 '두근두근'하는 심정을 느꼈던 순간		
태아일 때	첫사랑을 느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음.	'이서하'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남.	아버지의 품에서 '쿵…… 쿵…… 쿵…… 쿵……' 소리를 들음.
낯선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기대감	새로운 만남에 대한 '나'의 설렘과 기대감(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	아버지의 두려움과 '나'에 대한 사랑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 벅찬 삶의 한 순간

### ●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문학 언어의 특성

직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때마다 나는 여진에 민감한 순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직유법을 통해 '나'가 세상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함.</li> <li>·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동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직유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표현함.</li> </ul>
역설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역설적 표현으로 잔잔하기만 했던 '나'의 일상에 '이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강조함.</li> </ul>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은유법을 통해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제시함.</li> </ul>
도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직유법과 도치법을 통해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은 더 커졌음을 표현함.</li> </ul>



문학 언어의 특성: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보여 줌.

### ● 서사적 중층 구조

조로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서사적 중층 구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열일곱 나이에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한 채 오히려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이 특이한 아이러니가 이 소설의 새로운 매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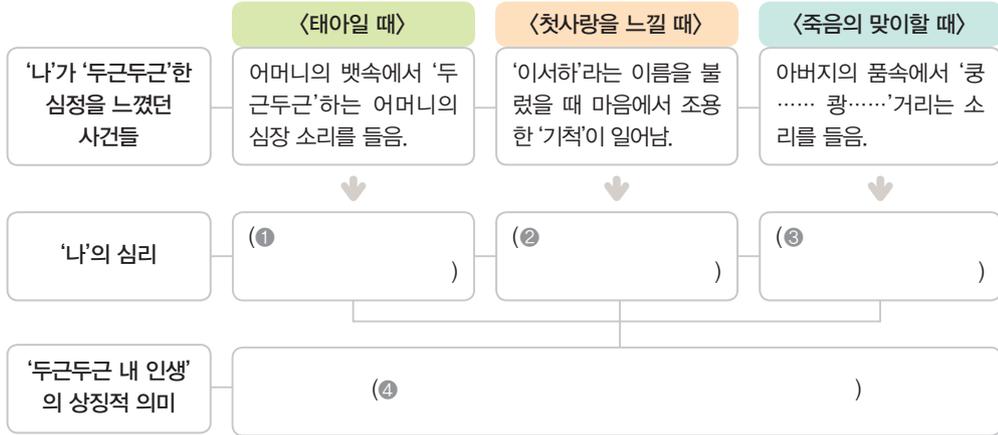
# 학습지

반 :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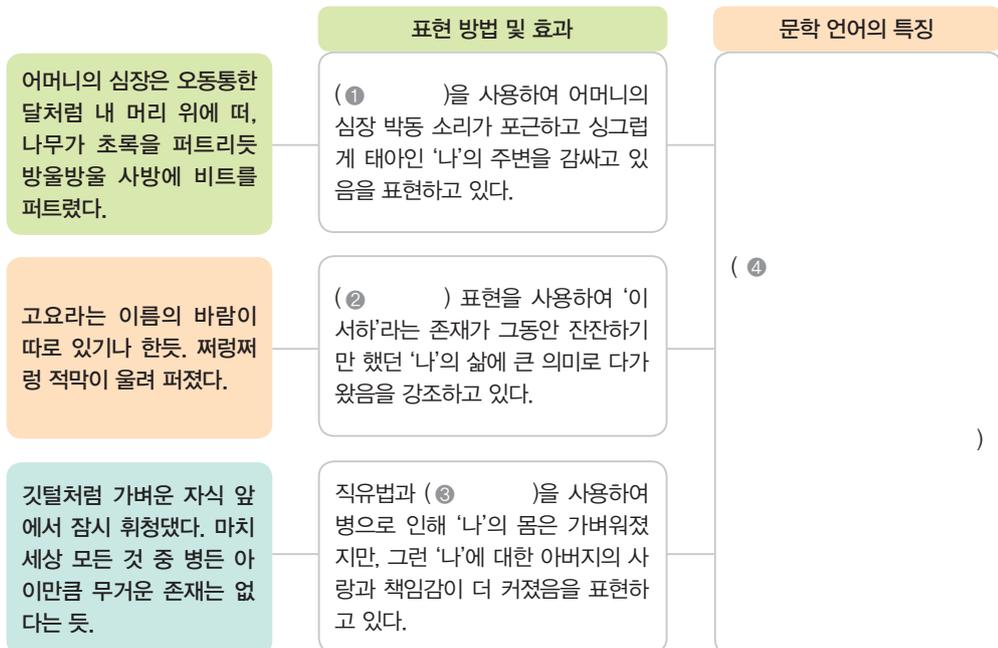
이름 :

## 01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1  
단원

## 02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 및 그 효과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문학 언어의 특성을 쓰시오.



# [2] 문학의 가치

## 핵심 개념

### 문학 활동을 통한 자아 성찰의 의미

문학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보다 넓고 깊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학습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탕이 됨.

문학은 인간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므로 작품 생산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두루 화제로 삼을 만한 인간상과 삶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작품 수용을 통해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상과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아와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할 수 있음.

###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 문학 작품: 작품 속 인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함.
- 독자
  -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함.
  - 다양한 삶을 포용함.
  -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함.

## 1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

- 작가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창조하여, 그들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냄.
- 독자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비교·비판하기도 하며, 작품 속 인물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됨.
-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됨으로써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문학 작품의 특징

-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탐구함.
-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문학 작품 감상의 효과

- 작품 속에 담긴 인간상과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됨.
-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함.

독자는 문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됨.

## 2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와 소통

- 문학은 어떤 세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배적 가치나 이념 외에 다른 가치의 추구도 가능성을 보여 줌.
-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독자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며,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도 가질 수 있게 됨.
- 문학은 수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함.

### 문학 작품의 특징

- 서로 다른 입장과 처지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
- 개인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보여 줌.

### 문학 작품 감상의 효과

-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됨.
-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됨.

독자는 문학을 통해 타인 및 세계와의 수준 높은 소통 능력을 기르게 됨.

# 01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보여 주는 소재들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과거의 추억과 그리운 사람들  
이 흰 바람벽에 ■: 쓸쓸한 것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형상화함.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화자의 내면과 상반된 이미지 - 과거의 추억이 따뜻함으로 남아 있음.  
이 해매인다 ▶ 흰 바람벽을 보며 외로움을 느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함.  
시상의 전환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가난하고 힘겨운 어머니의 삶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갯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흰 바람벽을 보며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함.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시상의 전환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면 의식을 드러냄.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 화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운명론적 체념이 드러남.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체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의지를 북돋우는 행위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  
드신 것이다』 『』: 자기 위로와 극복의 의지 -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통함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외롭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로,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또 『프랑시쓰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고독하게 살면서 자연의 풍물이나 인간의 실존을 노래한 시인들 ▶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

##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회상적, 의지적

주제: 외로운 현실에서 오는 자기  
체념과 위안

제재: 흰 바람벽

특징 ① '흰 바람벽'을 스크린처  
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줌.

②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  
조함.

## 시어·시구 풀이

-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
- 때글은 때에 절여 검어짐.
- 앞대 어떤 지방에서 그 남쪽의 지방을 이르는 말.
- 개포 '개'의 평복 방언.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 이즈막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에 이르는 가까운 때.
- 호젓한 매우 흥분하여 쓸쓸하고 외로운.
- 울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 눈질 눈으로 흘끔 보는 짓.
- 바구지꽃 박꽃.
- 짝새 뱀새.

# 작품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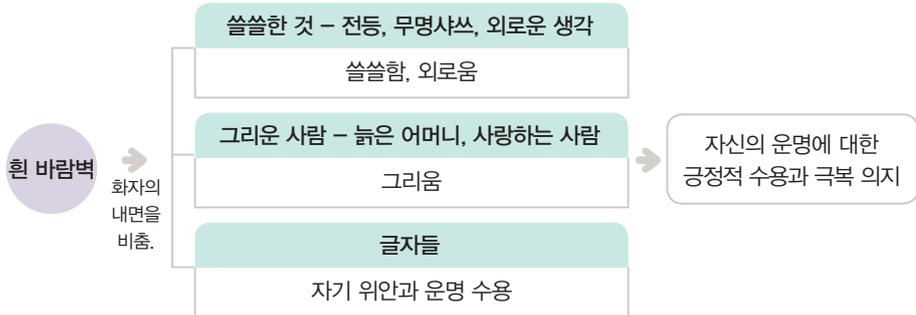


##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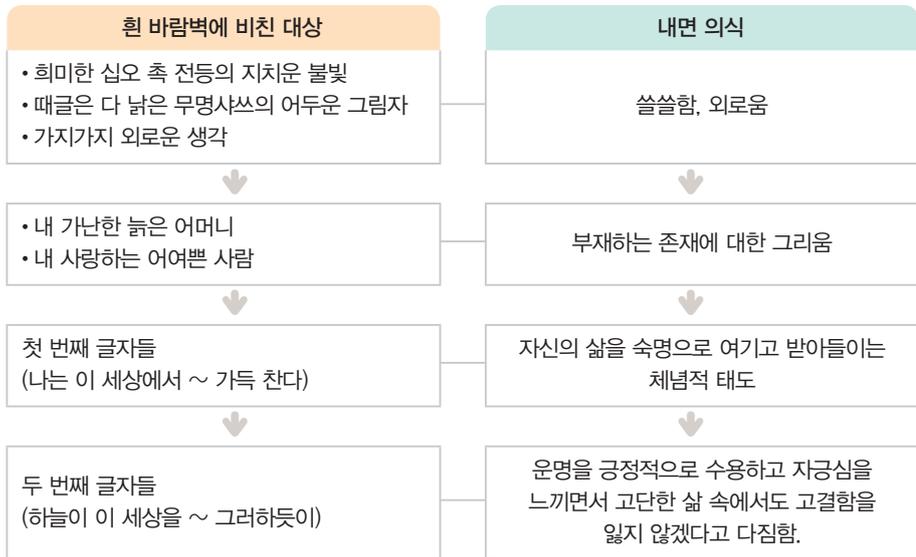
-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흰 바람벽'에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의식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화자의 의식에 흐름에 따라 '흰 바람벽'에 영상을 떠올리는 형태로 사상을 전개함.

### ● '흰 바람벽'의 의미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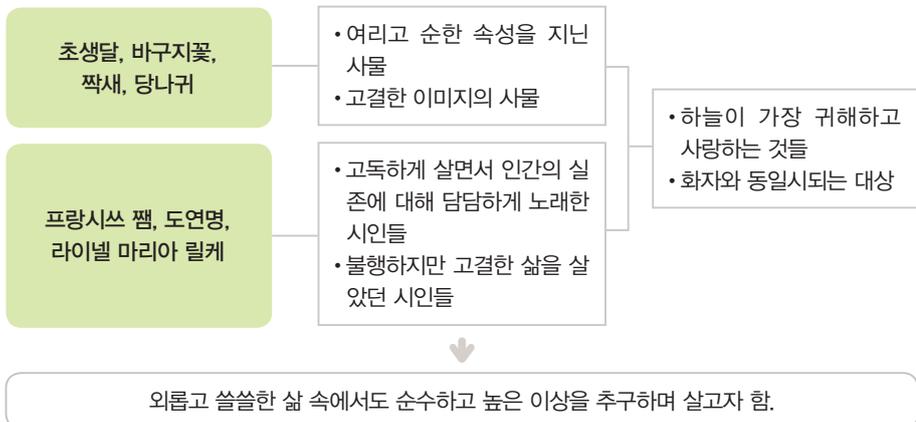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은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한편,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화자는 이를 통해 외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 ●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과 내면 의식의 변화



###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가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앉아 여기에 비친 자신의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을 ( )하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그려 내고 있다.

**02** '흰 바람벽'의 기능을 쓰시오.

**03** 다음은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과 화자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4** 다음 중 알맞은 것에 ○표 하시오.

- (1)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 ×)
- (2) '~니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흰 바람벽 앞에서 상념에 잠긴 화자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3) '흰 바람벽'의 누추한 느낌은 '십오 축 전등'이나 '낡은 무명샤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 ×)

# 0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 작품 연구

갈래: 현대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1980년대 여름  
 • 공간적 - 부천시 원미동  
 제재: 임 씨의 공사  
 주제: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특징: ①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②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개함.

[앞부분 줄거리]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그런데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 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긴다. 임 씨는 원래 연탄장수로, 연탄이 팔리지 않는 여름에만 이런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임 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옥상 공사가 잘되고 있는 확인하려는 의도 예상보다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압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 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였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였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에 종사하는 남자 옥상 공사 - 아내가 돈이 아까워 일부러 임 씨에게 시킨 일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 임 씨가 밤늦게까지 옥상 공사를 하자 아내의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서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토끼띠가 어찌고 해 쌓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 어휘·어구 풀이

- 문대어 여기저기 마구 문질러.
- 공이 '옹이'의 방언. '굳은 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우정 '일부러'의 방언.
- 되려 '도리어'의 방언.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탄소리 없이 이십만 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건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옆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며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공사야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견적을 뽑았음. 공사비가 당초 견적보다 줄어든 이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에,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볼펜 심으로 쿡쿡 찌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임 씨의 말에 망연해짐. 임 씨가 매우 정직하여서 느끼는 당혹감 어깨의 빠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폰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임 씨가 일한 대가를 아내가 덜 지급할까 봐 우려하는 행위로 알 수 있는 ‘그’의 성격  
사려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임.

‘그’가 스스로를 역겹다고 생각한 까닭  
임 씨가 견적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할까 봐 걱정하는 자신이 지나치게 속물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휘-어구 풀이  
● 노임 ‘노동 임금’을 줄여 이르는 말. ‘품값’으로 순화.

### '서비스'의 의미

'서비스'는 '장사에서, 값을 깎아 주거나 덤을 붙여 준다.'는 뜻으로, 이 작품에서는 임 씨가 옥상 공사를 해 준 일을 의미한다. 이는 인정 많은 임 씨의 성격을 드러내며, 임 씨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그'와 아내를 부끄럽게 만든다.

### '그'와 임 씨의 관계 변화

'그와' 임 씨의 관계는 '그'가 처음 집수리를 위해 임 씨를 불렀을 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였으나 집수리를 마친 후 임 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에 신뢰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 어휘·어구 풀이

- 노가다: 막일꾼. 막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아연한: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인.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임 씨의 정직한 태도에 속물적이었던 '그'가 오히려 말문이 막힘.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

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될

정직한 사람이 이해타산적인 부부에게 충고하는 상황 → 임 씨의 순박함이 부각됨.

니다요.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 주

임 씨의 본업은 연탄장수임.

세요.”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 애초의 견적보다 훨씬 적은 공사비를 요구한 임 씨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 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

정직하게 일하고 인정을 베푼 임 씨에게 면목 없다고 느낌.

지 않을까. 그때 임 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짝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가십시다.”

오랜만의 수입과 동갑이라는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에

임 씨는 백열구로 밝혀 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오.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 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세 병을 시켰다.

“워파메, 두 분이 어디서 그러코롬 일 차를 하셨당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말로 사람을 어 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좋소만, 임 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텀 값아 주셔야 쓰것당게.”

김 반장의 약삭빠른 성격

임 씨는 두말없이 외상값 천삼백 원을 값아 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세 마리 구워 오라 고 이른다.

“사장님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쇼.”

임 씨가 그를 보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중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으십

'그'는 실제로 임 씨보다 한 살 어리나 임 씨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와 동갑이라 속였음.

시다.”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소리를 쳤다. 임 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

당황하고 망설이는 임 씨의 태도

라보았다. / “좋수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호칭의 변화 -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

임 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 나게 잔을 부딪쳤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동갑임을 강조하여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함.

그의 허세도 임 씨 못지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나 받거나 술잔을 비우기 시작하였다. ▶ 형제 슈퍼에서 술을 마시며 가까워지는 '그'와 임 씨

“내가 이래 봐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 씨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됨.

임 씨는 자신의 아들딸이 네 명이란 것, 큰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재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오,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먹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연탄값을 때먹고 도망간 스웨터 공장 사장 살을 휘어잡아야지.”

임 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짖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 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들렸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임 씨가 일하지 않는 날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

마값도 썩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팔십만 원이오, 팔십만 원. 제기탈. 쉼타 공장 하던

『』: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에 가는 이유

놈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때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임 씨의 착하고 어린 마음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본가의 모습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

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는 팔뚝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술에 취한 상태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쥐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아가면

지가 먼저 올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

물염지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남.

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내.”

“죄일 놈.” /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뻔뻔하고 탐욕적인 인물의 특성을 외양을 통해 드러냄.

뻔뻔하고 탐욕적인 인물의 특성을 외양을 통해 드러냄.

불거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

공치는 날이 많았음.

때인 돈을 받기 위해서

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일 년 삼백육십오 일 비 오는 날은 쟤고 쟤는디 머시 그리 걱정이당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 씨를 놀려 먹었다.

▶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는 사연



어휘·어구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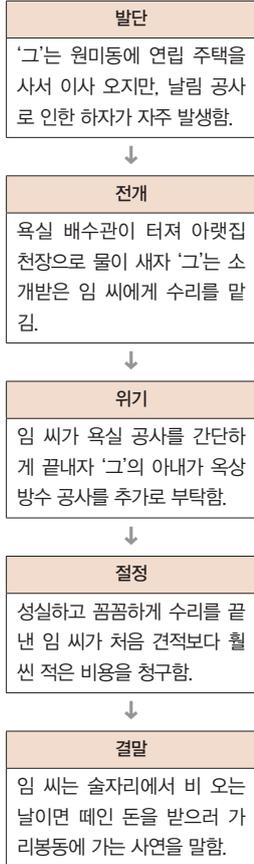
- 야반도주(夜半逃走)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주함.
- 성깔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또는 그 성질
- 상판 상판대기.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머시 '무엇이'가 줄어든 말.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까닭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는 스웨터 공장 사장으로부터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는 것으로, 부도덕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공장 사장과는 대조적으로 성실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임 씨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작품 한눈에 보기



## 작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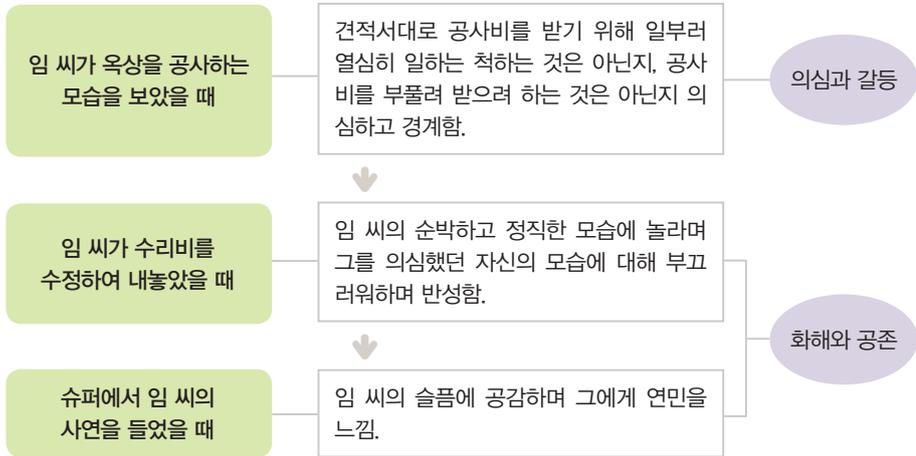


**작품의 배경 - '원미동'의 의미**  
 '원미동'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의미로, 1980년대 생활상을 보여 주는 상징적·보편적인 공간이다. 이때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거리가 멀지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등장인물의 성격과 작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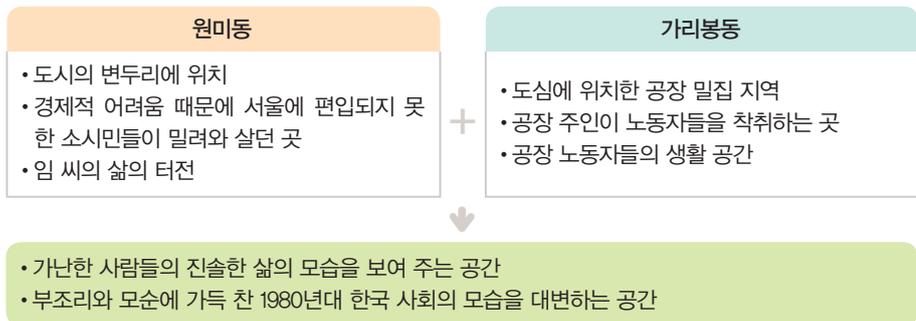
	성격	작가 의식
<b>'그'</b>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 인물. 임 씨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와 동갑이라고 속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려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li> <li>•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한 연민</li> </ul>
<b>아내</b>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 임 씨를 의심하며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하려는 데서 알 수 있듯 계산적이며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믿지 않고 이해 타산적으로 사는 현대인의 세태 비판</li> <li>• 현대인의 각박한 삶의 모습 형상화</li> </ul>
<b>임 씨</b>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욕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 형상화
<b>스웨터 공장 사장</b>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의 반성 촉구</li> <li>•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비판</li> </ul>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심리



## 공간적 배경의 의미

작가는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어려운 삶을 살던 원미동과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가리봉동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도시의 변두리 주민들의 일상적 현실을 통해 198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 )으로 그리고 있다.

**02** 이 작품의 제목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의 의미를 쓰시오.

**03** ‘임 씨’가 행한 ‘서비스’의 기능을 쓰시오.

**04** 이 작품에서 ‘곰국’의 의미를 쓰시오.

**05** 다음에 제시된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 의식을 쓰시오.

임 씨가 견적서를 새로 고치며 옥상 공사를 서비스로 해 주겠다고 하는 장면	①
임 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 맨션아파트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스웨터 공장 사장에 대해 말하는 장면	②

**06** 다음은 ‘그’와 아내, 임 씨의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와 아내	임 씨
• ( ① )적이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 안절부절못함. • 임 씨를 경계하지만, ( ② )를 보고 놀란 후 임 씨에 대한 생각이 바뀜.	•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만 받으려 함. • 옥상 일을 한 품값은 ( ③ )라며 받지 않을 정도로 인정이 넘침.

1  
단원

#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 핵심 개념

### 문학 활동을 통한 소통과 공감

-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됨.
-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됨.
-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성과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됨.

###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나누기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적, 포용적 자세를 기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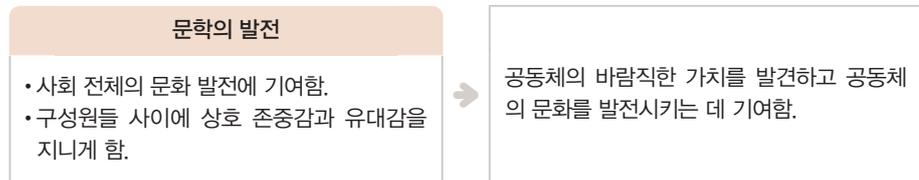
###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 교실에서의 문학 활동
- 학교 행사 교외 행사
- 매스컴이나 문학 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학 행사
- 인터넷을 활용한 문학 작품 창작물 공유

## 1 문학 활동 생활화의 의의

- 문학 활동의 생활화란 예술로서의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을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지속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함.
- 문학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면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음.
-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학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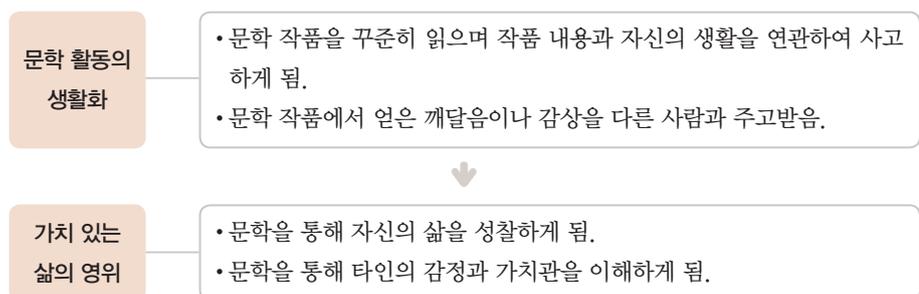
### 문학 활동 생활화의 공동체적 의의



## 2 문학 활동 생활화의 방법

-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 질문, 감상을 메모하며 읽기, 메모한 내용을 독서 일지에 간단히 정리하기
- 문학 작품을 읽은 후 대화하기 설명하기, 토의하기, 토론하기 등 책과 관련한 내용 나누기.
- 서평 쓰기, 감상문 쓰기, 비평문 쓰기, 인터뷰 기사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읽은 작품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하기
- 문학 작품 수용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작품 생산하기

### 문학 활동의 생활화와 가치 있는 삶



# 01 광장

[전체 줄거리] 해방 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받는다. 부패한 자본주의와 방탕한 자유만 존재하는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준은 이상적인 삶을 찾아 월북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념에 의해 인간다운 삶이 억압되고 자유가 철저히 말살된 곳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명준은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극적으로 만나지만,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명준도 포로가 된다.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명준은 바다에 투신한다.

“중립국.” /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북측 대표의 행동 ▶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북한 측 설득자들  
 다음은, 맞은편에 자리 잡은, 유엔 측 테이블로 걸어간다. 그는 아까처럼, 우뚝, 섰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

“흠, 서울이군.” /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한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증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 『』 같은 민족으로서 지니는 민족애를 들어 호소함. 국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쪽으로서 어찌 한 마디 참고 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 “중립국.”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과도기적 상황이기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준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하다는 말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겠습니까?” /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설은 땅에 가서 고생  
중립국

## 작품 연구

갈래: 장편 소설, 관념 소설, 분단 소설

성격: 회고적, 독백적, 관념적, 철학적

시장: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 공간적 - 남한과 북한, 인도양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특장: ①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함.

②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함.

이명준이 바라본 ‘남한’과 ‘북한’의 현실

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듯 하나, 퇴폐적인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방탕하고 게을러 수 있는 자유’만 넘치는 사회. 사회적 소통이 결여된 사회</li> <li>• 광장은 죽고 밀실만 있는 곳</li> </ul>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의사소통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절대적 이상에 취해 개인의 주체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고 맹목적인 북중만을 강요하는 사회</li> <li>• 개인을 위한 밀실은 없고 공허한 광장만 있는 곳</li> </ul>

## ‘광장’의 주요 인물

• 이명준: 주인공.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남한의 나태와 방종, 북한의 부자유스러운 이념적 구속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광장’을 찾아가기로 하지만, 결국 삶의 참된 가치의 실현에 의문을 느끼고 바다에 투신함.

• 은혜: 명준의 북쪽 애인. 북한군 간호 장교로 참전했다가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함.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과 바다 투신의 의미**

전쟁 포로가 된 이명준은 남·북한 체제의 선택에서 중립국행을 결심한다. 이는 남한과 북한 어느 사회도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 후 내린 결정이다. 즉, 남한과 북한 어느 사회에서도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적, 비극적 인식의 결과이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명준은 죽은 은혜와 딸로 상징되는 갈매기를 보고 바다로 투신하는데, 이는 현실 어디에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이상적 사회가 없음을 깨달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중립국의 선택은 이상 실현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적극적 선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의 체념이라는 소극적·부정적 선택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명준의 웃음의 의미**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후 천막에서 나오며 웃음을 터트리는 데, 이는 북측과 남측의 설득자들이 펼친 논리의 모순과 위선을 간파했으며, 설득자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끝내 중립국을 선택한 데 대한 통쾌함과 승리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과 북에서 이상을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중립국을 선택한 데에서 비롯된 조소와 자괴감, 허탈과 비애가 뒤섞인 웃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이명준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지만 극단의 이념이 지배하는 남과 북에서는 그러한 바람이 성취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남북이 내세우는 이념이 허망하다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한다. 이에 명준은 남과 북을 모두 부정하며 이념이 배제된 공간인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했다. /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쪽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보았다. 명준을 말로써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남한 측 설득자의 행동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었다.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는 남한 측 설득자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양 측의 위선에 대한 조롱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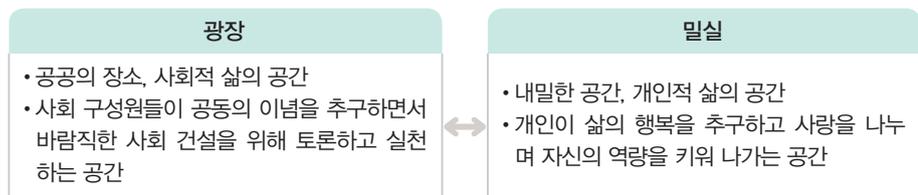


**작품 한눈에 보기**

● '이명준'의 현실 인식과 삶의 방향 모색

	현실 인식	삶의 방향 모색
남한 사회	해방 직후의 자본주의적 모순과 부조리에 절망함.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며 월북함.
북한 사회	이념이 현실에서 왜곡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부자유의 상황에 절망함.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6·25 전쟁	• 자신의 아이를 가진 은혜의 죽음에 절망함. • 포로가 되었다가 남한과 북한 중 한 곳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음.	중립국을 선택함.
타고르 호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함.	바다에 투신함.

● '광장'과 '밀실'의 의미와 '이명준'이 추구하는 이상향



주인공 '이명준'이 추구하는 사회: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어, 개인과 사회의 조화, 이념과 행복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사회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를 강요 받는 명준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을 겪는 우리 ( )을 상징한다.

**02** 이 작품에서 '광장'과 '밀실'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광장	사회적 삶의 공간
밀실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



명준이 바라는 사회는 '광장'과 '밀실'이 (① )를 이루는 사회, 사회의 이념과 개인의 행복이 (② )하는 사회임.

**03**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남한	북한
(① )	(② )



남북 어디에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립국행을 택함.

**04** 다음 |보기|의 ㉠, ㉡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보기|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05** 명준이 천막을 나오며 웃음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 2

## 문학의 소통

### (1)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 01 산도화
- 02 홍보가
- 0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 01 즐거운 편지
- 02 로디리아발 기차
- 03 허생전

### (3) 문학의 확장

- 01 남한산성
- 02 총, 꽃, 시
- 03 만화 토지

# [1]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핵심 개념

작품의 내용

문학은 인간의 삶에 관한 탐구에 서 비롯된 가치 있는 경험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며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주제 의식과 관련을 맺음.

작품의 형식

갈래와 문학적 기법, 구조 등이 포함됨. 시의 경우, 운율, 행, 연, 이미지, 어조 등이 있으며, 소설의 경우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시점 등이 있음. 겉으로 드러나는 작품의 형태는 물론 내밀한 언어의 조직, 표현 기교를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쓰임.

##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 작품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은 인간의 삶에 관한 탐구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주된 내용으로 다룸.</li> <li>• 문학의 내용은 작품 속에 주제 의식으로 구현됨.</li> </ul>
문학 작품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의 주제 의식은 문화적·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됨.</li> <li>•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가 그에 덧입힌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됨.</li> </ul>

## 2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구조를 형성함.



- 내용과 형식 간의 긴밀한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그 작품의 독특한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
- 문학 작품을 잘 읽으려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3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의 수용

문학 작품은 작가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루 고려하면서 감상해야 함.

작가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다른 작품과의 관계 맥락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가치관, 삶과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함.	문학 작품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산물이므로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역사적 사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함.	문학 작품은 기존의 텍스트 및 일반적인 문학 관습과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함.



문학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넓고 깊게 이해하면서 문학 작품을 수용해야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 01 산도화(山桃花) 박목월

## 산은

**구강산(九江山)**  
이상향, 탈속적 공간  
**보랏빛 석산(石山)**  
신비로운 분위기

## 산도화

산 복숭아꽃 - 동양적 이상향의 이미지  
**두어 송이**  
여백의 아름다움  
**송이 버는데**  
벌어지는데 - 꽃이 피는 모습

**봄눈 녹아 흐르는**  
이른 봄

**옥 같은 물에**  
맑고 순수한 이미지

## 사슴은

**암사슴**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  
**발을 씻는다.**  
평화로운 분위기



▶ 구강산의 신비로운 모습

▶ 봄을 맞아 산도화가 피기 시작하는 정경

▶ 봄눈이 녹아 흐르는 시냇물

▶ 시냇물에 발을 씻는 암사슴

##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조적, 회화적, 탈속적  
주제: 봄을 맞은 산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경  
특징: ① 시선의 이동과 원근(遠近)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간결하게 정제된 형식미와 3음보, 7·5조의 율격이 드러남.

## 「산도화」의 함축과 여백

「산도화」에서는 풍경을 구체적이거나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인상적인 몇 개의 소재와 장면, 즉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흐르는 물, 발을 씻는 암사슴 정도만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수식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절제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마치 여백의 미를 구현한 동양화의 풍경을 그대로 언어로 옮겨 놓은 것처럼 담담하고 담백한 느낌을 전달하며, 고도의 함축성을 구현한다.

## 이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

- 동일한 음운을 포함한 시어의 반복: '산', '송이', '사슴'에서 'ㅅ' 음운이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한다.
- 행의 길이: 이 시의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대체로 점점 길어진다. 그런데 3연만 첫 행이 가장 길고,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을 주면서,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인 변형을 가미하여 이른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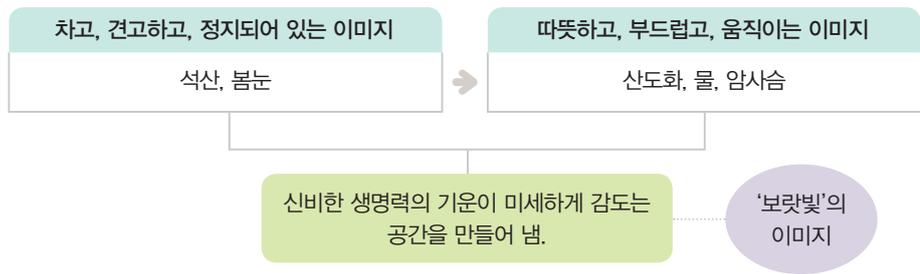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어	함축적 의미
구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 이상향</li> <li>• 인간 세계로부터 떨어진 탈속적 공간</li> </ul>
산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양적 이상향의 상징물</li> <li>•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li> </ul>
암사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존재,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li> <li>•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li> </ul>

『산도화』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이 시에서는 다양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봄을 맞은 구강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1연	보라색(석산) → 신비로움.
2연	분홍색(산도화) → 아름다움과 봄의 생기가 느껴짐.
3연	흰색(옥 같은 물) → 맑고 깨끗함.

### ● 이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 ● 이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

이 시는 ‘산’, ‘산도화’, ‘송이’, ‘사슴’에서 ‘ㅅ’ 음운이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각 연이 3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형식적 통일성을 보이고 있으며,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점층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정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감은 ‘구강산’의 정적인 모습과 잘 어울려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3연은 첫 행이 가장 길고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점강 구조를 취하고 있어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인 변화를 가미함으로써 ‘봄눈’이 녹아 흐르는 빠른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이른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사슴’을 등장시킨 이유

3연과 4연에서 묘사되는 풍경은 따스한 봄날 눈이 녹아서 흐르는 시내의 모습이다. 그 맑고 시원한 물에 암사슴이 발을 씻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발을 씻고 있는 암사슴의 생동하는 생명의 자태를 나타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동양적 세계관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간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인 암사슴을 등장시켜 ‘봄눈 녹아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행위를 그려냄으로써 더욱 평화롭고 고결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암사슴의 등장은 그 속성과 행동을 통해 이상향인 선계(仙界)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시에서 그리고 있는 풍경은 석산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산도화 두어 송이, 눈 녹은 물, 그 물에 발을 담가 보는 사슴 한 마리가 전부이다. 이는 많은 것을 그리기보다 여백을 통해 정취를 자아내는 동양화와 관련이 깊다. 특히 ‘산도화 두어 송이’에서 여백을 중시하는 동양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형을 구성한 이 시의 형식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여백의 함축을 지향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구강산	① ②	→ 세속과 떨어져 있으면서 아름답고 순수하고 맑은 속성을 지닌 대상
산도화	③ ④	
암사슴	⑤ ⑥	

## 02 이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쓰시오.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 ① )		( ② )

신비한 생명력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도는 공간을 만들어 냄.
'보랏빛'의 이미지

## 03 이 작품은 ( )의 이동(원경 → 근경)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4 이 작품에서 '여백의 함축'을 구현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쓰시오.

여백의 함축	방법
	① ② ③
↓	
효과: ( ④ )	

# 02 흥보가

작자 미상 / 김연수·바디

## 작품 연구

갈래: 판소리 사설

재제: 흥보네의 박 타기

주제: 선형 덕에 복을 받아 가난을 벗어나게 된 흥보네(권선징악)

특징: ① 산문적 진술과 운문 투의 리듬감 있는 서술이 혼재함.

② 생생한 구어, 사투리, 비속어 등과 함께 한문 투의 표현들도 섞여 있는 등 중층적 성격의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

③ 창과 아니리를 계속 교차하면서 서사를 진행시키고 정서도 표출함.

④ 과장과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짐.

## 판소리의 개념

직업적 소리꾼이 관중들 앞에서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말(아니리)과 노래(창)로 엮고 몸짓(발림)을 곁들여 가며 구연하는 한국의 전통 구비 서사시.

## 어휘·어구 풀이

● 바디 판소리에서, 명창이 스승으로부터 전승하여 한 마당 전부를 음악적으로 절묘하게 다듬어 놓은 소리.

● 곤신평 곤방(坤方)이나 신평(申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서남풍'을 이르는 말.

● 디리부는지라 들이부는지라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지라).

● 원수녀르 원수 놈의.

● 삼신제왕 민속 신앙에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를 돌보는 세 신령.

● 권속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권솔.

● 포한 한을 품음. 또는 그런 한.

## 가난타령

[아니리] → 판소리에서 창자(唱者)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 나가는 행위

『그때는 어느 땐고 팔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 피 -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흥보집은 냉랭하여 곤신평』』

이 디리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겠다. 『』: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가난의 설움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의 상황을 아니리를 통해 제시함.

##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복』』: 가난한 현실 상황에 대한 원망 - 비장한 대목으로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진양조를 통해 부각함.

두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제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야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 [중략]

▶ 흥보 마누라가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한탄함.

## 흥보 첫째 박을 탐

## [아니리]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근히 취해 가지고, 집 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 밖에 나갔던 흥보가 돌아옴.

가 울거늘, “여보, 이게 웬일이오? 배고픈 걸 한을 해 가지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늘어앉어, 한평생허고라도 울어 보지마는, 아, 남 보기 쟁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흥불 울음을 운 단 말이오?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 갖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해 살아갑시다.” 흥보 내외 박을 한 통을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 제,

## [진양조]

“시르령 실견, 톱질이야, 어여루, 톱질이로고나. 『몹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 놈의 가 톱질을 시작함.』: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난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헌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야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어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시르령 시르령, 당겨 주소, 톱질이야. 으흐 흥보네의 소망



- **도통** 도합, 모두 합한 셈.
- **철환** 처만(엿총 따위에 쓰는, 잘게 만든 총알.)의 원말.
- **벌거지** 벌레.
- **조백 없이** 조백(웁음과 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 **노담** 성나서 하는 말.
- **손 손아랫사람** '사람'보다는 낮추고 '자'보다는 좀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추세** 어떤 세력이나 세력 있는 사람을 붙좃아서 따름.
- **날과** 나와.
- **친구가 조만 없어** 친구는 일찍 사귀었는가 늦게 사귀었는가 중요하지 않아.
- **정지후박** 정다운 처지의 두터움과 앓음.
- **하상견지만만야** 서로 만나는 것이 어찌 이리 늦었는가.

## 홍보 밥타령

###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 났던지 돈이 일만 구만 냥이요, 쌀이 일만 구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밖에서 떨어 부은 돈과 쌀의 양라.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밥부터 좀 해 먹고 궤짝을 떨어 붓든지 박을 타든지 해 봅시다.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나? 자식놈들 스물아홉, 우리 내외 **도통** 합이 서른한 명으로 권속,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구나.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었냐? 쌀 서른한 섬만 밥을 지어라.”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찌듯 찌서 **삿꾼**을 사다 저다』『』: 상황에 대한 과장된 묘사 - 홍보의 가난했던 생활상을 부각하고 웃음을 유발함.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홍보가** 홍보네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아니리'를 통해 요약적으로 서술함.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네 이놈들, **체할라. 조심해 먹으려다. 자, 먹어라!**” 해 노니, 이놈들이 ‘우-’ 하더니, 온 데 간 데가 없지.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홍보 내외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본래, 이놈들이 모도 밥 속에서 뵈기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 속에서 나오는고 하니,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 속에 **가 총 철환** 박히듯 **꽉 박혀** 가지고, **당창 벌거지** **콧속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홍보는** 자식들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밥님, 너 참 본 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은 대면도 하기 싫지마는,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하거니와, **원 세상에** 밥을 의인화하여 그간 밥을 먹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심정을 드러냄. **사람을 그렇게 괘시한단 말이나? 에이 손, 섭섭타. 섭섭혀!**”

### [자진모리]

“세상 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할**소냐? 『**세똥집 부잣집만** 기어코 『』: 주제 의식이 드러남 - 당대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함.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떼 거위 학두루미와** **심지어** 오리 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 쉬네 썩네** 하지 않더냐? 『**날과 무삼 원수**로서 『』: 부잣집과 대조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사흘 나흘 **예사 굶겨, 뱃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깜깜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되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이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나?』

에라, 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한참** 이리 **준책터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히히히, **그것 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워** 아니 **오랴**느냐? 『**어여뻐** 한 말이지, **미워** 한 말 아니로다. 친구가 **조만 없어** **정지후박**에 매였으니, **하상견지만만야오,** **떨어져** 살지 말자. **애개개,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며, **금을** **준들** 널 바꿀소냐. **애개개, 내 밥** 편집자적 논평 **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새 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홍보네가 밖에서 나온 쌀로 배 부르게 밥을 해 먹음.



● '창' 부분에서 장단의 사용과 그 효과

부분	장단	장단의 사용 효과
〈가난타령〉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해 줌.
〈흥보 아들 수모〉	중모리	조금 느린 중모리를 사용해 흥보 아들이 수모를 겪은 사연을 서술함.
〈흥보 첫째 박을 탐〉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의 신세 한탄과 배고픔을 애절하게 표현함.
〈흥보 첫째 박을 탐〉	휘모리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를 사용하여 박을 빠르게 타는 상황을 긴박감 있게 드러냄.
〈쌀과 돈이 든 껌짝이 나눔〉	휘모리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계속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 흥보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함.
〈흥보 밥타령〉	자진모리	빠른 장단인 자진모리를 사용하여 밥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명랑하게 표현함.

● '아니리' 부분의 기능

'아니리'의 일부분	기능
흥보 마누라는 즐기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다.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가난의 설움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함.
동네 가마술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고두 밥 찌듯 찌서 샅꾼을 사다 쳐다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깃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박 속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흥보네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잔뜩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함.

● 해학적 표현의 성격과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

해학적인 표현	<p>예 어찌 떨어 부어 났던지 돈이 일만 구만 냥이요, 쌀이 일만 구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라.</p> <p>→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표현 또는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자 흥분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말장난으로 볼 수 있음. 현장감과 흥을 고조 시킴.</p> <p>예 흥보 내의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 속에 가 총 철환 박히듯 꼭 박혀 가지고, 당장 별거지 콧속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p> <p>→ 밥 더미가 산만큼 커서 흥보 자식들이 그 속에 박혀 먹는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늘 굶주리며 지내다 많은 밥을 보고 흥분한 흥보 자식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p>
당대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 작품은 빈곤이라는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해학성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당대 서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판소리에서 '창'의 성격과 역할

-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여 표현함.
-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하여 사용됨.
- 장면을 확대 부연, 극대화하여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 몰입케 하고, 청중의 감흥을 유발함.

판소리에서 '아니리'의 성격과 역할

-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부분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 등을 전달함.
-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창자가 호흡을 조정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줌.

↓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로, ‘창’과 ‘아니리’를 반복하는 ( ❶ ) 구조와 ‘창’ 부분에서 내용에 조응하는 ( ❷ )의 활용 등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 준다.

**02** 이 작품의 ‘창’ 부분에서 사용한 장단과 그 효과를 쓰시오.

부분	장단	장단의 사용 효과
〈가난타령〉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 ❶ )을 부각해 줌.
〈흥보 첫째 박을 탐〉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의 ( ❷ )과 배고픔을 애절하게 표현함.
〈흥보 첫째 박을 탐〉	취모리	가장 빠른 장단인 취모리를 사용하여 박을 빠르게 타는 상황을 ( ❸ ) 있게 드러냄.
〈쌀과 돈이 든 께짜이 나눔〉	( ❹ )	가장 빠른 장단인 ( ❹ )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계속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 흥보가 느끼는 ( ❺ )을 생생하게 전달함.
〈흥보 밥타령〉	자진모리	빠른 장단인 자진모리를 사용하여 밥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명랑하게 표현함.

**03** 다음 |보기에 제시된 ‘아니리’ 부분의 기능을 쓰시오.

| 보기 |

- (1) 흥보 마누라는 즐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겠다.
- (2)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찌듯 찌서 샅꾼을 사다 저다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깃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04** 이 작품에서 중층적 성격의 언어 사용 양상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쓰시오.

# 0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소설가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구보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서 길을 걷는다. 뚜렷한 목표 없이 전차에 탄 구보는 우연히 전에 만났던 여자를 본다. 그 여자와의 단 한 번 만남에 관해 회상하는 동안 여자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구보는 여자에게 알은체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행복에 관한 상념에 잠겼던 구보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벼를 찾아가기로 한다. 거리를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옛 벼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으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

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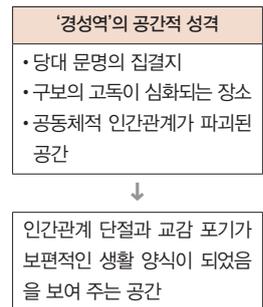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집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누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 작품 연구

- 갈래: 중편 소설, 심리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관찰적, 심리적, 사색적
-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 - 1930년대 어느 하루  
공간 - 서울 거리
- 주제: 소설가의 눈으로 바라본 1930년대 도시의 일상사와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
- 특징: ①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줌.  
②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됨.

이 소설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 기법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구보의 생각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전을 보다가 지난 어느 해에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음을 생각해 내어 쓸쓸한 과거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즉, 구보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생각과 심리를 통해 내게 하는 실마리roman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어휘·어구 풀이

- 웅숭그리고: 숨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웅숭그리고.
- 드난: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 줌. 또는 그런 사람.

## 어휘·어구 풀이

- 부종 몸이 붓는 증상. 심장병이나 콩팥병 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 순환 장애로 생김.
- 전경부 목의 앞쪽 부분.
- 팽릉 크게 부어오름.
- 바세도우씨병 바세도병(Basedow 病). 눈알이 튀어나오며 갑상샘증을 수반하는 병.
- 린네르 리넨(linen). 아마(亞麻)의 실로 짠 얇은 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쓰메에리 깃을 세워, 목을 둘러 바싹 여미게 지은 양복.
- 파나마 파나마모자. 파나마모자품의 앞을 잘게 찢개어서 만든 여름 모자.
- 광무소 광업에 관한 모든 제출 서류를 광업령(鑛業令)에 의거하여 대신 써 주던 영업소.
- 인지대 인지(印紙)의 대금. 국가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거둘 때 그 증서를 붙이게 하는, 일정한 금액을 나타낸 표.

## 갈등 전개 양상

이 소설은 주인공인 '구보'가 관찰한 외부 세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바탕으로 서술한 작품으로 '구보'의 내적 갈등 외에 특별한 갈등 요소를 찾기 어렵다.

## '황금광 시대'에 대한 작가의 태도

작가는 1930년대, 식민 사회가 근대화·도시화되면서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이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나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간미가 상실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구보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중개상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황금에 미쳐 있는 시대 - 1930년대의 시대상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음. 현실적 능력이 결여된 구보 - 자조적 태도. 목적 있는 삶(구보와 대조적)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리 버락부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문인들조차 금광에 매달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 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금광에 모여 든 이유

황금에 대한 열기가 휩쓸고 있음.

▶개찰구 앞에서 금광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한 구보

문득, 한 사내가 등글넙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

구보의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과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음.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음.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친한 척하는 행동에 대한 반감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곳

구보의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드러남.

동창의 애인에게도 한 말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번 흘끗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속물적인 중학교 동창생이 연애를 하는 상황에 냉소적·경멸적 시선을 보냄.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 냉소적 태도

의자에 가 가장 자신 있어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뻘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두 그걸루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강한 거부감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꼭다점(喫茶店)에서 사람들이 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 개인 성향과 음식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 함.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나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중학교 동창과 찻집에 가 황금광 시대의 세태를 생각하는 구보

개인 성향과 음식의 연관성

[뒷부분 줄거리] 역에서 나온 구보는, 시인이면서 생계를 위해 신문 기자로 일하는 벼를 다방으로 불러 내어 문학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만 권태를 느끼고 헤어진다. 다른 벼와 저녁을 먹고 다시 혼자가 된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며 유학 시절의 짧았던 연애를 회상하고, 벼를 기다리던 다방에서 중학 선배인 성가신 사내와 불쾌한 대화를 나눈다. 늦은 밤 구보는 벼와 술을 마시러 가고, 술집 여급과 공허한 대화를 나누며 세상 사람 모두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새벽 두 시에 술집을 나온 구보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소설도 쓰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어휘·어구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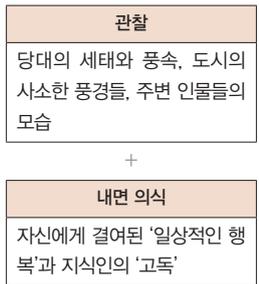
- 가루뻘스 '칼피스'의 일본식 발음. 우유를 가열·살균하고 냉각·발효한 뒤 당액(糖液) 칼슘을 넣어 만든 음료수.
- 꼭다점 찻집.

**참고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이 기법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서술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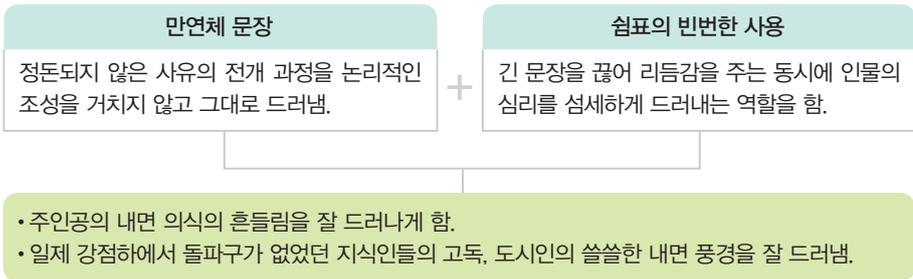
이 소설은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새벽 2시경에 귀가하기까지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경로에 따른 서술자의 관찰 내용과 심리가 서술되어 있으며,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내면 의식을 의식의 흐름, 몽타주 등의 모더니즘 기법을 활용하여 포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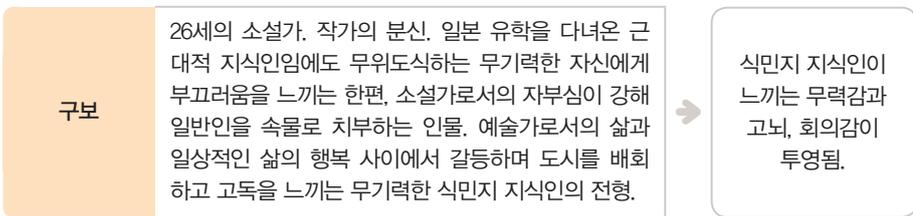
**● 이 작품에 사용된 모더니즘 기법들**

<b>의식의 흐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심의 인과적이고 통일된 서술과 달리,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함.</li> <li>•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li> <li>•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룸.</li> </ul>
<b>몽타주 기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함.</li> <li>•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내면 의식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르게 됨.</li> <li>•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게 함.</li> </ul>
<b>고현학적 창작 기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풍속을 조사·기록하여 탐구하고 창작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시정의 풍속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세태 소설의 입지를 다짐.</li> <li>•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li> </ul>

**● 문체상의 특징**



**● 구보의 인물 유형**



**● '황금광 시대'에 대한 작가의 생각**

구보가 바라본 1930년대의 세태는 그야말로 '황금광 시대'이다. 1930년대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용으로 금광 채굴이 일제의 장려 속에 급격히 성행하였는데, 구보는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좇아 사람들이 금광 채굴에 몰두하는 당대 식민지의 이상 열풍을 '황금광 시대'에 빗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일상적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자본주의 문화의 속성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사회에서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생활 방식은 붕괴되어 갔다. 서서히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로 작가는 황금 열기를 택한 것이다.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는 이제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 작가는 씩씩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자조적 문체를 사용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소설의 주인공인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어머니의 근심을 사는 인물로, 1930년대의 무기력한 ( )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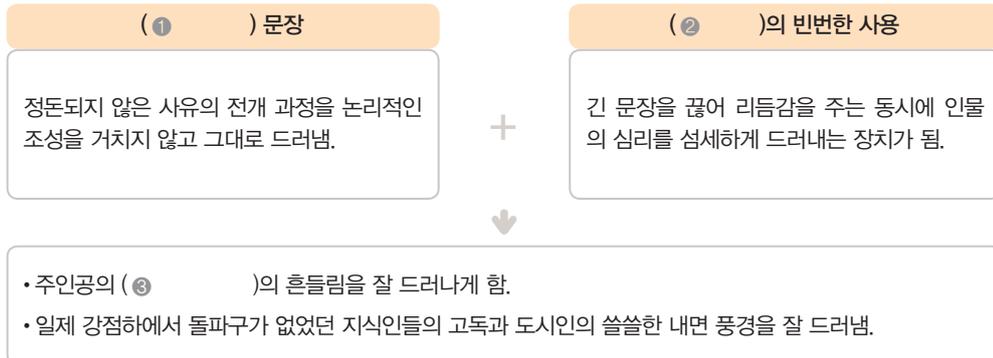
**02** 구보는 일상의 행복이 결여된 자신의 생활을 서글퍼하면서 ( )을 주된 정서로 표출하고 있다.

**03** 이 소설에서는 의문과 가정, 추측의 어미 및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주인공인 구보의 약한 행동력과 ( )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이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에 관해 서술하시오.

**05** 이 소설은 주인공 구보의 심리 묘사에 치중하면서도 당대의 치밀한 ( ) 관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06** 이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을 쓰시오.



**07**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황금광 시대'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쓰시오..

##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 핵심 개념

#### 문학 작품 재구성 활동의 의의

- 온전한 생산 활동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 줌.
- 본격적인 생산을 향한 의욕을 불러일으킴.
- 작품이 담고 있는 삶의 진실을 폭넓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밑바탕이 됨.

####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방법

-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수용하기
-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작품의 구성 요소나 관련 맥락 바꾸어 보기
- 내용, 표현, 형식, 맥락, 매체를 선택하여 형상화하기
- 비판적·창의적 평가를 바탕으로 비평문 써 보기

### 1 문학 작품의 공감·비판·창의적 수용 방법

공감적 수용	·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생각·태도·행동 등을 이해하며 수용함. · 작품 속 작가의 관점·가치관 등에 공감하며 수용함.
비판적 수용	· 독자가 작가의 가치관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해석하고 평가함. ·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며 수용함.
창의적 수용	독자가 자신의 개성 있는 안목에 따라 미적 가치를 찾아내며 수용함.

### 2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호 소통의 의의

- 개성 있는 안목과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
-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음.

### 3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창작

- 문학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활동은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의 하나이면서 새로운 문학 창작의 방법이 되기도 함.
- 재구성은 변형을 통해 또 다른 유기적 결합체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방법

내용	작품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전개 과정, 줄거리 등을 바꾸어 볼 수 있고, 시에서는 시구나 시어에 변화를 주어 내용이나 주제를 바꾸어 볼 수 있음.
표현·형식	작품의 표현이나 형식을 바꾸어 보는 것으로, 소설의 시점을 바꾸어 보거나, 시의 운율이나 어조에 변화를 주거나 작품의 갈래를 바꾸어 보는 것 등이 있음.
맥락	맥락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꾸어 재구성해 볼 수 있음.
매체	작품이 소통되는 매체를 바꾸어 보는 것으로, 인쇄 매체인 원작을 영화,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바꾸어 볼 수 있음.

#### 문학 작품의 창작 방법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나 경험한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 가려내기



상상력을 통해 내용 생성하기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 맥락, 매체 등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창작하기

# 01 즐거운 편지 황동규

1

화자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 그대에 대한 사랑이 '소중함' 일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  
정신적인 고통과 방향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입에 대한 사랑  
 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반어적 표현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  
반복 - '그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강조 ○: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함.  
 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끝까지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함.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자신의 사랑도 끝날 것임.  
 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 → 그대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  
 는다. :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들. 그대에 대한 사랑이 ▶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  
변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



## 작품 한눈에 보기

### ● 제목 '즐거운 편지'의 해석

반어로 보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그대'에게 화자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편지는 '즐겁지 않은 편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편지'라는 반어적 표현의 제목을 통해 기다림의 고통을 반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대'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어로 보지 않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이루기 어려운 사랑의 고통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마저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 작품의 반어적 표현

사랑의 사소한	화자는 자신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사소한 일'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유한함	화자는 '끝까지엔 눈이 퍼붓는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그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을 이어서 제시함으로써 기다림으로 승화된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반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간절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고백

###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고백적, 사색적, 서정적  
 주제: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  
 특징: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그 리움과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함.  
 ②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

이 시에서 화자는 '그대'에 대한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다. 사실 화자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내리고 있는 눈과 같아서 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치게 될 사랑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순간의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다림의 감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변함 없음, 즉 영속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화자는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기다림은 실상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눈 내리는 계절을 지나오면서 이루어 낸 기다림의 자세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이처럼 기다림은 시 속에서 화자의 사랑의 애절함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단원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의 시구인 '사소한 일'의 의미와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한 까닭을 쓰시오.  
 (1) '사소한 일'의 의미:  
 (2) '사소한 일'이라고 한 까닭:
- 02**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과 같이 사소하다고 말하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고 표현하는 ( )을 통해 그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은 이루지 못할 사랑에서 비롯한 젊은 날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 )인 어조로 형상화하고 있다.
- 04** 이 작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1) ㉠에 나타난 화자의 애정관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에 나타난 전통적인 애정관과 다른 점을 서술하십시오.
- (2) ㉡에서 화자가 자신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 바를 쓰시오.
- (3) 이 시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인 시어 두 가지와 그 의미를 쓰시오.
- 부정적 의미로 쓰인 시어: ( ㉠ )
  - 의미: ( ㉡ )

# 02 로디지아발 기차 네이딘 고디머 / 이석호 옮김

기차는 붉은 지평선을 뒤로하고 직단선 <sup>시간적 배경</sup> 선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자그마한 벽들로 지어진 역사(驛舍)는 뾰족한 스위스 풍의 지붕을 얹고 있었다. 역사 <sup>공간적 배경</sup>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sup>관광객들에게 조각상 등의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 가는 원주민들의 궁핍한 삶</sup>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sup>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고함.</sup>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앙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sup>역사 주변 마을의 궁핍한 모습 투영</sup>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은 역사와 '잡화점'이라는 간판을 단 양철 창고, 그리고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진 오두막과 역장의 <sup>잡다한 일용품 파는 상점</sup> 양철집뿐만 아니라 모래 위의 모든 것을 휘감으며 하늘 저 너머로 열기가 식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희미하게 남아 있는 복사열 속에서 모래벌판은 바다처럼 울렁거리기도 <sup>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남.</sup> 했다. 어느새 노을은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새까만 발 가까이까지 와 있었다. [중략]

『삐걱거리는 소리 뒤로 급격한 요동이 한 번 치더니 기차는 혈떡이는 숨을 들이마시 <sup>활유법</sup>며 마침내 역전 안에 정착했다.』

▶ 로디지아발 기차가 역에 정착함.

『기차가 정착하는 모습을 표현함.』

열차의 창문이 일제히 열렸다. / “마님!”

한 소년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보이며 한 여자 승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소년의 <sup>물건을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려는 의도</sup> 손에는 잘 짜인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소년은 ‘마님! 사세요?’ 하고 문듯 바구니를 그녀 <sup>소년의 의도</sup> 를 향해 들어 올렸다. / “아니, 됐어요.”

그 여자는 옆에 <sup>남편</sup> 앉아 있는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선로 밖의 일행과는 다 <sup>시골에 사는 늙은이</sup> 소 떨어진 곳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한 촌로를 가리켰다.

“바로 저거예요.”

그녀가 길고 흰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건조 목에 새겨 만든 <sup>백인임을 암시</sup> 사자상이었다. 검고 흰 문장이 있는 인상적인 조각상이었다.

사자상을 들고 있던 노인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들어 보았다. 『떡 벌어진 입 밖으로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릴 듯했다. 그리고 뾰족한 이빨 사이로는 검은 혀가 언뜻언뜻 내비쳤다.』 / “아주 멋진데!”

『기차: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제작됨. - 아프리카인들의 혼이 담겨 있음.』

사자상의 목 주변에 진짜 같기처럼 붙어 있는 털을 보며 남편이 말했다.

사실적인 모습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먼.”

조잡하지 않음. 예술적 가치가 있음.

▶ 여자와 남편이 사자상에 관심을 보임.

## 작품 연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사자상을 두고 벌인 흥정

주제: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애환

과 서구인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배경과 그 속에서 움직

이는 인물들의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함.

② 소재와 인물 간의 갈등을 통

해 주제 의식이 드러남.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의 대비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시골 역은 뾰족한 스위스 풍의 지붕을 얹고 있는 유럽식 건물이다. 그러나 역 주변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남루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이와 대비된다. 이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여 주는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어휘·어구 풀이

● 로디지아(Rhodesia) '짐바브웨'의 전 이름.

● 직단선 하나의 궤도를 오가는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곧은 철도선.



먼지를 뒤집어쓴 상인들은 기차를 따라 위아래로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공연 중인 동물들처럼 구부정하게 일어서서 기차 안을 향해 이것저것 그럴듯한 물건들을 쳐 물건을 팔겠다고 모여든 상인들을 빚대어 표현함. - 공핍한 생활상 들었다. <sup>아프리카의 자연과 삶을 표현한 공예품들</sup> 화들짝 놀라 희고 검은 동공을 크게 열어 놓은 수사슴을 비롯해 곳곳하게 곧추 서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제압한 듯한 사자상들이 눈에 띄었다. 쪽 찌진 눈으로 단단히 창을 잡아 쥔 채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기다란 전사상들도 보였다. / “얼마요?”

열린 차창으로 여기저기에서 흥정이 붙었다.

“한 푼만 줘쇼.” / 아무것도 팔지 않고 구걸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개들은 양파에 절 <sup>가난하고 열악한 처지</sup> 인 고기 냄새를 풍기는 식당차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한 철도원이 돈과 조각상들이 교환되느라 얽혀 있는 <sup>원주민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줌.</sup> 검은 팔과 흰 팔들의 아치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식당차 밑에 얹전히 앉아 있는 개들을 지나, 한결같은 모양의 꽃병을 사이에 두고 삼삼오오 마주 앉아 맥주잔을 들이켜는 식당 칸의 사람들을 창 너머로 보았다. 역장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건네준 두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사라지는 철도원의 뒤를 따라 방금 들어온 기차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역장과 기관사가 서 있는 쪽을 향해 갔다. [중략]

“그 초콜릿은 어쨌지?” / “그거 별로야.”

한 어린 소녀가 초콜릿을 한 움큼 움켜쥐더니 식당 칸 옆의 개들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나 개들의 입에 닿기도 전에 닭들이 달려와 빠르고 정교한 동작으로 그것들을 낚아채었다. 황당한 개들은 어리숙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안 돼, 내버려 뒀. 너희들은 저리 가.” / 소녀가 외쳤다.

“좀 비싼데요.”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sup>중심인물</sup>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 “예, 나리.” <sup>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함. → 사자상에 담긴 정신적 가치는 읽지 못하고 물질적 가치로만 판단함.</sup>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 “삼 실링 육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 “다음에 사요.” / 여자가 채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 남편은 <sup>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함.</sup>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예요. 다음에 살래요.” / 여자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자 원주민 상인은 사자상을 <sup>여자가 사자상의 구입을 포기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sup> 들고 머리를 가우뚱한 채로 <sup>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듯</sup>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삼 실링 육 펜스라!” / 여전히 남편은 나이 든 노인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는 머리를 차창 안으로 집어넣고 열차 뒤쪽에 가서 앉았다. <sup>▶백인 여자는 사자상에 관심을 보였으나 사지 않음.</sup> 반대편 차창으로는 <sup>물건을 사고파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분위기</sup>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래 들판과 덩불 그리고 가시가 돋은 관목들뿐이었다. 남편이 앉은 뒤편으로는 마지막 객차의 출입구가 있었다. 그 출입구의 문을 열면 역전의 모 <sup>사자상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함.</sup>

- 여자가 사자상을 사지 않은 이유
- 여자는 사자상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사자상은 훌륭한 조각상이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쌌기 때문에
  - 남편이 비싸다고 과장하며 놀라 자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습과 춤추듯 흔들거리는 동물 조각상들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고, 원주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원주민 상인들의 판매품 여자의 눈은 역사의 지붕을 소용돌이치듯 휘감은 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사자상이 생각났는지 미소를 머금었다. 특히 목 부분의 갈기를 사자상을 회상하며 미련이 있음을 보인.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 여자가 타고 있는 객차의 선반에는 사자상은 물론이고 수사슴이며 하마 그리고 코끼리상 등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 조각상들을 집에 모셔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비현실로부터 현실 속으로 옮겨진다면 말이다. 여자에게 지난 몇 주 동 휴가지에서 만난 찬란한 아프리카 문화 밀려들어 오는 문명에 혼을 잃고 방황하는 현실 안 보았던 풍경들은 익숙한 현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현실 그 자체였다. 그러나 밖에 있는 남편은 비현실의 일부가 아니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이 생전 처음 와 보는 어떤 곳에서 만나는 휴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중략]

▶기차 안의 풍경과 상념에 잠긴 여자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처음 제시한 금액(삼 실링 육 펜스)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혹인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들도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토담집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역장은 서서히 살레 지붕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는 모습

늙은 원주민은 갈빗대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모래 속에서 불안한 균형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를 받는 자세로 떠받쳐진 손 헐겁에 조각상을 판 원주민 상인의 허탈하고 씩씩한 심정 바닥에는 조각품의 값으로 받은 일 실링 육 펜스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기차는 꼬리를 흔들거리며 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독의에 찬 모습  
“자, 이걸 보시라.” / 그가 사자상을 흔들며 말했다.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 “뭐라구요?” /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갈등의 원인이 됨.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생계를 위해 절박한 원주민 상인과 대조되는 태도 → 비판의 대상 생계를 위해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 원주민들의 궁핍한 현실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남편이 사자상을 구입하여 아내에게 선물함.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떡 벌어진 입, 뽀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사자상의 예술적 가치 여자는 마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듯 초점을 잃은 두 눈으로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어휘·어구 풀이

- 살레 스위스의 높은 산에 있는, 통나무로 벽을 치고 돌로 지붕을 인 집.

여자가 남편의 사자상 구입에 화가 난 이유  
남편이 아프리카인들이 예술혼을 담아 만든 정교한 사자상을 헐겁에 구입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가치를 폄하하고, 사자상의 가치를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판단하여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조각상의 평하된 가치에 대한 분노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자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사자의 갈기를 어루만졌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한 여자의 심정

“뭐가, 도대체 왜 그래?” /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예상하지 못한 여자의 분노에 대한 남편의 반응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품을 들었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욕 펜스에 말이지요.”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다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여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고 있음.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 조각품이 아주 맘에 드는데 너무 비싸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구.”

“이봐요.” /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격하게 말을 내뱉었다.

감정의 고조

“당신…….” / 여자는 사자상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여자와 남편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이룸.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멍하니 정신을 잃음.

▶일 실링 욕 펜스에 사자상을 사 온 남편에게 여자가 화를 냄.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갖

가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교차하는 것 같았다. 일 실링 욕 펜스라! 나뭇조각과

반복적 표현 - 여자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냄.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욕 펜스라! 그렇게 능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욕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

훌륭한 조각상에 너무 낮은 가치를 매긴 남편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드러남.

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여자는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

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욕

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여자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외부와

의 단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여자는 다시 평상심을 회복했다. / 여자는 자신의 감

감정의 억제

정을 다시 요동치게 할지도 모를 물건과 말 그리고 풍경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듯

사자상

입을 꼭 다문 채 무념무상의 상태로 앉아 있었다. 차창 밖에서 검은 잿가루가 날아와 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남.

자의 손등에 내려앉았다. 여자는 다리를 쭉 뻗은 채 손을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남편과

남편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구석 한 편에 모로 쓰러져 있는 사자상을 등 뒤로 한 채 돌아앉아 있었다. / 기차는 허

물을 벗듯 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 “자, 갑니다. 내

가 간다구요.” /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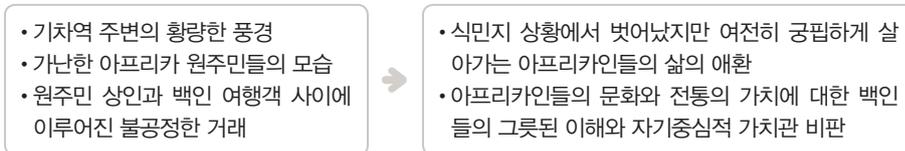
▶혈값에 사자상을 구입한 남편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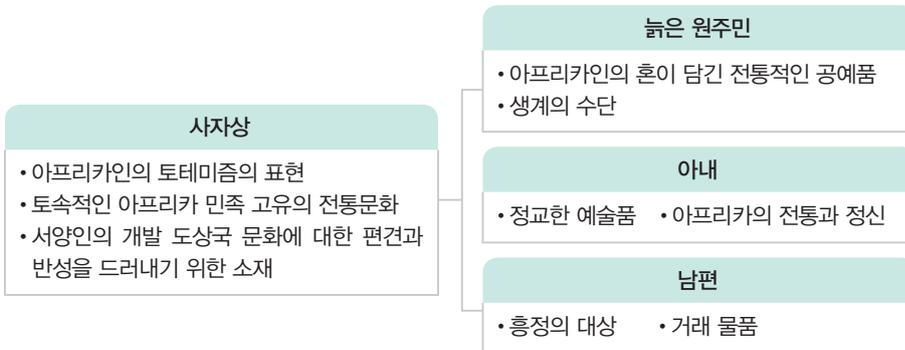
● 인물들이 처한 상황 이해

	기차 안 승객	원주민
처한 상황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긴.	승객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궁핍한 처지임.
거래의 의미	여행의 즐거움을 위한 구매 행위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행위

● 작품에 드러나는 주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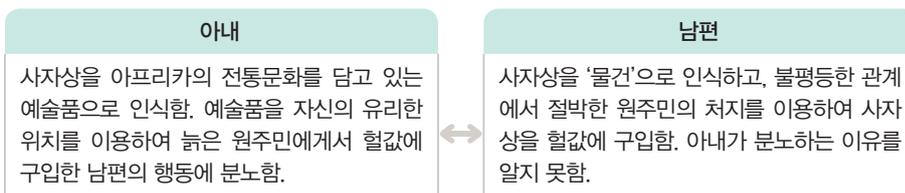


● '사자상'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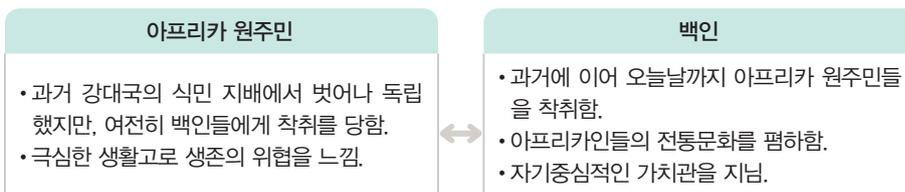


●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

• 표면적 갈등: 사자상 구매 과정에서 나타난 아내와 남편의 갈등



• 이면적 갈등



물건을 파는 원주민과 기차 안 소녀의 대비가 가지는 의미  
기차 안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이대며 물건을 팔기 위해 애쓰는 원주민의 모습은, 초콜릿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들에게 던져 주는 기차 안 어린 소녀의 모습과 대비되어 당시 아프리카의 궁핍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즉,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궁핍한 처지가 되었으며, 기차 안의 승객들은 지배자로서 마치 그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는 식민지하의 왜곡된 근대화의 한 장면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사자상'의 소재적 의미를 쓰시오.
- 02** 늙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사자상'의 의미를 쓰시오.
- 03** 여자가 사자상을 산 값에 산 남편에게 화를 낸 까닭을 쓰시오.
- 04**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대비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쓰시오.
- 05**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쓰시오.
- 06** 이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바를 통해 작가가 구현하고자 한 것을 쓰시오.

| 보기 |

- 기차역 주변의 풍경 묘사
- 가난한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
- 원주민 상인과 백인 여행객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 03 허생전 박지원

허생은 목적굴(墨積洞)에 살았다. 곤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 된 실제 지명.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함.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

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호구지책(糊口之策).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독서의 이유 - 출세의 방편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됨. 허생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 - 비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비판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허생의 선비적 순수성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당시로서는 천시되는 일 -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남.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조선 후기 상인 계층의 번성이 반영됨.

처는 왈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

『』: 양반의 현실적 무능과 허위를 논박함.

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윤리적 가치의 붕괴, 남편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표현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인걸…….”

허생의 뜻이 개인적 영달보다 더 큰 데 있음을 암시함.

하고 획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 가난하고 무능한 생활에 대한 아내의 질타로 집을 나간 허생

허생의 가솔 - 새로운 사건의 전개 예고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雲從街)로 나가서 시중의

칠 년간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었기 때문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조선 후기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을 대표하는 인물

씨를 대하여 길게 읊(揆)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 “그러시오.”

변 씨의 대범하고 과감한 성격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 씨 집의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가 드러남.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씨의 술이 빠져 너털너털하고, 갓신의 뒷굽이

『』: 몰락한 선비의 외양 묘사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갖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관련 한자 성어 - 폐포파림(敝袍破笠)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 “저이를 아시나요?”

## 작품 연구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 - 조선 시대(북벌 정책을 세웠던 효종 때)

• 공간 -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

주제: 양반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하위층의 비판 및 각성 촉구

특징: ① 북학 사상,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현실을 비판함.

②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함.

③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달리 미완의 결말 구조를 취함.

## 허생과 허생의 처의 가치관 차이

허생: 가난한 형편임에도 생계를 생각하지 않고 글 읽기만 좋아함. →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

↓

허생의 처: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가정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함. → 현실적·실용적·경제적 가치를 중시함.

## 어휘·어구 풀이

● 장인바치 ‘장인(匠人)’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손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운종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 시중(市中) 도시의 안.

● 읊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 갓신 가족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

**어휘·어구 풀이**

- **포목** 배와 무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말총**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 **훈척(勳戚)** 나라를 위해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권귀(權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허생의 상행위에 담긴 비판 의식**

- 과일 독점: 온 나라가 제사나 잔치를 못하게 됨.
- 말총 독점: 망건 값이 열 배로 오름.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비판함.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도적들을 설득한 뒤, 이들을 이끌고 마리 보아 둔 빈 섬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한다. 그곳에서 농사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허생은 자신의 이상국 건설의 시험을 마친 뒤 섬에서 나와 나라 안의 빈민을 구제한다. 한편 변 씨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완대장이 허생에게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모르지.” /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  
관련 한자 성어 - 생면부지(生面不知)  
 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 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관련 한자 성어 - 허장성세(虛張聲勢) 관련 한자 성어 - 호언장담(豪言壯談)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  
관련 한자 성어 - 교언영색(巧言令色) 『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 준 까닭  
 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본 변 씨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함.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 변 씨에게 만 냥을 빌린 허생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  
변 씨에게 빌린 돈  
 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  
허생이 안성으로 내려간 이유 - 상품의 집산지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양반의 허례허식을 드러내는 소재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 매점매석(買占賣惜)을 통한 부의 축적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조선의 유통 구조, 경제 구조가 취약함.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  
망건을 만드는 재료  
 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말총이 없으면 망건을 만들지 못해 상투를 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중략]  
양반들이 예를 갖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 매점매석으로 재산을 축적한 허생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사대부들의 탁상공론 비판

▶ 이완과 허생의 만남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 첫 번째 계책 -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삼고초려의 노력이 필요함.』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 했다.  
차선책 ▶ 허생의 현실 대응책 ①: 인재 등용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병을 해 줌.  
 망명해 와서 정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  
『 두 번째 계책 - 명나라 유민을 대우해야 함.』 중진  
 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 “어렵습니다.” / 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 **허생의 현실 대응책 ②:** 종실, 훈척, 권귀의 기득권 폐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집권층의 무능과 실천 의지 부족을 비판함.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청나라 정벌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관련 한자 성어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청나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한족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변과 호북 착용 - 청의 문물을 따름. 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의 시각으로는 허례허식에 불과함.

▶ **허생의 현실 대응책 ③:**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 허례허식에 얽매이는 사대부에 대한 비판 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을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통렬한 비판  
 ▶ **나라를 위한 허생의 개혁을 모두 거절한 이원을 꾸짖으며 사대부의 허례허식을 질타하는 허생의 잠적 - 그가 제시한 시사 삼책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함.**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사라진 허생

어휘·어구 풀이

- 빈공과(賓貢科) 중국 당나라 때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
- 백구지국 중국 봉건 제후국 중에서 규모가 큰 나라.
- 변발(辮髮) 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뿔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만주인의 옷.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 번오기 중국 진(秦)나라의 장수. 연나라로 망명한 뒤 진나라가 이를 빌미로 연나라로 쳐들어오자 번오기는 자신의 목을 주어 진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 하였음.
- 무령왕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왕.

## 작품 한눈에 보기



### ● 작중 상황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

작중 상황	비판 의식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허생의 궁핍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 계층의 경제적 무능력 비판</li> <li>• 양반 계층의 허위적인 삶 비판</li> </ul>
변 씨에게 돈을 빌려 매점매석 행위로 부를 축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li> <li>•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li> </ul>
군도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가 이상국을 건설함([중략]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리공론만 일삼는 무능력한 지배층 비판</li> <li>• 이용후생의 정책 부재 비판</li> </ul>
이완 대장에게 시사 삼책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벌론의 허구성 비판</li> <li>•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례허식 비판</li> </ul>

### ●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

정치	이완 대장과 같은 집권층에서 허구적인 북벌론을 내세우며 친명배척 정책을 펼침.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냥으로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구조가 취약함.</li> <li>• 상업을 천시하고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경제가 발전하지 못함.</li> </u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을 기반으로 한 신흥 부자가 출현하고, 평민 의식의 성장으로 무능한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는 등 신분 질서의 동요가 심화됨.</li> <li>• 양반들은 아무리 비싸도 제사에 쓰이는 과일과 의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망건을 사는 등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음.</li> <li>• 평민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워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li> <li>• 인재 등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음.</li> </ul>

### ● 「허생의 처」와의 비교

	박지원, 「허생전」	이남희, 「허생의 처」
작품의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li> <li>• 현실에 대한 자각 및 실천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생의 성공 이면에 가려진 여성의 짓밟힌 삶</li> <li>•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비판</li> </ul>
주인공	허생	허생의 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허생의 처」의 시각에서 서술)
등장인물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생: 비판적 지식인으로 비범한 능력과 이인다운 면모를 지님.</li> <li>• 허생의 아내: 생활력이 강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진 인물</li> <li>• 변 씨: 허생의 비범한 재주와 성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인물</li> <li>• 이완: 당대 무능한 사대부의 상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생의 처: 허생이라는 가부장적 인물의 그늘에 가려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던 당시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나 점차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인물.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변화함.</li> <li>• 허생: 대외적으로는 인정받지만 가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로, 아내에게 신의와 인륜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유교적 선비</li> </ul>
갈등	개인과 사회(허생과 당시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개인(허생의 처와 허생 간의 갈등)

갈래: 단편 소설, 패러디 소설  
 성격: 비판적  
 배경: 조선 후기, 허생의 집  
 주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세계관 비판  
 특징: ① 「허생전」의 부수적 인물인 '허생의 처'를 중심인물로 설정함.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함.

# 학습지

반 :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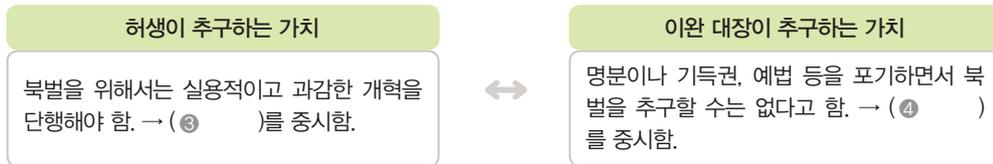
이름 :

## 01 이 작품에 드러난 갈등 양상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허생과 허생의 처의 외적 갈등



- 허생과 이완 대장의 외적 갈등



## 02 이 작품을 통해 비판하려고 한 바를 쓰시오.

허생과 허생의 처 간의 갈등	( ① )
매점매석을 통한 부의 축적	( ② )
'빈 섬'을 통한 이상향의 건설 (중략 부분)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와 해외 무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허례허식과 공리공론에 빠져 있던 당시 식자층을 비판함.
허생과 이완 대장 간의 갈등	( ③ )

## 03 이 작품에 이완 대장을 등장시킨 까닭을 쓰시오.

## 04 「허생의 처」에 나타난 '허생의 처'와 '허생' 간의 갈등 양상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2  
단원

# (3) 문학의 확장

## 핵심 개념

### 문학의 인접 영역

문학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접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현상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문학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하다. 문학은 그러한 복잡한 현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이며 유목적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의 관점에서 인접 예술을 감상하거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학을 다른 예술로, 또는 다른 예술을 문학으로 변환하며, 사회 현상을 문학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삼지원, 1998)

###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인식 체계의 변화

모든 매체는 어떤 이미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인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특정한 형식이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라디오로 듣는 것, 그리고 신문으로 읽는 것은 제각기 다르다. 그것은 단지 전언 내용(메시지)을 다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매개 형식, 즉 매체가 다르면 전달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략]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맥루언의 명제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의 변화는 곧 우리 인식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박영욱, 『매체, 매체 예술 그리고 철학』(향연, 2008)

## 1 문학과 인접 분야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 예술로서, 다양한 인접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문학과 인문	문학과 사회	문학과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li> <li>• 역사와 철학 등 인문 분야의 주요 주제들이 문학 작품 내에 수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문학이 인문 분야에 파급력을 미치기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을 둘러싼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현상 등과 깊은 관련을 맺음.</li> <li>• 정치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심리학 등 사회 분야와 관련을 맺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은 언어 예술의 하나로써 문화의 한 영역임.</li> <li>•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li> <li>• 문학이 다른 예술로, 다른 예술이 문학으로 전환되기도 함.</li> </ul>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함으로써, 문학 활동의 범주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음.

## 2 문학과 매체

- 문학 작품은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의존해 왔으나,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됨.
- 같은 작품이라도 전달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작품의 미적 특성, 표현 방식, 감상 내용, 심미적 가치가 달라짐.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소통과 수용

#### 매체 시대의 문학 작품의 소통 방식

신문, 잡지, 단행본 등 기존의 매체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학 작품이 소통됨.



####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영향

전달 매체의 특성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에 반영됨.



전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 감상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함.

# 01 남한산성 김훈

[앞부분 줄거리] 1636년(인조 14) 청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운데 인조는 청의 장수 용골대의 문서를 받게 중심 갈등 소재 - 조선의 굴복을 요구함. 된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아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용골대에게 맞서 싸우지 못함.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마지막 상황까지 몰린 상황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최명길과 김상헌이 갈등하게 되는 문구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승지가 마져 읽기를 머뭇거렸다.  
조선의 항복을 요구하는 용골대의 문서를 왕에게 돌려 주기에는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에

너희 군신이 그 좁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용골대가 문서를 보내와 조선의 항복을 요구함.  
청의 대군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한 주화파 인물  
항복하라는 용골대의 문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 최명길의 분석 - 적이 서둘러 쳐들어오지 않는 것을 화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함.  
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청나라에서 보낸 문서의 답을 문서로 하지 말고 신하들을 보내는 것으로 하자는 최명길의 의견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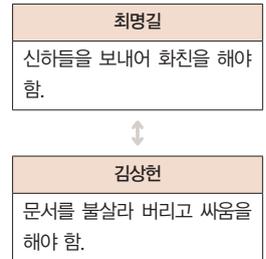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중국 당나라 때 양쯔강 부근에 설치하였던 군 및 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김상헌의 분석 - 화친을 할 생각이면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임. 짐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  
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입니다. 투항 정도의 심각한 대가를 요구할 것임.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  
식을 삼더라도 지키므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  
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  
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김상헌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

화는 화친을, 전은 전투를, 수는 수비를 뜻함. 김상헌의 의견 - 적을 철저히 배척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려 함.  
 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김상헌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품 연구**  
 갈래: 장편 소설, 역사 소설  
 성격: 역사적, 비판적  
 배경: • 시간 - 17세기 병자호란  
 • 공간 - 남한산성 안  
 주제: 병자호란의 치욕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특징: 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제시함.  
 ② 상황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 간의 대사가 주를 이룸.  
 ③ 간결하고 힘 있는 문체를 사용함.

용골대 문서의 대응 방안에 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의견 대립



**어휘·어구 풀이**  
 • 투항: 적에게 항복함.

‘화(和)’와 ‘전(戰)’에 관한 의견 대립

<b>최명길</b>
성 안의 내실이 남아 있을 때 화친을 해야 함.
↕
<b>김상헌</b>
화해할 수 없을 때 화해하는 것은 투항임. 먼저 싸워서 화친을 이끌어 내야 함.

‘삶’과 ‘죽음’에 관한 의견 대립

<b>최명길</b>
죽음은 가법지 않으며 목숨을 살려야 함.
↕
<b>김상헌</b>
의롭지 않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

**어휘·어구 풀이**

- 피폐 지치고 쇠약하여짐.
- 몽매(夢寐)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
- 본말(本末) ① 사물이나 일의 처음과 끝. ②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해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화친을 하지 않으면 성 안에서 분란이 일 것이며, 싸움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성 안에서 죽게 될 것임을 의미함.』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降)이오. 화친은 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함. →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내실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本)이고 화가 말(末)이며 싸우는 것이 우선이고, 화친은 그 뒤의 일이니,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성을 지켜내는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 수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게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 희망을 갖고 전투에 임해야 함.  
 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 ‘화(和)’와 ‘전(戰)’에 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의견 대립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버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내용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성이 없음을 비판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일단 살아야 한다는 최명길의 주장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신하들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임금의 심기가 불편해짐.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 삶과 죽음에 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의견 대립과 인조의 개탄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옵소서. 장마가 지면 물이 한골로 모

이듯 말도 한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성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 대의에 대한 비판 - 대의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님.

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

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목숨이 어느 쪽을 좇

아야 하겠습니까. 상헌은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헌은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헌을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김상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 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옵고 강토를 보전 하고 군부를 지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운데, 명길이가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虎口)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가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법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 「.; 묘당의 말을 비하하는 최명길의 의견에 대한 반박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쳤다.

“이러지들 마라. 그만하라지 않느냐.” ▶묘당의 말을 비하하는 최명길의 의견과 그에 대한 김상헌의 반박

두 신하 중 어느 한쪽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이러한 상황까지 물린 조정의 처지가 몹시 개탄스러웠기 때문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다. 영의정 김류는 말없이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

모든 신하

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내렸다. 성첩에서 다시 총소리가 두어 번 터졌다. 임금이 김

류에게 물었다.

“영상은 어찌 말이 없는가?”

영의정 김류가 이마를 마루에 대고 말했다.

“말을 하기에는 이판이나 예판의 자리가 편안할 것이옵니다. 「신은 참람하게도 체찰사

의 직을 겸하여 군부를 총괄하고 있으니 소견이 있다 한들 어찌 전과 화의 일을 아필

수 있겠사옵니까.」 ▶체찰사의 직분으로 전과 화를 논할 수 없다는 김류

최명길이가 말했다.

“영상의 말이 한가하여 태평연월일 듯하옵니다. 전하, 적들이 성을 깨뜨리려 덤벼들

면 사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전하, 늦추어야 할 일이 있고 당겨야 할 일이

있는 것이옵니다. 적의 공성을 늦추시고, 늦추시는 일을 당기옵소서. 시간을 벌기 위

해서라도 우선 신들을 적진에 보내 말길을 열게 하소서. 지금 묘당이라 해도 오활한

유자(儒者)의 찌꺼기들이옵고 비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헛된 말들은 소리가 크고

유생,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한 골로 쏠리는 법이옵니다. 중론을 묻지 마시고 오직 전하의 성단으로 결행하소서.”

묘당을 중심으로 한 중론은 이미 화친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김상헌이 말했다.

“명길의 품에 굳은이 깊어서 그 품계가 당상인데, 어가를 추운 산속에 모셔 놓고 어찌

임금에게 성단, 두 글자를 들이미는 것이옵니까.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

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 자를 먼저

적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임. 「.;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함.

어휘·어구 풀이

- 묘당 조선 시대 행정부의 최고 기관인 '의정부'를 달리 이르던 말.
- 충렬 충성스러운 열사.
- 반열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 성첩 성가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함.
- 참람하게도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게도.
- 체찰사 조선 시대에, 지방에 군관(軍官)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일반 군무를 맡아보던 임시 벼슬. 보통 재상이 겸임하였음.
- 공성 성이나 요새를 공격함.
- 오활한 곧바르지 아니하고 돌아서 실제와는 거리가 먼,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 비국 비변사(備邊司)를 가리킴. 조선 시대에, 군국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음.
- 성단 임금의 판단을 높여 이르는 말.
- 당상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가 임금이 타던 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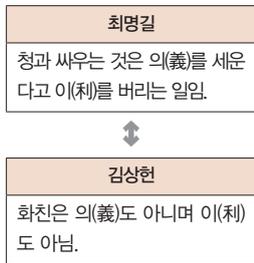
‘공론’과 ‘성단’에 관한 의견 대립

최명길
공론에 휩쓸리지 말고, 사세를 살펴 성단(임금의 판단)을 내려야 함.



김상헌
대의를 향한 공론을 모아야 함.

‘의(義)’와 ‘이(利)’에 관한 의견 대립



어휘·어구 풀이

- 창의 국난을 당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 동장대 장수가 산성을 지킬 때에 올라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높게 만든 동쪽의 대.

꺼내 보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무도한 문서를 성안에 들인 수문장을 벌하시고 관련 한자 성어 - 일벌백계(一罰百戒) 적의 문서를 불살라 군병들을 격발케 하 황해도와 평안도를 이름. 옵소서. 애통해하시는 교지를 성 밖으로 내보내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과 양서(兩西)의 군사를 서둘러 부르셔야 군주국에서 관원과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하옵니다. 이백 년 중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 의병이 일어나 도와주려 올 것임. 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상헌의 답답함이 저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길을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터인데,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김상헌이 말했다.

“지금 묘당의 일을 성안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조정이 화친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화친의 의사가 드러나는 순간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임. 성첩은 스스로 무너질 관련 한자 성어 - 표리부동(表裏不同) 것이옵니다. 화자를 깃발로 내걸고 군병을 격발시키며 창의 관련 한자 성어 - 표리부동(表裏不同) 군사를 불러 모을 수 있겠사옵니까? 명길의 말은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옵니다. 명길은 울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곡하려는 자이옵니다.” 최명길은 이(利)를 위해 의(義)를 포기하려는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임. 최명길이 또 입을 열었다.

“웃으면서 곡을 할 줄 알아야…….”

임금이 소리 질렀다.

▶ ‘의(義)’와 ‘이(利)’에 관한 의견 대립

“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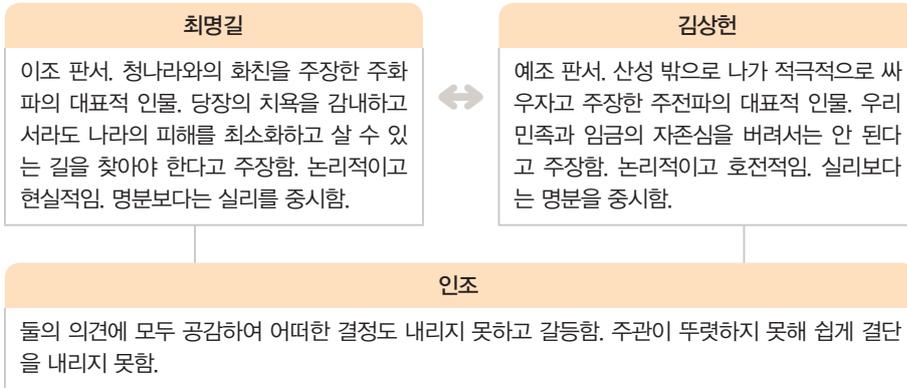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 임금은 옆으로 돌아앉았다. 『달이 능선 위로 올라 내행전 마루를 비추었다. 쌓인 눈이 극심한 고민에 빠짐. 달빛을 뺏아들어서 먼 성벽이 부풀었다. 『』 겨울 남한산성의 밤 풍경 묘사 - 임금의 괴로운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달빛은 눈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성벽은 땅 위의 달무리처럼 보였다. 추위가 맑아서 밤하늘이 새파랬다. 동장대 쪽 성벽이 별에 닿아 있었다. 추운 날씨를 통해 임금의 고뇌 또한 깊음을 암시함.

▶ 끊임없이 지속되는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

[뒷부분 줄거리] 인조의 명령으로 용골대를 만난 최명길이 청나라의 요구를 전하고, 김상헌은 원군을 요청하려 대장장이 서날쇠를 산성 밖으로 보낸다.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고 김상헌은 자결을 시도한다. 이듬해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다.



●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갈등 관계



● 쟁점별로 본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

최명길	쟁점	김상헌
지금은 전(戰)이 아니라 화(和)를 해야 할 상황임.	적과 화친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화(和)가 아니라 전(戰)을 해야 할 상황임.
공론을 따르지 말고, 사세에 따라 성단(임금의 판단)을 결행해야 함.	공론을 따라야 하는가?	공론은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은 아름다운 대의를 담고 있음. 지금은 성단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므로 대의를 향한 공론을 중시해야 함.
청과 싸우는 것은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리는 일임.	의(義)와 이(利)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청과 싸워 보지도 않고 화친을 하는 것은 의(義)도 아니며 이(利)도 아님.

● 소설 「남한산성」과 영화 「남한산성」의 차이점

소설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자 언어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체험을 전달함.</li> <li>작가 특유의 문체를 통해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개성적으로 형상화함.</li> <li>군더더기 없이 짧고 간결하며, 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사건 전개에 긴박감이나 현장감을 살림.</li> <li>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 언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간접 체험의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li> <li>음성 언어, 음향 효과, 미술 효과, 영상 등의 영화적 장치를 통해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전달함.</li> <li>클로즈업과 롱 샷을 극단적으로 교차하고, 넓고 관조적인 풍경과 인물의 표정을 가깝게 들여다보는 접사를 직접 붙여 촬영함으로써 원작의 문체가 주는 힘의 느낌을 영화적으로 형상화함.</li> <li>김상헌이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장면과 같이 원작에 없는 장면을 추가함.</li> </ul>

역사와 문학의 관계

문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체는 아니며, 역사적 현실을 더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침.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관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함.</li> <li>사실성(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을 중시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함.</li> </ul>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함.</li> <li>허구성(상상에 의해 창조된 세계)을 중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함. 작가 특유의 문체를 사용하여 작중 상황과 인물의 내면을 실감나게 묘사함.</li> </ul>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 )을 다룬 역사 소설로,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02** 이 작품에 나타난 최명길과 김상헌의 의견 대립 양상을 정리해 보시오.

최명길		김상헌
화친할 뜻이 담겨 있으므로 문서에 따라 화친(和親)을 해야 함.	문서 대처 방안	화친이 아니라 투항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문서를 불사르고 싸움을 해야 함.
지금은 화친을 해야 할 상황임.	( ① )	지금은 화친이 아니라 싸워야 할 상황임.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죽는 것보다 어떻게든 사는 것이 중요함.	삶·죽음	욕된 삶은 곧 죽음이므로 비루하게 사는 것보다 의롭게 죽는 것이 나음.
공론이 일의 형세를 무시하고 대의를 중시하는 말만 하고 있음. 공론에 휩쓸리지 말고 사세를 살펴 성단(임금의 판단)을 결행해야 함.	( ② )	공론은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은 아름다운 대의를 담고 있음. 지금은 성단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므로 대의를 향한 공론을 중시해야 함.
청과 싸우는 것은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리는 일임.	( ③ )	청과 싸워 보지도 않고 화친하는 것은 의(義)도 아니며 이(利)도 아님.

**03** 다음 항목에 따라 이 작품의 문체상 특징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 (1) 문장의 길이:
- (2) 배경의 묘사:

**0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매체에 따라 나타나는 작품의 미적 특성의 차이점에 관해 소설과 영화의 경우로 일반화하여 쓰시오.

|보기|

**기자:** 원작의 대사나 내용뿐만 아니라 김훈 특유의 힘 있는 문체나 냉정함까지 영화에 옮겨 더러. 김훈 작가가 만족했을 것 같다.

**감독:** 원작의 시적이면서 철학이 담긴 대사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그대로 살렸다. 풍경 묘사도 카메라의 움직임 주지 않고 기교 없이 찍었다. 대신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롱 샷을 극단적으로 교차했다. 넓고 관조적인 풍경과 인물의 표정을 가깝게 들여다보는 접사를 직접 붙였는데 그 충돌에서 오는 힘이 김훈 작가의 문장과 비슷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 [하략]

# 02 총, 꽃, 시 정재찬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130명의 무고』 방송 영상 - 유럽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을 소재로 활용함.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의 아픔과 산 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프티주르날(Le Petit Journal)>이 올린 동영상의 컷.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소재 이민자인 아빠 앙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순진하게만 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 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파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힘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꽃이 있잖니?”  
평화와 희망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우리들을…….”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 “그렇고말고!”

“촛불도요?” /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꽃이 우리를 지켜 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 준다는 말에 브랑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과 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아빠 앙겔이 아들 브랑동에게 한 말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않고 뛰어넘음.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글쓰기가 생각하는 인과 관계의 비약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어린아이기에 현자(賢者)인 탓일까. 브랑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시에게 묻는다.  
주제 의식이 드러난 문제 제기 - 꽃(희망)이 총(폭력)을 이길 수 있음.  
 ▶방송 영상의 사례를 통해 꽃이 총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생명, 희망의 상징  
 방공호(防空壕) 위에 / 어찌다 된 /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꽃씨(생명)를 받으시는 할머니 전쟁의 상황(죽음, 파괴) 꽃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꽃으로, 생명의 숭고함을 상징함.

호(壕) 안에는 / 아예 들어오시될 않고  
전쟁을 부정하는 태도  
 말이 수째 적어지신 / 할머니는 그저 누여우시다. ▶전쟁 상황에 대해 분노하시는 할머니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 진작 죽었더라면 / 이런 꼴 / 저런 꼴 / 다 보지 않았으려면…… ▶할머니의 넋두리  
 할머니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제시함 - 전쟁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절망과 환단

**작품 연구**  
 갈래: 수필  
 성격: 상징적, 사색적  
 주제: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특징: ①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함.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함.

아빠 앙겔이 아들 브랑동에게 ‘꽃’이 ‘총’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까닭  
 어떠한 폭력과 거대한 힘도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휘·어구 풀이**  
 ● **현자(賢者)**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



상상의 장면 하나, 카투니스트 지현곤의 그림을 보라. 『척추 결핵을 앓아 하반신 마비  
그림 - 전쟁 속에서 부각되는 꽃의 순수함. 총보다 강한 꽃의 사례 ④』: 그림에 담긴 작가의 노력  
중증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년간 바깥 외출도 못 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아니 피와 땀으로 한 점 한 점 찍어 낸 그림, 아름다운 작가의 눈물겨  
운 그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 나오는 그림이다. 평소보다 더 평화로  
운 전장의 폐허,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대비되는 순수함을 상징 ▶총보다 강한 꽃의 사례들(사진, 그림)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  
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강한 존재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  
다.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존재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  
긴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시는 닭고자 한다. 시는 지배 언어  
의 자기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주제 의식이 드러난 문장 ▶크고 강한 것을 이기는  
작고 부드러운 꽃을 담은 시



▲ 지현곤, 「병사와 꽃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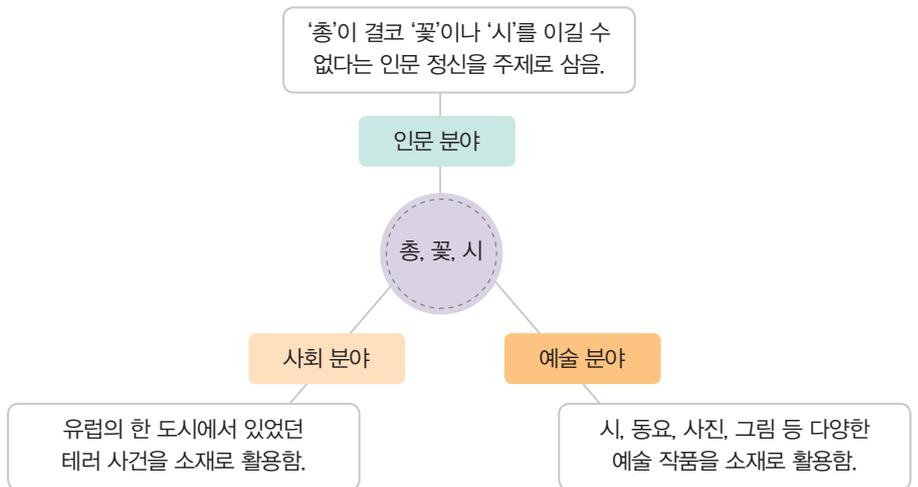
**작품 한눈에 보기**

● '총', '꽃', '시'의 상징성

	'총'	'꽃' = '시'
의미	강한 것, 큰 것, 폭력적인 것	약한 것, 작은 것, 부드러운 것
사례	전쟁,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 지배 언어	평화, 여성, 아이, 장애, 변방의 언어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 「총, 꽃, 시」에 활용된 인접 분야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글은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 )들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  
필이다.

**02** 다음은 이 글에 사용된 소재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총’	‘꽃’ = ‘시’
의미	( ① )	약한 것, 작은 것, 부드러운 것
사례	전쟁,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 지 배 언어	( ② )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03** 이 글에서 ‘총’보다 강한 ‘꽃’의 사례로 활용된 소재들을 찾아 쓰시오.

**04** 문학이 우리 사회와 문화의 여러 분야와 깊은 관련을 맺고 확장됨으로써 하는 역할을 쓰시오.

**05** 이 글은 ( ① )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 ② )라  
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03 만화 토지

박경리 원작 / 오세영 그림

[앞부분 줄거리]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의 대지주 최 참판 맥의 외동딸 서희는 할머니 윤씨 부인의 분부에 따라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최치수에게 문안을 드리게 된다.



### ● 만화 형상화 방식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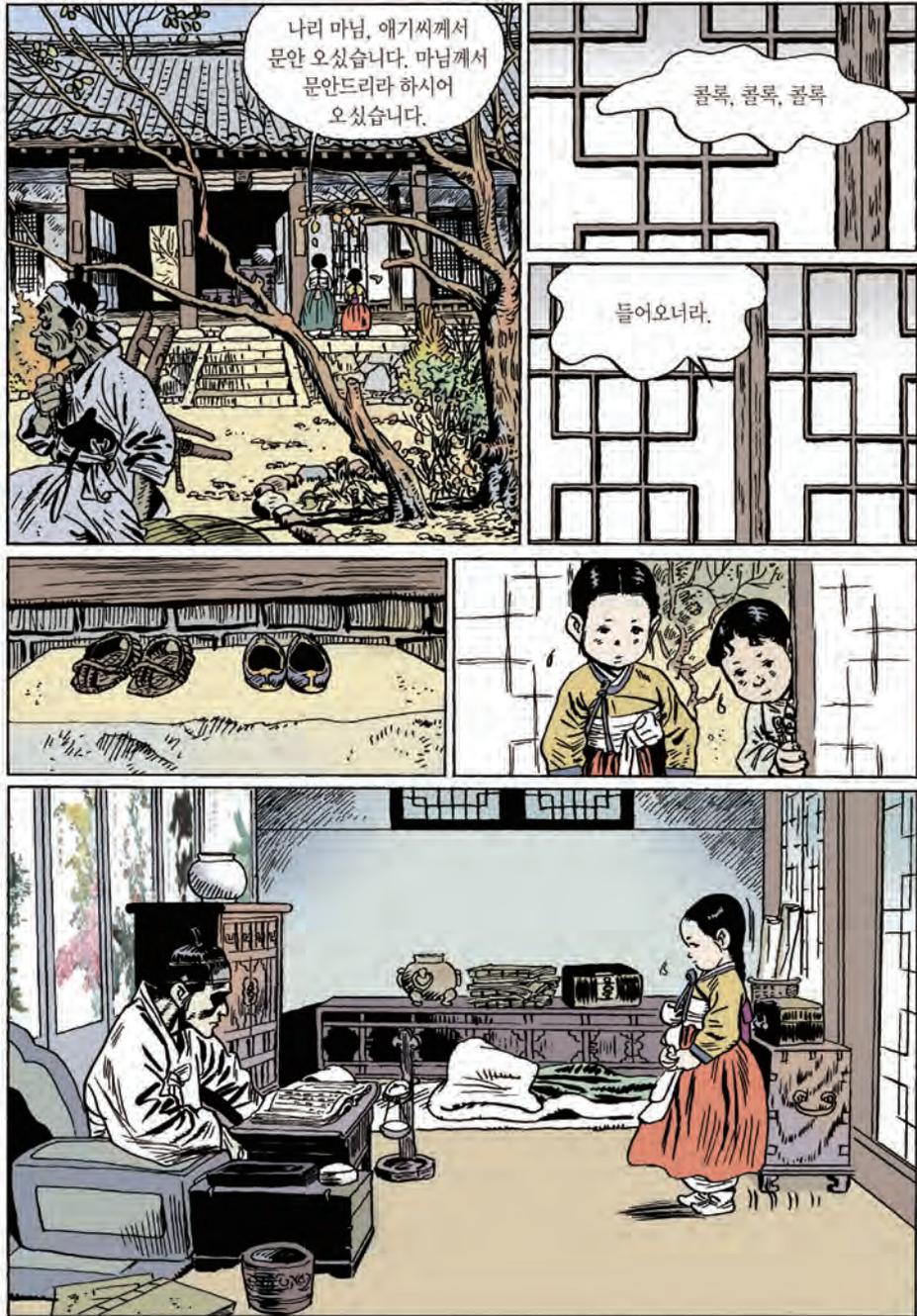
<p><b>장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li> <li>• 생략, 변형, 과장 등의 표현이 자유로움.</li> </ul>	<p><b>단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li> <li>• 분량상, 상세하고 세밀한 묘사에 제한이 있음.</li> </ul>
---	---

### 작품 연구

- 갈래: 만화  
 성격: 사실적, 역사적, 민중적  
 주제: 토지를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삶  
 특징: ① 대하소설 『토지』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임.  
 ②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만화적 특성을 잘 살림.  
 ③ 사실적인 장면 설정과 세밀한 그림체로 인물의 심리와 작품의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함.

### 『토지』의 주요 인물 소개

최서희	최치수와 별당 아씨의 딸. 최 참판 가문의 혈통을 잇는 유일한 인물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으로 자라난다. 훗날 빼앗긴 집안의 토지를 되찾고 은밀하게 항일 운동을 하며 평사리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살게 된다.
김길상	최 참판 맥의 심부름꾼으로 충직한 인물. 훗날 서희의 사업을 도와 성공한 후 서희와 결혼하게 된다.
최치수	서희의 아버지. 한때 촉망 받는 지식인이었으나 삶 자체에 허무감을 느끼며 피해 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



● '토지'를 소설로 읽었을 때와 만화로 읽었을 때의 차이점

소설로 읽었을 때	만화로 읽었을 때
소설에서는 글을 통해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서술함.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만화는 글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림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표현하고 사건을 진행함.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하지만 만화에서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수용할 수 있음.



제목 '토지'에 담긴 의미

토지
↓
삶의 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라만상의 모태</li> <li>• 농경 사회의 근간</li> <li>• 민중들의 영혼의 안식처</li> </ul>
신분 질서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건적 계급질서의 현장</li> <li>•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급간 이해와 갈등의 토대</li> </ul>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권의 상실과 회복의 현장</li> <li>• 민족 근대사가 전개되는 현장</li> </ul>

● 「만화 토지」의 작가가 소설 「토지」를 만화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점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떠올린 장면들을 만화는 정지된 화면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만화가는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어 낼 때 시대의 고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밀도가 높은 언어를 그림으로는 모두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면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 소설과 만화의 매체 특성 비교

소설	만화
• 글(문자)로 표현함.	• 글과 함께 그림(기호, 그림체, 여백)을 통해 표현함. 시각적 요소가 주로 표현됨.
•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 글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림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사건을 진행함.
• 내용을 전달할 때 비교적 긴 서술이 필요함.	• 그림을 통해 압축적으로 내용 전달이 가능함.
•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나 작품 속 장면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내용 파악이 쉽고 생생한 느낌이 들어 흥미로우나 상상력을 제한하는 면이 있음.
• 독자의 상상력에 전적으로 의존함.	• 인물이나 사건,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주며,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촉발시킴.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서술하여,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상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생동감 있게 수용할 수 있음.

● 오세영 각색·그림, 『만화 토지』

이 작품은 만화가 오세영이 원작 『토지』에 만화 특유의 맛과 스타일, 한국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한 만화이다. 만화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예술성을 통해 글과 그림의 조화를 살려 재미와 흥미뿐 아니라,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만화 토지』는 등장인물이 500명이 넘는 점, 건축물과 농기계, 의복 등 작품 속의 시대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해 낸 점, 그림 하나하나에 색을 입혔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현실적 장면 설정과 사실적 그림체로 인물이나 작품의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 소설 『토지』와 『만화 토지』의 표현 양상 비교

소설 『토지』는 대하소설이다.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완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소설에 비해 『만화 토지』는 어린이들도 쉽게 대하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토지』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만화 토지』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두 인물의 관계는 표정, 눈빛, 서희가 흘리는 땀방울 등 보다 구체적이고 만화적인 표현들로 풀어지고 있다. 치수의 초췌한 모습, 날카로운 눈빛, 서희의 주눅 든 표정, 불편해하는 동작 등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독자는 훨씬 더 쉽게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만화 토지』와 소설 『토지』의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설	만화
	서희의 목소리 톤에 대해 서술하여 서희의 심리를 드러냄.	서희의 대사는 동일하게 재현함. 서희의 경직된 ( ① )을 그려 서희의 심리를 표현함.
	최치수의 음산한 목소리와 서희를 응시하는 싸늘하고 비정한 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함.	최치수의 대사는 동일하게 재현함. 검은색 선과 음영을 활용한 인물 표현을 통해 병색이 완연하면서도 음산한 인물의 분위기를 표현함.
	고개를 저을 때의 서희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그림 기호와 글자를 통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표현함. 겁먹은 표정과 땀방울을 그려 서희의 ( ② )을 표현함.
	최치수의 눈빛과 그가 내뿜는 분위기를 비유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함.	글을 배제한 채, 어두운 분위기의 배경과 그림자, 인물 구도에 시선을 집중시켜 인물 간의 ( ③ )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최치수의 손과 책갈피를 넘기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함. 압박감을 느끼는 서희의 심리를 서술함.	글자와 그림 기호를 통해 책장을 넘기는 행동과 시간의 경과를 표현함. 서희의 표정을 통해 심리를 표현함.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인물 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냄.	글자를 통해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배경의 검은 면과 선, 인물 간의 구도를 통해 ( ④ )을 조성함.

## 02 문학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문학의 변화를 쓰시오.





# 3

## 한국 문학의 성격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01 어미 말과 새끼 말
- 02 송인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01 사미인곡
- 02 태평천하

###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 01 정선 아리랑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핵심 개념

### 한국 문학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우리말로 표현한 문학을 말함. 한국 문학에는 말로 된 문학과 글로 된 문학이 있는데, 말로 된 문학을 구비 문학이라고 하고, 글로 된 문학을 기록 문학이라고 함.

### 한문 문학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기록된 문학이지만,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 사용이 불가피했고,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가 공동 문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함. 또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한문 문학은 우리 민족, 특히 양반 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옴.

### 차자(借字) 문학

한자의 음과 훈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만든 문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 방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에 포함시키고 있음.

## 1 한국 문학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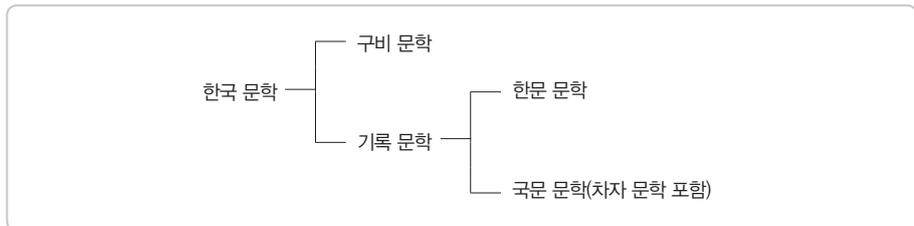
한국 문학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살면서 각 시대의 역사적 생활 공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온 문학의 총체임.

### 한국 문학

수단이 되는 언어  
한국인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  
창작과 향유의 주체  
작품에 담긴 주제

## 2 한국 문학의 범위

-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뉘며, 기록 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뉨.



구비 문학	기록 문학	
	한문 문학	국문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온 문학</li> <li>• 주로 민중에 의해 창작, 향유되었기에 민중의 감정, 생활상이 잘 드러남.</li> <li>• 민요, 설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의 수입 이후 한자로 창작·기록된 문학</li> <li>• 중국의 문자를 사용한 것이지만 한국 문학에서 제외할 수 없음.</li> <li>• 한시나 한문 소설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로 기록된 모든 문학</li> <li>• 개화기 이후 한국 문학의 중심이 됨.</li> <li>•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향가 등의 차자 문학을 포함함.</li> </ul>

- 문자가 없던 시대에 한국 문학은 구비 문학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임.
- 삼국 시대에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는 한문 문학과 구비 문학이 공존하였으며, 근대 이전까지 한문 문학이 주류 문학의 위치를 차지함.
- 조선 초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국문 문학과 함께 구비 문학, 한문 문학이 존재하였으며, 근대 이후 국문 문학이 한국 문학의 중심에 놓이게 됨.

# 01 어미 말과 새끼 말

작자 미상

옛날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인제가 있나 없나야. 이걸 알기 위해서 말을 두 마리를 보냈어. 말. 대국서 잉? 조선 잉금게루 보내면서,

대국 천자가 문제를 낸 의도

“이 말이 어떤 놈이 새끼구 어떤 놈이 에미가 이것을 골라내라야.” 하구서…….

대국 천자가 낸 문제의 내용

똑같은 놈여. 똑같이 그제 둘 다. 그러구서 보냈어. 조선에 인자가 있나 없나. 인자가

많았었거던? 조선에? 내력이루. 자아 그러니 워트겨 이걸?

문제가 풀릴 것임을 암시함.

원 정승이라는 사램이 있어. 그래 아침 조회 때 들어가닝개,

“이 원 정승 이놈 갖다가 이걸 골라내쇼오.” 말여. 보낸다능 게 원 정승에게다 보냈

원 정승이 대국 천자가 낸 문제를 맡게 됨.

어. 응. 인제 가서 골라내라능 기여.

▶대국 천자가 문제를 내서 조선을 시험함.

원 정승이 갖다 놓구서, 이거 어떤 놈이구 똑같은 놈인디 말여, 색두 똑같구 워명 게 에민지 워명 게…… 똑같이어? 그저어?

원 정승이 맞닥뜨린 난관

“새끼가 워명 겐지 에미가 워명 겐지 그거 모른다.” 그러닝개, / “그러요?”

그러구 가마안히 생각해 보닝개 도리가 있으야지? 그래 앓구 두러렸네? 머리 싸매구 두러렸느라니까, 즈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야?” 그러거든. / “야? 아무 날 조회에 가닝까야, 이 말을 두 마리를 주면서 폴르라구 허니이, 이 일을 어트가야 옳은단 말이냐야?”

어린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원 정승

▶대국 천자의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공공하는 원 정승

“아이구, 아버지.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라구. 내가 골라 디리께.” / “나가 폴리?”

자신감 있는 태도로 원 정승을 안심시키는 아들

“예예.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요.” / 그래, 아침을 먹었어. 먹구서 그 이튿날 갔는디,

시간의 흐름

“이놈이 콩을 잔뜩, 쏘아 가지구설랑은 여물을 맨들어. 여물을, 여물을 대애구 맨들어 놓”

『』: 아들의 문제 해결 방법

는단 말여. 여물을 맨들어 가지구서는 갖다 향곳이다가 떠억 놓거든. 준담 말여. 구유다가 여물을. / 여물을 주닝개, 잘 먹어어? 둘이 먹기를. 썩 잘 먹더니 주동패기루 콩을

대애구 요롭게 제쳐 주거든? 썩었 놈을? 콩을 제쳐 줘. 저는 조놈만 먹구. 짚만 먹구 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저, 콩을 대애구 저쳐 준단 말여. / 새끼 주는 씩(썩)이지 그러닝개, 대애구 요롭게, [중략]

“요게 새깁니다. 요건 에미구. 포를 허시교.” / 포를 했어. / “음. 왜 그러냐?” 그러닝개,

“아 이거 보시교. 콩을 골라서 대애구 에미라 새끼 귀해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새끼 귀헌 중 알구. 그래 콩 중 게 이게 새끼요오. 이건 에미구.”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머니는 자신의 새끼를 먼저 챙김.

아, 그 이튿날 아닝 것두 아니라 가주 가서, “이건 새끼구 이건 에미라구.” 그러닝개, 그러구서는 대국으로 떠억 포해서 보냈단 말여. 그러닝개.

“하하하, 한국에 연대까장 조선에 인자가 연대 익구니아.” 그러드랴.

대국 천자의 평가

▶아들의 꾀로 대국 천자가 낸 문제를 풀어냄.

## 작품 연구

갈래: 설화

성격: 교훈적, 구술적

제재: 대국 천자의 문제를 풀어낸 아들의 지혜

주제: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

특징: ①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구비 전승되는 설화의 특징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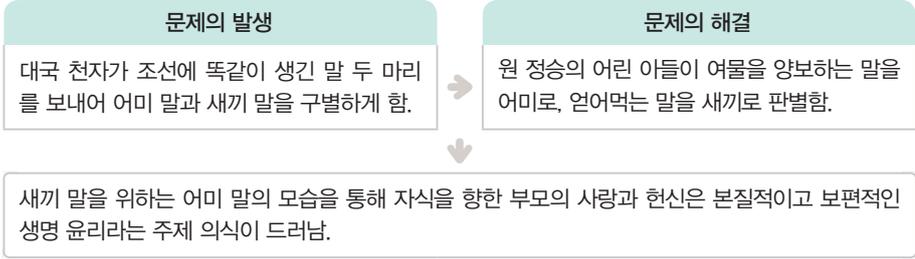
② 즉흥적 표현, 구어체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여 구어적 특성이 드러남.

## 어휘·어구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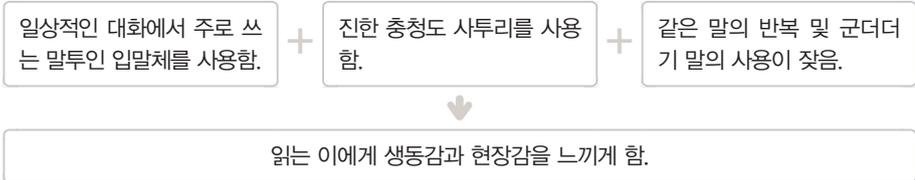
- 인자 은자. 숨은 인재.
- 내력이루 고래로.
- 대애구 자꾸.
- 포 표.
- 연대 여태.



● 서사 구조와 주제



● 문체상의 특징과 효과



● 「어미 말과 새끼 말」과 같은 구비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까닭

「어미 말과 새끼 말」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구비 문학은 기록 문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민중의 삶과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온 한국 문학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므로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 설화의 하위 갈래로서의 특징

	신화	전설	민담
배경	태초, 신성한 공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불분명한 시간과 장소
증거물	있음.	있음.	없음.
주인공	신성한 인물	비범한 인물	평범한 인물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다고 인식함.	실제 내용이라고 믿음.	흥미를 위주로 함.

→ 「어미 말과 새끼 말」은 ‘옛날’이라는 불분명한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 특별한 증거물이 없으며, 평범한 어린아이를 내세워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설화의 하위 갈래 중 민담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최고운전」과의 비교

	「어미 말과 새끼 말」	「최고운전」
형식상 차이점	•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구비 문학임. • 구비 문학의 갈래 중 설화(민담)에 속함.	• 문자로 창작, 기록된 기록 문학임. • 기록 문학의 갈래 중 고전 소설에 속함.
내용상 공통점	두 이야기 모두 대국의 통치자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어린 아이가 이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등장함. →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작자 미상, 「최고운전」  
갈래: 고전 소설, 영웅 소설  
성격: 영웅적, 설화적, 전기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통일 신라 시대  
• 공간적 - 신라와 중국  
제재: 최치원의 일생  
주제: 최치원의 영웅적 면모와 민족의 자긍심 고취  
특징: ① 중국에 대한 척화 의식이 표출됨.  
② 다양한 전래 민담 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됨.  
③ 우월한 글재주를 지닌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북방 민족에게 당했던 우리 민족의 설움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민중의 심리가 반영됨.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대국 천자의 시험으로 위기를 맞이한 조선을 정승의 어린 아들이 구해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 )이다.

**02** 이 작품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흥미로운 (① ) 안에 담고 있으며, 진한 (② )와 (③ )를 통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이 설화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 보기 |

'설화'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대체로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화는 신적 존재 및 그에 준하는 존재들의 활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초역사적인 시간 배경과 신성성(神聖性)을 갖는다. 반면 전설은 신적 존재가 아닌 인간 및 인간의 행위들을 주로 다루며 신화의 신성성이 제거되고 그 대신 실체가 강조된다. 민담은 신화의 신성성과 초역사성, 전설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사라진 흥미 본위의 이야기로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04** 이 작품의 구비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쓰시오.

**05** 이 작품은 우리보다 큰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비범한 인재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까닭을 민중의 의식과 관련하여 쓰시오.

# 02 송인(送人)

정지상

## 작품 연구

갈래: 한시(7언 절구)

성격: 송별시,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슬픔

- 특징: ①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처지와 자연의 싱그러움을 대조하여 슬픔의 정서를 부각함.  
 ②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시의 구체성과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함.  
 ③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함.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함.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sup>①</sup>

화자의 처지와 대조됨.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sup>②</sup>

이별의 공간(시의 구체성 + 향토적 정서) 이별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sup>③</sup>

이별의 정을 짙게 만들.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sup>④</sup>

극대화된 이별의 정한(과장법)

▶가: 봄날 비 갠 강변의 풍경

▶승: 임을 보내는 이별의 풍경

▶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물에 대한 원망

▶결: 이별의 정한과 눈물

雨歇長堤草色多

시상 전개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작품 한눈에 보기

### ●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봄날 비 갠 남포에서 임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
화자의 정서	이별로 인한 슬픔에 젖어 있음.

###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b>선명한 시각적 심상</b> 제1구에서는 비 갠 후 강둑에 돌아난 파란 풀빛의 시각적 심상을, 제4구에서는 눈물이 더해져 푸르게 일렁이는 강물의 시각적 심상을 선명하게 제시함.	+	<b>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b> 제1구와 제2구에서 비가 그친 뒤 더욱 짙어진 풀빛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처지를 대비시켜 이별의 애달픔을 더욱 심화함.	+	<b>기발한 착상</b> 제3구와 제4구에서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를 날 없을 것이라는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를 인상적으로 강조함.
---	---	--	---	--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거둠.

### ● 이 작품과 같은 한문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까닭

「송인」은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고려 시대에 지어진 한시로, 비록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어 한국 문학 작품으로 본다. 이처럼 한글 창제 이전에 불가피하게 한자를 사용해 창작된 문학 작품 또는 한글 창제 이후에 창작된 한문 문학들은 과거 중세에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보편적인 문자 언어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시어·시구 풀이

- ①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비가 갠 후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부분. 화자의 비극적 상황과 대조를 이루어 그 슬픔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②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남포에서 임을 떠나보내니 슬픈 노래가 저절로 솟아난다는 뜻으로, '슬픈 노래'는 이 시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③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대동강 물은 (이별의 눈물이 더해져)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이별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이별의 눈물이 강물의 일부로 더해질 뿐이라고 하면서, 임과의 이별로 흘린 눈물을 강물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그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은 자연사와 인간사를 ( )시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02** 이 작품은 한시의 전통적 형식인 ( )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의 ‘풀빛’의 기능을 쓰시오.
- 04** ‘전(제3구)–결(제4구)’에서는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 물에 보태어져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 )된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 05** 다음은 정약용이 지은 한시의 일부이다. 「송인」과 비교하여 읽고 이러한 문학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을 쓰시오.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  
 붓 가는 대로 시를 마구 쓰는 것  
 압운에 꼭 매일 것 없고  
 퇴고를 꼭 오래 할 것도 없다네.  
 흥이 나면 곧바로 뜻을 실어 내고  
 뜻이 이르면 곧바로 쓰면 그뿐.  
 나는 바로 조선 사람인지라  
 즐겨 조선의 시를 짓노라.  
 당신은 당신의 법을 따르라.  
 시원찮다 따질 자 누구이겠나?  
 구구한 격이니 법이니 하는 것을  
 먼 데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랴?

[하략]

老人一快事  
 縱筆寫狂詞  
 競病不必拘  
 推敲不必遲  
 興到即運意  
 意到即寫之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卿當用卿法  
 迂哉議者誰  
 區區格與律  
 遠人何得知

- 정약용,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松坡酬酢]」에서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핵심 개념

### 한국 문학의 전통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히 흐르는 공통적인 특징

### 해학과 풍자

해학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며, 풍자는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비꼬아 표현하는 방법임.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공통되지만 해학이 동정적 웃음을 유도한다면, 풍자는 비판적 웃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징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문학이 이어온 전통 가운데 미에 대한 전통을 말함.

## 1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한국 문학은 우리 민족이 지닌 정서와 사상, 풍습과 미의식 등을 담아내면서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문학만의 전통과 특징을 형성함.
- 한국 문학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흘러온 만큼 그 특징을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한다거나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음.
- 한국 문학의 특징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그것을 크게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 표현 형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한국 문학의 특징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슬픔을 정화하는 한(恨) 예) 고려 속요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li> <li>• 감정의 응어리를 집단으로 발산하고 표출하는 신명 예) 탈춤, 마당극 등</li> <li>•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이나 풍자 예) 박지원의 「양반전」, 채만식의 「태평천하」 등</li> <li>•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자연 친화 의식 예) 정극인의 「상춘곡」,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등</li> <li>•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지조와 절개 예) 고려 말 충신들의 시조, 정철의 가사 등</li> <li>•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멋 예) 황진이 시조 등</li> </ul>
표현 형식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 정제미</li> <li>• 음보율 중심의 운율 감각</li> <li>• 함축과 여운</li> </ul>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이 갖는 의의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에 깃들어 있었던 사상, 정서, 관습, 문화를 두루 살피는 일임.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은 오늘날 한국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여 내일의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됨.
- 우리 문학의 다양한 미적 특징을 발굴하는 작업이 현대의 시대감각과 결합한다면 한류 문화처럼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을 선도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임.

# 01 사미인곡(思美人曲) 정철

이 몸 삼기실 제 <sup>임금(선조)</sup>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평생의 인연(천생연분) 임과의 운명적인 만남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임이 '나'를 사랑했던 과거의 상황  
이 **마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임과 이별하기 전의 행복했던 상황

평싱(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현재 화자의 처지 - 임이 부재함.  
엇그제 님을 피서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디 엇디 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인간 세상(작가의 유배지인 창평)  
**울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쇠**

유배 생활이 3년째임.  
「**연지분(胭脂粉)** 잇너마는 놀 위 호야 고이 **홀고**」  
「」: 임이 없으니 연지분이 소용이 없음.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 ①

**마음의 디친 실을 텃텃(疊疊)이 **싸혀** 이서**

시름 쌓여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혼(有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시름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무심(無心) 혼 세월(歲月)은 들 흐르듯 호논고야**

임금이 자신을 불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안타까움  
「**염낭(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 계절의 순환. 여기서는 세월의 무심함을 뜻함.

다시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봄바람(계절적 배경 - 봄) 쌓인 눈  
**창(窓) 맞고 심근 **떡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  
**꺾득 **닝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매화 향기 -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상징  
**황혼(黃昏)의 **둘이** 조차 **버마티** 빗치니**

임금을 비유함.  
**늦기는 듯 받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떡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 임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본사 1 - 춘원(春怨): 임에 대한 충성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

**꽃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질렀는디**

푸른 숲의 그늘(계절적 배경 - 여름)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 임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 ②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 **꺾득 시름** 혼디 **날은 엇디** 기듯던고**

분위기를 바꾸고자 공간의 변화를 꾀함. 임을 향한 정성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플터** 내여 / **금자희** 견화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소재 ③ 「」: 임을 위해 정성스럽게 옷을 짓는 여성 화자의 모습  
**슈품(手品)은 **꺾나와** **제도(制度)도** **꺾**줄시고**

자화자찬(自畫自讚)

## 작품 연구

갈래: 가사(연군 가사, 유배 가사)

성격: 서정적, 연정적, 여성적

주제: 임을 향한 일편단심, 연군 지정

특징 ① 여성 화자의 애절한 목소리로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함.

②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짐.

③ 본사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계절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④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함.

## 시어·시구 풀이

- 삼기실 제 생겨날 때. 태어날 때.
- 괴시니 사랑하시니.
- 노여 다시. 전혀.
- 혼디 네자 함께 지내자. 한곳에서 살아가자.
- 외오 외따로, 외롭게.
- 광한던(廣寒殿) 달 속에 있다는, 향아가 사는 가상의 궁전.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대궐.
- 더디 동안에. 사이에.
- 하계(下界) 인간 세상. 여기서는 작가가 낙향하여 지내던 전라도 창평.
- 염낭(炎涼) 더위와 서늘함. 곧 계절의 순환.
- 버마티 베풀머리에.
- 나위(羅幃) 여인의 방에 둘러친 비단 휘장.
- 슈막(繡幕) 수를 놓은 비단 휘장.
- 부용(芙蓉) 부용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
- 공작(孔雀) 공작을 수놓은 병풍.
- 원앙금(鴛鴦錦) 원앙을 수놓은 비단.
- 금자희 금으로 만든 자로.
- 견화이서 재어서.
- 슈품(手品)은 꺾나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딤** **벼**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 화자와 입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츠**자갈고.

화자와 입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

니겨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본사 2 - 하원(夏怨): 임에게 자신의 정성을 전하고 싶음.

(백옥함을) <sup>감정 이입의 대상</sup>

**허**락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냄.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 조성

**위**루(危樓)에 **혼**자 **올**나 **수**정<sup>수정</sup>님(水晶簾) **거**든 **마**리

수정으로 만든 발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임금의 상징 북극성 - 임금의 상징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임금이 있는 궁궐

『**청**광(淸光)을 **미**워 **내**어 **봉**황<sup>봉황</sup>루(鳳凰樓)의 **붓**티고져

지혜를 상징하는 빛 - 임금의 선정을 소망하는 화자의 충정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한 곳. 화자가 있는 창평

**심**산<sup>심산</sup>궁곡(深山窮谷) **점**낫<sup>점낫</sup> **마**티 **땡**그쇼셔

▶본사 3 - 추원(秋怨): 임에게 선정을 갈망함.

『』: 임금의 선정이 구석구석 미처가 바라는 마음

**건**곤(乾坤)이 **폐**식(閉塞) **하**야 **백**설(白雪)이 **흔** **비**친 제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냄.

**사**름은 **쿠**니와 **늘**새도 **긋**쳐 **있**다

온 세상이 얼어붙어 움직이는 것이 없음을 나타냄.

**쇼**상<sup>쇼상</sup>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러 **므**슴 **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딤** **쏘**이고져

따뜻한 봄 햇살을 임 계신 옥루로 보내고 싶음. → 입을 생각하는 충정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루(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러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소재 ④

**일**모슈<sup>일모슈</sup>뚝(日暮脩竹)의 **헝**가<sup>헝가</sup>림도 **하**도 **할**샤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샤

꽃꽂이

**청**등(靑燈) **거**른 **겅**티 **던**공후(鈿箜篌) **노**하두고

『**쑤**의나 **님**을 **보**려 **톡** **맞**고 **비**겨시니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앙**금(鶯衾)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셀**고

▶본사 4 - 동원(冬怨):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허**락도 **열**두 **새** **흔** **들**도 **설**흔 **날**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의 정도를 표현함. - 내내 시름에 잠겨 있음.

**저**근<sup>저근</sup>딤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흔**니

『**뽕**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깨**터시니 『』: 상사의 정(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뽕속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sup>엇</sup>히

화자의 그리움과 시름 표현(과장법, 가정법)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sup>범나</sup>비 **되**오리라

화자의 분신 →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긋**나<sup>긋나</sup>모 **가**지<sup>가</sup>마다 **간** **딤** **족**족 **안**니다가

임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

**향** **므**턴 **늘**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흔**노라

날개

▶결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 시어·시구 풀이

● 머호도 머흘시고 험하기도 험 하구나.

● 니겨든 가겨든. 이르거든.

● 팔황(八荒) 팔방의 넓은 범 위. 온 세상.

● 점낫마티 대낮같이.

●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 야 천지가 겨울 추위에 얼어 생 기가 막혀.

● 쇼상남반(瀟湘南畔) 쇼상강 의 남쪽. 여기서는 작가가 있는 전라도 창평.

● 옥루(玉樓) 고쳐(高處) 옥황 상제가 있다는 곳. 여기서는 대결 을 말함.

● 모침(茅簷) 초가집 처마.

● 홍상(紅裳) 붉은 치마. 다홍치 마.

● 니미치고 여미어 입고. 걸치 고.

● 취슈(翠袖) 푸른 소매.

● 일모슈뚝(日暮脩竹) 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함.

● 헝가림 여러 가지 생각.

● 다른 짧은.

● 던공후(鈿箜篌) 자개로 장식 한 공후(공후는 옛날 악기 명칭).

● 앙금(鶯衾)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

● 저근딤 잠깐 동안.

● 깨터시니 사무쳐 있으니.

● 편작(扁鵲)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로, 뛰어난 의사의 대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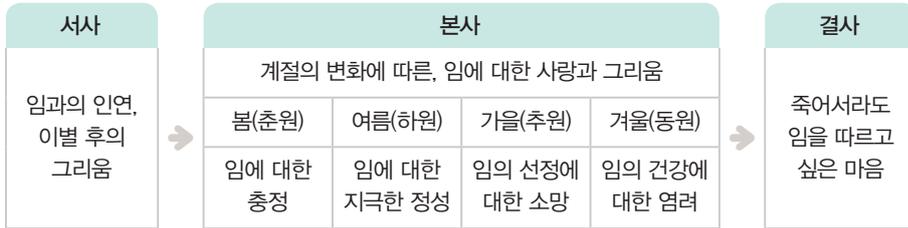
● 식어디여 사라져서. 죽어 없 어져서.

● 범나비 호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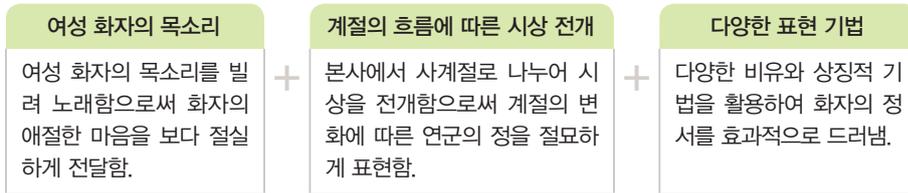
● 안니다가 앉아 다니다가.



● 시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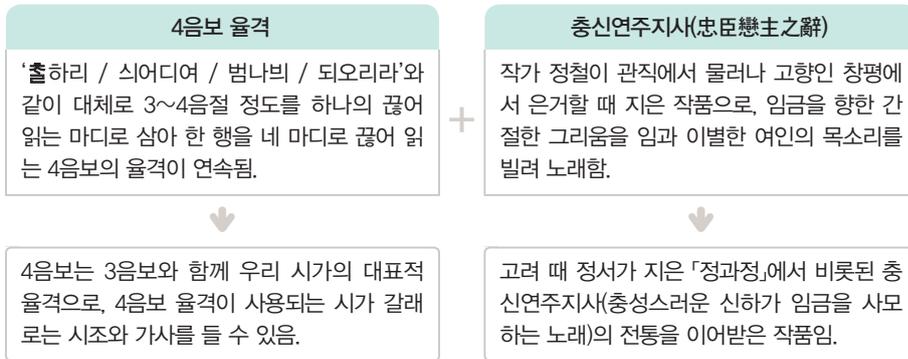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 계절별 소재와 관련된 화자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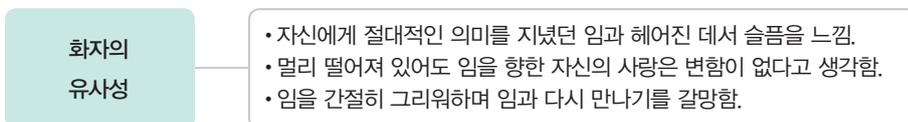
계절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중심 소재	화자의 심리
봄	동풍	민화	임에 대한 사랑
여름	녹음	옷	임을 향한 정성
가을	서리	청광(달빛)	선정애의 기원
겨울	벽설	양춘(봄별)	임에 대한 염려

● 이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전통



● 이 작품과 「님의 침묵」과의 비교

「사미인곡」은 부채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정과정(鄭瓜亭)」  
갈래: (항가계) 고려 가요  
연대: 고려 의종 때  
성격: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금을 그리는 정, 자신의 결백과 연군의 정  
특징: ① 고려 가요 중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임.  
② 유배 문학의 효시라 할 수 있음.  
③ 충신연주지사로서 후세에 많이 지어진 연군가(戀君歌)의 본류임.

한용운, 「님의 침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연가적, 낭만적, 상징적, 역설적, 의지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을 향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  
특징: ① 고도의 상징과 비유를 사용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③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여성적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함.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임금을 향한 충정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한 (① )로, (② )에 따라 본사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작품에서 ( )는 '죽음을 초월한 변함없는 사랑'이 투영된 소재로, 화자의 부재하는 임에 대한 소극적, 일방적, 자기희생적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보기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1) 험한 '산'과 '구름'이 임과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간신들이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정을 모함하는 세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
- (2) '청광'으로 '심산궁곡'을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는 것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신하의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 ×)
- (3) '양금'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는 여인의 모습은 열악한 유배지에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
- (4) '떡화'는 냉담한 현실 속에서도 암향, 즉 은은한 향기를 뿜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자신의 절개, 즉 변함없는 충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

**04** 이 작품의 다음 부분에 사용된 발상과 표현상의 특징을 쓰시오.

- '청광(淸光)을 미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떡 쏘이고져'

**05**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까닭을 쓰시오.

## 02 태평천하(太平天下) 채만식

[앞부분 줄거리] 1930년대 서울, 평민 출신 대지주이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 직원 영감은 구한말에 아버지를 화적 때의 손에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일본인들이 화적 때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 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큰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많은 돈을 날린다.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이다. 윤 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으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胡)이다.'라는 뜻임.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듯이 윤 직원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는 그의 자손, 즉 손자 종학을 암시함.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신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거리 윤용규가 일제 강점기에, 향교나 경찰서의 직무를 맡아 하던 사람 윤 직원의 생김새에 빗대어 붙인 별명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전한 하늘을 우러러, /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판소리 사설 투의 문체 - 풍자성 강화 현재인 일제 강점기는 윤 직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세상인.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 윤 직원의 과거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중략]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꿈곰이 혼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 정신을 채려야 할 것이 니가 안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치름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며 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짜들어 나머년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댕기구 있담! 남부끄러 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덜 좋구 느덜 호 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아등 잔소리를 허년 것두 다 느덜 위하

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죽통만치두 상관없어! 알어듣냐?” / “네.” [중략]

“동경서? 전보?” /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 “으응?”

### 작품 연구

갈래: 중편 소설, 사회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반어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1930년대

• 공간적 - 서울, 한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

제재: 윤 직원의 가족사

주제: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붕괴

특징: ①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 반어와 희화를 통한 풍자를 드러냄.

②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함.

③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말투 및 경어체의 문체를 사용함.

### 어휘·어구 풀이

● 노적 곡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

● 허랑허지도 언행이나 상황 따위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기도.

● 다직 '기껏'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경부 대한 제국 때에, 경시의 아래, 경부보의 위에 있던 경찰관의 한 직위.

● 죽통 '발'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서술자의 역할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인물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전보의 역할

- 손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던 윤 직원의 꿈을 깨뜨림.
-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함.
-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함.
- 사상범으로 전면에 등장시키기 곤란한 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 어휘·어구 풀이

- **몽치** 짝막하고 단단한 몽둥이.
- **지함** 땅이 움푹 가라앉아 꺼짐.
- **진나라를 망할 자** ~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진나라 시황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胡)’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호’를 오랑캐라고 믿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그의 아들 ‘호해(胡亥)’의 학정 때문이었음.
- **오사육시** 오사(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음.)하여 육시(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함.)까지 당한다는, 몹시 저주하는 말.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쫄 쫄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종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음.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

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에 놀라는 윤 직원과 식구들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조글트리고 앉습니다.

동물적으로 자기방어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대서(代書)나 필사(筆寫)를 업으로 하는 사람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전보의 내용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회주의를 말함.  
“사상 관계라니!” /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종학이 경시청에 피검된 이유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을 희화화하여 풍자함.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地陷)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여려해서가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 믿었던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 보다도 더 두려움 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 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 윤 직원과 대응됨. 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종학과 대응됨.

진시황은 자손이 집안을 몰락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사납게 울부짖음.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한 것을 믿지 못함.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보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당황한 윤 직원의 모습  
“……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종학에 대한 윤 직원의 바람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뎨다 경찰서으 짹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종학이 처한 현실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

어떤 일에 많이 시달려서

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중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분노하는 윤 직원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윤 직원의 가치관이 드러남.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

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일제 강점기에 대한 윤 직원의 인식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

윤 직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사회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부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므로

헌담 말이며, 으응?’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윤 직원

방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가족들의 불안함

“…… 착착 깔어 죽일 놈! ……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녔을 살리랴구 헐

사회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이 드러남.

기가막혀 억지소리를 함.

걸! 백 년 지녔 살리랴구 헐 티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는 직분히여 줄러구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나누어 줌.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

어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차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고조됨.

“……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 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패에 참섭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계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압당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 돌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윤 직원 집안의 앞날을 암시함.

풍자적 표현 - 윤 직원 집안의 몰락

주검을 만난 군졸들처럼…….

▶중학을 저주하며 분노하는 윤 직원과 불안한 기운을 느끼는 식구들

윤 직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윤 직원은 사회주의를 불한당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부자인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천하’의 의미

일제 강점기 식민 체제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비윤리적·반사회적인 인물의 추악한 본질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윤 직원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풍자한다.

어휘·어구 풀이

- 영각 소가 길게 우는 소리.
- 동병 군사를 일으킴.
- 참섭 어떤 일에 끼어들어 간섭함.
- 가권 호주나 가구주에게 딸린 식구.
- 상성(喪性)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됨.
- 지녔 ‘징역’의 방언식 발음.
- 면면상고(面面相顧)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 작품 한눈에 보기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라는 소재목의 기능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는 제15장의 제목으로 진나라가 진시황의 아들 ‘호해’로 인해 망한 것처럼 윤 직원의 집안이 그가 아끼는 손자 종학 때문에 망할 것임을 암시한다.

윤 직원의 현실 인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윤 직원은 빈부 차이를 없애자는 사회주의자를 부자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불한당패와 같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자신의 재산을 지켜 주는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함.

작가는 윤 직원을 통해 부도덕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고, 근대정신을 망각한 지주 계급과 왜곡된 식민지 현실을 풍자하고 있음.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갈래: 현대 소설,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비판적, 해학적, 향토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1970년대  
 • 공간적 - 충청도 어느 마을  
 제재: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황 씨의 삶  
 주제: 도시화로 붕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함.  
 ②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풍자적 태도가 드러남.  
 ③ 속담, 관용구를 통해 교훈적, 해학적 효과를 부여함.

### ● 서사 구조와 주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서울의 대지주인 윤 직원 영감은 가난한 인력거꾼의 샅을 짊어지도록 구두쇠임.	구한말 화적 떼에게 아버지와 재산을 잃었던 윤 직원은 일제와 결탁해 약탈같이 돈을 모음.	윤 직원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종수는 방탕한 생활을 함.	윤 직원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손자 종학이 사상 관계로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음.	윤 직원은 이런 태평천하에 왜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함.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보여 줌.

### ● 주요 등장인물

윤 직원 영감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태평천하’라고 여길 만큼 역사외식, 윤리 의식이 없는 속물적 인물임.
윤창식	윤 직원의 아들. 개화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이지만 사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임.
윤종수	윤 직원의 큰손자. 무능력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임.
윤종학	윤 직원의 작은손자. 윤 직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임.

### ●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반어적인 의도의 표현	겉으로는 치켜세우지만 실제로는 격하시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인물의 추악함을 드러냄.
편집자적 논평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제시해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함.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	현장감과 사실감을 살리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함.

### ● 작품의 판소리적 특성

「태평천하」의 서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니다’ 식의 경어체 문장이나 ‘~겠습니다’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려서, 사건을 진술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건을 요약하고 평가하면서 독자에게 일러바치는 형식을 취하며 작중 인물을 마음껏 조롱함.</li> <li>•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서술자는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함.</li> </ul>
-------------	--

### ● 이 작품과 「우리 동네 황 씨」에 드러난 풍자와 해학의 특징

-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인물의 비도덕성과 용렬한 언행을 빈정거리고 희화화함으로써 강한 풍자성을 보여 줌.
- 두 작품 모두 아이러니한 상황을 진한 방언과 비속어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을 보임.

풍자와 해학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징 중 일부로, 이와 같은 작품들에 의해 현대 문학에서도 면면히 계승되어 옴.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윤 직원 영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제목인 ‘망진자는 호야니라’의 기능을 쓰시오.
- 02** 이 작품에서 ( )는 윤 직원 영감이 기대를 걸었던 종학이 경찰서에 잡힌 상황을 알림으로써 사건 전개에 극적 반전을 유도하고 결국 윤 직원 영감의 가문이 몰락할 것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 03** 이 작품은 겉으로는 인물을 추켜세우지만 실제로는 격하시키는 ( )인 의도의 표현으로 인물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 04** 이 작품의 서술자는 ( )을 통해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05** 「태평천하」의 서술자의 특성과 역할을 판소리와 관련지어 쓰시오.
- 06** |보기를 읽고 ‘태평천하’라는 말이 풍자하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 보기 |

일본인들이 들어온 이후의 세상은 윤 직원에게는 태평천하였다. 수령의 토색질도 없을 뿐 아니라 순사들의 보호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데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낸다.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을 맞이하여 고리대로 재산을 불리는 한편으로, 음률을 즐기고 어린 기생을 맞이하여 즐길 궁리를 한다.

| 조건 |

1. 윤 직원 영감의 생각과 민족의 현실을 비교하여 쓸 것.
2.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0자 내외(± 20자)로 쓸 것.

#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 핵심 개념

###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여러 나라의 문학이 함께 갖는 유사성을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특정한 나라의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함.

### 지역 문학

지역성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문학으로, 김유정의 소설(강원도), 이문구의 「관촌수필」(충청도), 박경리의 「토지」(경상도), 백석의 시(평안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1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은 그 나라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한편, 인간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님.
- 한국 문학도 한국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여러 나라의 문학과 주제 의식, 표현 방식 면에서 공통점, 즉 보편성을 지님.
- 한국 문학은 역사적으로 인접 문화권과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면서 창조적 변용을 시도해 왔으므로, 한국 문학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과 비교해 보면 한국 문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

상호 교섭의 사례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중국 소설인 「삼국지연의」를 읽고,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소설인 「구운몽」을 읽음.
창조적 변용의 사례	판소리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지연의」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원작과 달리 전쟁에 동원된 민중의 고난에 초점을 두어 새롭게 구성한 작품임.

## 2 한국 문학의 다양성

- 한국 문학은 시간적으로는 문자로 기록된 전통적인 문학부터 오늘날의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까지 아우르며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옴.
- 한국 문학은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문학의 총체인 동시에,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과 해외 국민이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도 포함함.

## 3 한국 문학의 발전 방안

- 세계 문학은 개별 국가의 문학이 지닌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풍요로워지며, 개별 국가의 문학은 세계 문학이 지닌 보편성을 토대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가치를 구체화하게 됨.
- 우리 문학의 고유한 특질을 이어 나가면서 외국의 문학과도 교류하며 그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 우리 문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01 정선 아리랑

작자 미상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이 아니냐<sup>①</sup>  
 정선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무릉도원이라 불림.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층층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구 - 민요의 특성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산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느끼는 고립감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 지명의 직접 인용 - 지역적 특수성과 향토성이 드러남.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늦봄, 음력 3월 한을 표현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늦은 봄의 자연에서 느끼는 애상감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여랑리의 한 처녀와 유천리 총각이 만나 동백을 따며 놀려고 나무에  
 나왔는데,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하자 애달프게 노래를  
 불렀다는 배경 설화가 전해짐.  
 짜릿꿀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제철보다 일찍 꽃이 피는 동백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동박 대조(떨어진 동박 ↔ '나')  
 잠시 잠깐 입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sup>②</sup>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작품 연구

- 갈래: 민요  
 성격: 서정적, 해학적, 적층적  
 제재: 입에 대한 그리움, 삶의 애환  
 주제: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삶의 애환  
 특징: ①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음.  
 ② 4음보 율격, 후렴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이 느껴짐.  
 ③ 체념과 한탄의 어조로 서민의 한을 형상화함.

## 시어·시구 풀이

- 구멍(舊名) 예전에 부르던 이름, 고려 충렬왕 때 정선은 도원(桃源)으로 불린 적이 있다.
-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정선이 예전에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뜻으로, 고려 충렬왕 때 정선은 도원(桃源)으로 불린 적이 있다고 함.
- 층층하네 층층(層層)이 겹쳐 있네.
- 모춘(暮春) 늦봄, 음력 3월.
- 아우라지 두 냇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 여기서는 정선 북면 여랑리에 있는 나무를 가리킴.
- 짜릿꿀 아우라지 건너편의 유천리에 있는 나무.
- ①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정선이 예전에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뜻으로, 고려 충렬왕 때 정선은 도원(桃源)으로 불린 적이 있다고 한다.
- ②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입과 함께 있지 못해 그리워하는 마음을 낙엽에 감싸여 안겨 있는 동백과 대조하여 직설적이고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 시상 전개상의 특징

- 병렬적 구성으로 각 연이 독립적임.
-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통일성을 줌.
- 계속 이어 부를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취함.

## 「정선 아리랑」의 특징

- 강원도 정선에서 농민들이 일할 때나 모여 놀 때 즐겨 부르던 민요로 '정선 아라리' 또는 '아라리'라고도 불린다.
- 「진도 아리랑」(전라도)이나 「밀양 아리랑」(경상도)에 비해 다소 느리고 단조로우며, 강원도 정선 지역의 향토색이 잘 드러나 있고 토속적 어휘와 구어적 표현이 잘 드러난다.
- 정선 아우라지에서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광나루와 마포나루까지 이동하는 정선 뗏목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작품에 스며들면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었다.

작자 미상, 「사할린 본조 아리랑」

갈래: 민요

성격: 현실 비판적

제재: 일제 강점기 해외 이주민의 현실

주제: 일제 강점기 해외 이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탄

## ● 작품의 짜임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후렴구에 의해 형식적 통일성이 확보됨.

##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삶의 애환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함.

구체적 지명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체념과 한탄의 어조로 서민의 한을 형상화함.

정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 배경 이야기와 관련한 화자의 정서

배경 이야기

아우라지 나루 건너에 사는 총각과 사랑을 나누던 처녀가 어느 날 싸릿골 울동백을 함께 따라 가기로 총각과 약속을 하였으나, 홍수로 배가 뜨지 못하게 되자 이를 원망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함.

화자의 정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자신의 서글픈 신세에 대한 한탄

## ● 이 작품과 「사할린 본조 아리랑」의 지역 문학으로서의 가치

「정선 아리랑」	「사할린 본조 아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선', '아우라지', '싸릿골' 등의 지명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과 향토색을 드러냄.</li> <li>•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정서가 녹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민족 동포들이 부른 노래임.</li> <li>• 타국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 받는 징용자들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음.</li> </ul>

아리랑은 인류 보편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즉흥적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 쉽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널리 수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이 작품에 접합되며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었고, 지역 문학의 총체로서 한국 문학이 지닌 다양성을 보여준다.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던 (① )로, 정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② )가 녹아 있다.
- 02**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어느 때, 또는 모를 심을 때나 논밭을 맬 때 두레판의 소리로도 불리었기 때문에 비기능요와 ( )의 성격을 모두 띤다.
- 03** 이 작품의 3~4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쓰시오.
- 04** 이 작품을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을 쓰시오.
- 05** 이 작품이 가진 지역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쓰시오.
- 06** 한국 문학은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① )의 총체인 동시에, 분단 이후의 (② ) 문학과 해외 국민이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을 포괄한다.
- 07** 한국 문학은 한국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 즉 (① )은/는 물론 여러 나라의 문학과 주제 의식, 표현 방식 면에서 공통점, 즉 (② )도 지니고 있다.





# 4

## 한국 문학의 흐름

### (1) 서정 갈래의 흐름

- 01 제망매가
- 02 청산별곡
- 03 어부사시사
- 04 쉽게 씌어진 시
- 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2) 서사 갈래의 흐름

- 01 김현감호
- 02 구운몽
- 03 너와 나만의 시간
- 0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 극 갈래의 흐름

- 01 봉산 탈춤
- 02 원고지

### (4) 교술 갈래의 흐름

- 01 관상가와의 대화
- 02 젊은 아버지의 추억

# [1] 서정 갈래의 흐름

핵심 개념

서정 갈래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시(詩)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함. 작가는 작품 속의 화자(話者)를 통해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하고 세계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함축성, 상징성, 운율감 등을 활용함.

고대 가요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노래로,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서정적인 내용의 시가를 의미함.

향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노래로,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의미함.

고려 속요

고려 귀족층에서 향유한 경기체가와 달리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를 가리킴.

시조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들이 경기체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됨에 따라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음.

## 1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성

서정(抒情)이란 정서, 즉 희로애락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서정 갈래는 주로 시의 형태로 창작됨.

시의 특성

- 대체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이미지를 통한 비유적 표현을 자주 활용함.
- 시의 운율은 시와 노래를 하나로 인식했던 과거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

## 2 서정 갈래의 전개 양상

고대 가요

-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노래
- 대표적으로 「구지가」, 「공무도하가」, 「황조가」 등이 있음.

향가

- 삼국 시대 말에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성행하고 고려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우리말로 된 정형 시가를 통칭하는 용어임.
- 향찰이나 이두 등의 표기법을 사용함.
- 4구체는 민요적 성격이, 8구체나 10구체는 개인 서정의 성격이 강함.
- 10구체의 낙구 첫 어절에 등장하는 감탄사는 시조 종장의 첫 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적 흐름을 잘 보여 줌.

고려 속요

- 고려 시대에 창작된 노래를 통틀어 고려 가요라 하는데, 그중 경기체가를 제외한 나머지 노래들을 고려 속요라고 부름.
- 조선 시대에 궁중악으로 선택된 것들만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짐.
- 진솔한 감정을 즐겨 노래했다는 점에서 그 서정성이 높게 평가됨.

시조

- 유학자들 사이에서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대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며 4음보의 형식을 갖춘.
-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의 층의 사상과 강호한정을 담은 노래가 주를 이루다가 후기에는 서정성이 짙은 시조를 창작하는 흐름이 나타남.
-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의 발달, 평민 가객의 출현, 가집의 편찬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시조의 주제와 소재가 현실적인 측면으로 확장되었으며, 향유 계층이 더 다양해졌음을 보여 줌.

현대 시

- 우리 서정 문학은 근대에 들어 본격적인 시 문학으로 전환됨.
- 1920년대에는 개인적 정서에 전통적인 민요조 운율을 결합하는 한편, 서구의 여러 문예 사조를 받아들여 새로운 감각으로 노래함. 1930년대 이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두 축으로 하여 시적 경향이 다양화되었고,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시 경향과 자기 성찰적 성향의 작품들이 나타남.
- 해방 이후에는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 참여적, 문명 비판적 성향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대거 발표됨.
- 오늘날의 현대 시는 해체적이고 전위적인 실험시를 비롯해 다양한 시들이 시도되고 있음.

# 01 제망매가(祭亡妹歌)

월명사 지음 / 김완진 해독

생사(生死) 길은

살과 죽음의 길

예 있으면서 못거리고

이승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간다는 말도

누이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sup>①</sup>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의 요절을 암시함.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음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

가는 곳 모르온저.<sup>②</sup>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낙구

화자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sup>③</sup>

죽음에 직면한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약함.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사: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阿也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결: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 작품 연구

갈래: 10구체 향가

연대: 신라 35대 경덕왕 때

성격: 추모적, 애상적, 불교적, 비유적

제재: 누이의 죽음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

특징: ①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 현상에 비유함.

② 죽음이라는 인간고(人間苦)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노래함.



## 작품 한눈에 보기

### ● 3단 구성에 따른 시상 전개 구성

기(1~4행)	서(5~8행)	결(9~10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 화자의 정서 제시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 화자의 정서 고조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 정서의 전환과 사상의 마무리

### ● 시구의 비유적 의미와 효과

시어	의미와 효과
이른 바람	‘요절’의 의미로, 누이의 요절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냄.
떨어질 잎	‘죽은 누이’의 의미로, 죽은 누이로 인한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냄.
한 가지	‘같은 부모’의 의미로, 죽은 누이와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안타까움을 강조함.

### ● 「오백 년 도읍지를 ~」과의 비교

	「제망매가」	「오백 년 도읍지를 ~」
갈래	10구체 향가	고려 말 시조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서-결’의 3단 구성</li> <li>· 낙구(결 부분)의 첫머리에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li> <li>· 종장의 첫머리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li> </ul>



10구체 향가와 시조 모두 3단 구성을 취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때,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과 낙구의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시어·시구 풀이

● 미타찰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정토.

① 나는 간다는 ~ 어찌 갑니까.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저승으로) 간다.’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②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제껏 가까이 살아온 인연이 죽을 앞에서 허무하게 스러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타나고 있다.

③ 아아, 미타찰에서 ~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삶과 죽음에 대한 허무감과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길재, 「오백 년 도읍지를 ~」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회고적, 감상적

제재: 고려의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한 향가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 )하여 그려 내고 있다.
- 02 이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행과 중심 내용을 쓰시오.
- 03 3행의 '나'와 9행의 '나'는 각각 누구인지 구분하여 쓰시오.
- 04 이 작품에서 화자의 슬픔과 고뇌가 종교적으로 승화되고 있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 05 다음 시어의 의미와 효과를 쓰시오.

시어	이른 바람	한 가지
의미	누이의 요절	( ② )
효과	( ① )	누이와 화자가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안타까움을 강조함.

- 06 다음 표를 참고하여 향가와 시조의 형식상의 유사성에 대해 쓰시오.

	「제망매가」	「오백 년 도움지를 ~」
갈래	10구체 향가	고려 말 시조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서-결'의 3단 구성</li> <li>• ( ①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② )</li> <li>• 종장의 첫머리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li> </ul>
유사성	③	

- 07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의 시적(詩作) 동기의 공통점을 쓰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02 청산별곡(靑山別曲) 작자 미상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현실 도피의 공간.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청산에서의 소박한 음식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후렴구. ① 각 연을 분절함. ② '리'과 '이' 음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줌.

▶ 청산에 대한 동경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너보다 많은 화자의 비애와 슬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삶의 고독과 비애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靑山과 대비)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 - 속세를 바라보며 회상에 잠김.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이령공 더령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이럭저럭 낮은 지내왔건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홀지웁도 팔괘(卦)를 대화되는 시간적 배경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 행한 운명. 인간의 운명적인 삶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운명에 대한 체념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운명에 대한 체념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현실 도피의 공간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1연의 '멀위, 드래'에 대응됨. 화자가 소망하는 소박한 삶의 상징(대유법)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바다에 대한 동경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뜰노라

사스미 췌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현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가다니 빅브른 도괴 철진 강수를 비조라.

배가 불룩한 독(항아리) 술.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한 도구

『조롱곳 누르기 띠와 잠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조롱박꽃

「.」: 현실적 괴로움을 술을 통해 달래려는 인생고의 우수적 표현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술을 통한 고뇌의 일시적 해소

### 작품 연구

갈래: 고려 속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체념적

운율: 3·3·2조, 3음보

구성: 전 8연의 분연체

제재: 청산, 바다

주제: ① 삶의 고뇌와 비애

② 실연의 슬픔

③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특징: ① 'a-a-b-a' 형태의 반복 표현이 사용됨.

② '리'과 '이' 음을 반복하여 음 악성을 드러냄.

③ 상징적 시어를 통해 삶의 고뇌와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함.

### 시어·시구 풀이

● 살어리랏다 ① 살리라. 살고 싶구나. ②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 우러라 ① 울어라(명령형). ② 우는구나(감탄형). ③ 노래하라(명령형).

● 가던 새 ① 날아가던 새. ② 갈던 사래.

● 잉 무든 장글란 ① 이끼 묻은 쟁기일랑. ② 날이 무딘 병기(兵器)랑. ③ 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

● 미리도 괴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 예정지 아직 정확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역'이라고도 함.

● 사스미 ① 사슴이. ② '사륙미'의 오기(誤記).

# 작품 한눈에 보기



이 작품의 서사적 구조  
화자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인 청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심리적 추이를 중심으로 하면 '가승전결'의 4단 구성이 됨.



## 후렴구의 기능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리리 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의미 없이 악물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li> <li>•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서 흥을 돋우고 노래의 절주에 맞추기 위한 것</li> <li>• '리, 오'의 연속음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두드러진 활음조 현상)를 나타내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작품의 정서와 상반됨.</li> <li>•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li> </ul>

한림 제유, 「한림별곡」  
갈래: 경기체가  
성격: 풍류적, 향락적, 귀족적  
제재: 상류층의 향락과 풍류  
주제: 신진 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의욕적 기개

## ● 구성

연	소재	내용
1연	청산	청산에 대한 동경
2연	새	삶의 고독과 비애
3연	새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4연	밤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연	소재	내용
5연	돌	운명에 대한 체념
6연	바다	바다에 대한 동경
7연	사슴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8연	강수	술을 통한 고뇌의 일시적 해소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청산, 바물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2연의) 새	화자의 분신,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
밤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돌	①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운명적인 삶. ②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 ● 운율적 특징

'a-a-b-a'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a a b a

3·3·2조의 3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드러냄. → 멀위랑 ∨ 드래랑 ∨ 먹고 ∨ 청산에 ∨ 살어리 ∨ 랏다.  
3 3 2 3 3 2

'리'와 '오' 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어 음악적 효과를 거둠. →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리리 알라  
잉 무든 장글란, 이랑공 더랑공

## ●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화자	작품의 해석
'유랑민'이라는 견해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나타낸 노래임.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현실 도피적인 노래임.
'당대 지식인'이라는 견해	속세의 번뇌를 떨쳐 버리기 위해 청산을 찾아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지식인의 노래임.

## ● 「한림별곡」과의 비교

	「청산별곡」	「한림별곡」
갈래	고려 속요	경기체가
작가층	고려 시대의 평민 / 지식인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
내용	고려 민중의 삶과 비애, 고뇌	신진 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의 운율적 특성과 그 효과를 쓰시오.
- 02** 이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시구들을 쓰시오.
- 03** 이 작품에서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는 소재는 ( )이다.
- 04** 이 작품에서 ( )은 화자의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 05** '돌'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 조건 |  
• "돌"은 ~(을)를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 06** '청산'과 '바다'의 공간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 조건 |  
"청산"과 "바다"는 ~(을)를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 07** 이 작품의 5연의 내용을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현대어로 풀이하여 쓰시오.
- 08** 이 작품의 화자가 현실의 고뇌를 잊기 위해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 09** 이 작품의 화자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각 화자에 따른 작품의 주제를 쓰시오.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

①

실연한 사람

②

현실의 번뇌를 잊으려는 지식인

③

# 03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윤선도

## 작품 연구

갈래: 연시조(춘하추동 각 10수씩 전 40수)

성격: 한정적, 풍류적, 자연 친화적

제재: 자연, 어부의 삶

주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특징: ① 정형률(4음보, 3·4(4·4)조의 음수율), 여음구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②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흥과 정취를 드러냄.

③ 대구법, 반복법, 의성어의 사용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 시어·시구 풀이

● 지국총 배에서 노를 젓고 달을 감는 소리.

● 청약립 푸른 갈대로 만든 것.

● 녹사의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 도선 낚싯배.

● 연식 편안히 씬.

## 춘사(春詞) 1

압개에 안개 젓고 뉘미희 희 비친다

앞 갯벌에 견하고

비 떠라 비 떠라 → 여음구: 각 수마다 다름(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나타냄).

배를 띄워라

밤들은 거의 디고 날들이 미리 온다

쌀물 밭물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사와(於思臥) → 후렴구 - 고려 가요의 형태적 특징을 이어받음.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찌그덩 찌그덩-의성어)의 음차. ‘어사와’는 노 저을 때의 어부의 소리(어여차)의 음차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

보길도, 작가가 은거한 곳

좋다

▶춘사(春詞) 1 - 강촌의 봄 풍경

## 하사(夏詞) 2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안분지족의 삶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달을 들어라

청약립(靑籜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계절감의 표현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사와(於思臥)

욕심 없는 갈매기

무심(無心)혼 백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물아일체의 경지. 화자의 욕심 없는 삶의 태도 표현

▶하사(夏詞) 2 - 물아일체(物我一體)된 삶의 즐거움

## 추사(秋詞) 9

옷 우희 서리 오되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달 내려라

도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과 언더하니

속세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사와(於思臥)

넋일도 이리 흥고 모뢰도 이리 흥자

모래

▶추사(秋詞) 9 - 속세를 잊고 사는 낚시의 즐거움

## 동사(冬詞) 10

어와 저뜨러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마땅하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배를 대어라

만눈 눈 빠린 길 붉근 곳 흥터딘 뒤 흥치며 거러가서

붉은 꽃

흩어진 데

흥겨워하며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사와(於思臥)

기대어 있자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미겨 잇자

계절감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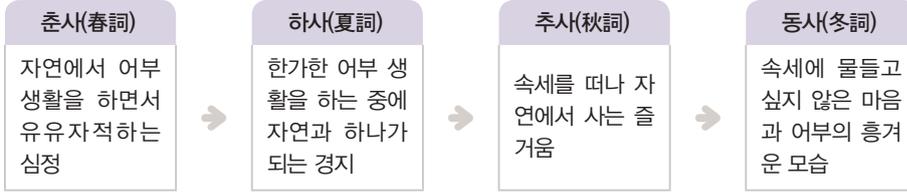
서산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

▶동사(冬詞) 10 - 눈 내리는 밤의 흥취



● 시상 전개



●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감을 느낌.

● 여음구의 의미와 기능

	여음구	의미		여음구	의미
1수	빅 떠나라 빅 떠나라	배 띄워라	6수	돛 디여라 돛 디여라	돛 내려라
2수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돛 올려라	7수	빅 세여라 빅 세여라	배 세워라
3수	돛 드러라 돛 드러라	돛 달아라	8수	빅 밍여라 빅 밍여라	배 매어라
4수	이어라 이어라	저어라	9수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돛 내려라
5수	이어라 이어라	저어라	10수	빅 붓터라 빅 붓터라	배 대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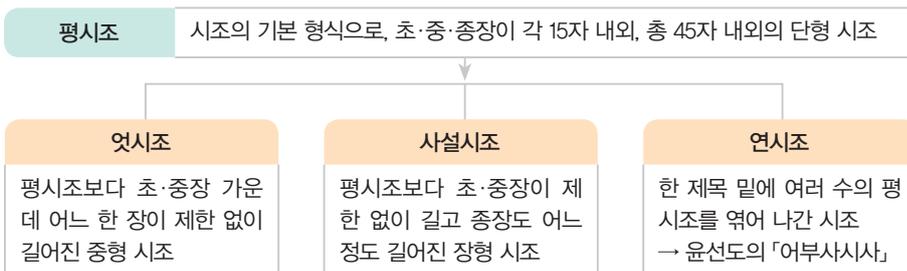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면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또한 공간적 배경과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흥취를 돋우고 사실감을 더하는 기능을 함.

● 작품의 정서적 특징

- 조선 전기 시조: 자연을 작가의 유교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조선 후기 시조: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여 대상의 심미적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됨.

조선 후기 시조인 「어부사시사」에서 자연은 조선 전기의 관념적인 성격의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임. →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한 몸이 되어 강호한정에 빠지는 것을 주제로 하며,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함.

● 시조의 역사적 전개 양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춘하추동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



각 계절의 10수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의 기능

<b>지국총 지국총 어사와</b>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으면서 외치는 소리(「찌그령」, 「어어차」의 한자 음차)를 나타내는 의성어



자연에서 사는 흥겨움과 활기를 사실적으로 드러냄.
-----------------------------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쓰시오.

02 이 작품은 어촌의 사계절, 생활, 흥취, 풍류를 담은 ( )이다.

03 이 작품에 사용된 여음구와 후렴구의 특징을 쓰시오.

초장과 중장 사이에 나타나는  
여음구  
예 '뽕 따라 뽕 따라'

①

중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②

04 다음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자세와 인생관을 쓰시오.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05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정서적 특징을 쓰시오.

| 보기 |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戀君)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대상의 심미적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06 다음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청약립(靑莢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무심(無心)호 백구(白鷗)논 내 좃논가 제 좃논가

# 04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암울한 현실, 자아 성찰의 시간 → 화자의 외로움과 암울한 시대 현실이 드러남.

### 육첩방은 남의 나라,<sup>①</sup>

구속과 억압의 공간 →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나타냄.

▶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

##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sup>②</sup>

타고난 운명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시인으로서의 슬픈 천명 자각

##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포근함의 실제 - 부모님(조국)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멀. → 화자의 자기반성이 드러나 있음.

##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화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식

▶ 시대 현실과 괴리된 삶에 대한 회의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① 일제의 탄압에 의한 동무의 상실 ② 순수한 가치의 상실(현실에서의 적응)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 나는 무얼 바라

현실적 자아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삶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

▶ 현실의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상실감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자아와 시대 현실과의 괴리감

## 부끄러운 일이다.<sup>③</sup>

자기 성찰의 결과

▶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인식

##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sup>④</sup>

『』: 1연의 반복, 변주 → 현실에 대한 재인식

▶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망, 저항 의지 부정적 현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sup>⑤</sup>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 광복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성숙한 자아

‘등불’이 부정적 현실인 ‘어둠’을 내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는 화자의 소망,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남.

▶ 성찰을 통한 내적 변화 암시

내면적 자아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현실적 자아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시련으로 인한

두 자아의 화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냄.

▶ 두 자아의 화해와 미래에 대한 희망

##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반성적, 회고적

제재: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자기반성과 현실 극복 의지

특징: ①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함.

② 고백적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고뇌와 반성을 보여 줌.

## 시어·시구 풀이

● 육첩방 일본식 뜻자리인 다다미 여섯 장을 깔아 놓은 작은 방.

① 창밖에 밤비가 ~ 남의 나라, 화자가 처한 상황이 시·공간적으로 나타난 구절이다. ‘밤’은 화자의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이고 ‘육첩방’은 화자가 생활하고 있는 일본을 의미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화자를 억압하는 시대 상황과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은 암담한 시대적 현실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이러한 시인의 운명을 알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처지를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③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부끄러운 일이다.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④ 육첩방은 남의 ~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기 성찰이 끝난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다.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을 ~ 최후의 나, 반드시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 화자의 현실 인식의 변화

1연 창밖에 밤비가 속살 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8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 거라는데.

8연에서 1연을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반성을 통한 현실 재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9~10연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연결됨.

##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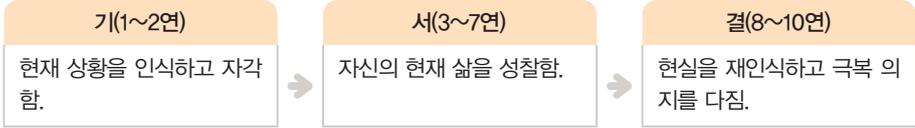
어둠의 이미지	↔	밝음의 이미지
밤비, 어둠		등불, 아침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갈래: 자유시  
성격: 회고적, 자조적, 성찰적  
제재: 젊은 날의 삶  
주제: 젊은 날의 삶에 대한 성찰

## ● 시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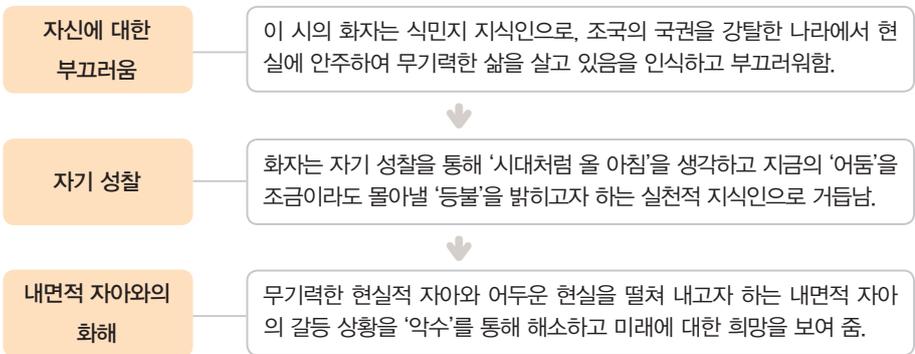
##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밤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 암울한 시대 상황(일제 강점기)
육첩방	화자를 억압하는, 낯선 현실의 공간이자 암담한 시대 상황
등불	암담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정신적인 지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
어둠	부정적 현실, 일제 강점의 암담한 현실
아침	암담한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 즉 조국의 광복
약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

## ● 화자의 태도 변화



## ● 「질투는 나의 힘」과의 비교

	「쉽게 씌어진 시」	「질투는 나의 힘」
공통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냄.	
차이점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을 형상화함.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을 형상화함.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다음 시어와 시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을 쓰시오.

밤비,  
육첩방은 남의 나라

①

학비 봉투, 대학 노트,  
늙은 교수의 강의

②

**02** 다음에 제시된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쓰시오.

등불	①	_____
어둠	②	_____
시대처럼 올 아침	③	_____

**03** 이 작품의 6연에서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 )의 모습을 질문의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4** 이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 화해하고 있는 두 '나'는 각각 어떤 자아인지 밝혀 쓰시오.

**05**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까닭을 쓰시오.

# 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 작품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반성적, 자조적  
**제재:** 자신의 응졸함과 소시민적 삶  
**주제:**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  
**특징:** ① 자신의 일상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삶을 성찰함.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③ 반복적인 표현과 자조적인 독백을 통해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냄.

## 시어·시구 풀이

- 월남 '베트남'의 음역어.
  - 야경꾼 밤사이엔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포로수용소 포로를 유치하고 거주시키는 시설.
- 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분노해야 하는 일에는 침묵하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집착하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해 폭로하며 자문하고 있다.
- ② 한번 정정당당하게 ~ 이행하지 못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에 대해 참여하지 못한 일, 즉 권력의 압제에 대해 비판하지 못한 일, 정의를 외치는 작품을 쓴 소설가의 구속이나 월남 파병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일 등을 말한다.
- ③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본질적인 일, 정의를 세우는 일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 하고 응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sup>①</sup>

비본질적인 일, 사소한 일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권력자들의 부도덕성, 탐욕스러움 -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비본질적인 일, 사소한 일

■: 분개하고 있는 대상 - 힘없는 자들

응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 자신의 응졸함에 대한 고백 비속어 사용: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

응졸하게 욕을 하고

▶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 주요하고 본질적인 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군대를 파견함.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sup>②</sup>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침묵함.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사소한 일.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중요하고 있는가

▶ 중요한 일은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반성

응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오랫동안 응졸하게 살아와서 무기력함, 소시민성이 몸에 배어 있음.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펜지를 만들고 거즈를

간호사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정보원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

너스들 옆에서』

『: 화자의 경험담 -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시민성, 응졸함을 보여 줌.

▶ 과거부터 계속된 '나'의 응졸한 삶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펜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사소한 일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김.

▶ 힘없고 무기력한 자신의 존재 인식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sup>③</sup>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불의에 맞서는 삶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방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인 삶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웅졸함

□ '나'의 왜소한 모습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함.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④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 함. →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 표현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자기반성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조적인 자기반성

④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  
정말 얼마큼 작으나.....  
모래, 바람, 먼지, 풀 등의 자연물  
들만큼이나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자조감의 표현이다.



# 작품 한눈에 보기



## 자조적 표현의 효과

**자조적 표현**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가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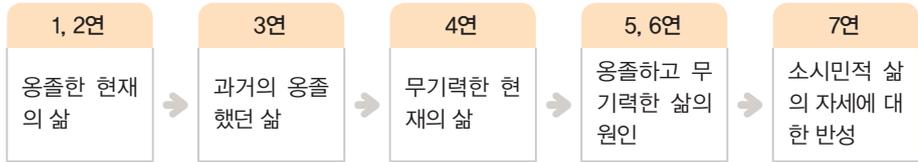
**효과**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는 화자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 없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함으로써, 화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함.

## 이 작품에 담긴 시대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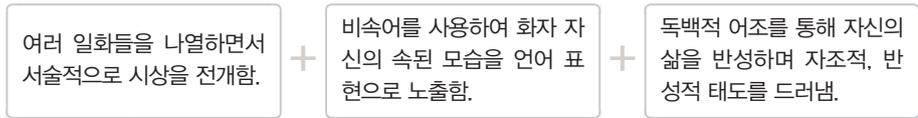
시대상을 드러내는 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잡혀 간 소설가</li> <li>• 언론의 자유를 요구</li> <li>• 월남 파병</li> <li>•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 병원</li> </ul>
---------------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갈래: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배경: • 시간 - 1960년대  
 • 공간 - 어느 이발소 안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부조리한 사회의 부당한 권력과 이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비굴함 비판

## ● 시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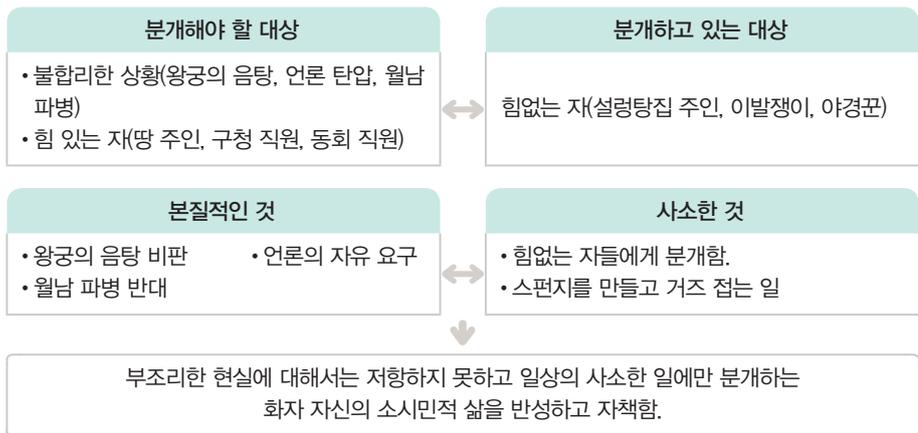
##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및 방식을 보여 줌.
왕궁의 음탕	독재 권력과 그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의 부도덕과 탐욕
절정(에 있는 것)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삶, 화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
모래, 바람, 먼지, 풀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 화자가 자신의 왜소한 모습과 대비하여 자조하는 대상

## ●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



## ●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와의 비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갈래	1960년대라는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한 시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자의 양상을 보여 주는 소설
비판 대상	커다란 부정과 불의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것에만 흥분하고 분개하는 '나'의 모습	아무런 권력도 없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두 청년을 두려워하며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이발소 안 사람들의 모습

두 작품 모두 당대 사회의 부당한 권력과 그러한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웅졸한 소시민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타남.

# 학습지

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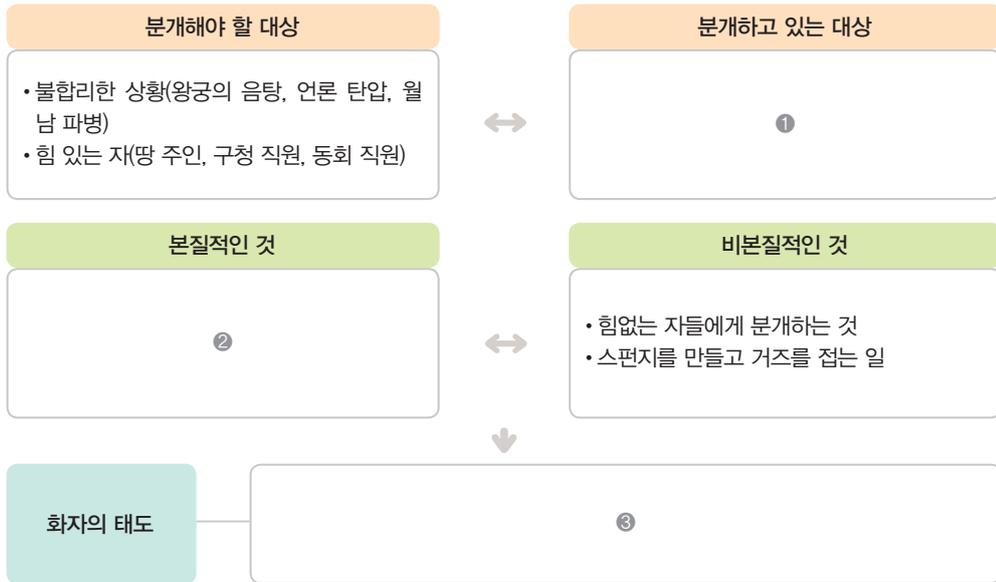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에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① )과 (② )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02** 이 작품은 일상적인 (① )과 (② ) 등을 나열하여 삶을 성찰하고 있다.

**03** 이 작품에 드러난 대조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고려하며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4** 다음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자기 인식을 쓰시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지발

**05** 이 작품의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06** 시어나 시구를 활용하여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쓰시오.

# [2] 서사 갈래의 흐름

## 핵심 개념

### 서사 갈래

어떤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소설이 대표적인 유형임.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를 '서술자'라고 하는데, 이야기의 구성은 서술자의 시점에 따라 재구성되며, 주로 인물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과 갈등이 중심축이 됨.

### 설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로,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꾸며 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사 문학의 근원이 됨.

### 고전 소설

설화를 바탕으로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종류로, 갑오개혁 이전까지 쓰인 옛 소설을 말함.

### 신소설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대 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소설로, 봉건 질서의 타파와 개화, 계몽, 자주 독립 사상 고취 등을 주제로 다룸.

## 1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

서사(敍事)란 사건을 펼쳐 낸다는 의미로, 서사 갈래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냄.

### 서사 갈래의 특성

-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반드시 존재함.
- 인물은 욕망이나 감정, 윤리관이나 세계관, 시대적·지역적 조건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건을 이끌어 나감.
- 사건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성이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관점을 시점이라고 함.

## 2 서사 갈래의 전개 양상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전되는 이야기로,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양식임.</li> <li>• 대개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화: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신성한 위업을 달성하는 이야기</li> <li>- 전설: 비범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증거물을 동반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함.</li> <li>- 민담: 평범한 인간이 여러 난관을 만나면서도 결국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흥밋거리의 이야기</li> </ul> </li> </ul>
고전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소설: 중국 당나라 때 성행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의 전기(傳奇) 양식을 받아들여 발생한 소설 유형으로, 『금오신화』를 통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냄.</li> <li>• 환몽 소설: 꿈속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이야기로, 현실의 고민이나 문제가 꿈속 사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됨. 『구운몽』, 『옥루몽』 등이 이 유형에 속함.</li> <li>• 영웅 소설: 조선 시대 후기에 유행한 소설 유형으로, 비범한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여 입신양명하고,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li> <li>• 가문 소설: 고전 소설의 대표 유형 중 하나로, 가문 내 혹은 가문 간의 갈등이 여러 인물에 의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다가 주인공의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가 해소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이야기임.</li> <li>•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운율감이나 현장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음.</li> </ul>
근·현대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오개혁 전후: 전문성을 지닌 작가의 등장과 함께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이전의 소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신소설이 등장함.</li> <li>•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을 비롯해 전대 소설과 구별되는 작품이 등장함.</li> <li>• 1920년대: 단편 소설의 기틀이 확립됨.</li> <li>• 1930년대 이후: 향토적 소설, 풍자 소설, 농촌 계몽 소설, 역사 소설, 모더니즘적 소설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발표됨.</li> <li>• 광복 이후: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체험을 다룬 소설, 도회적 문명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다룬 소설 등이 다수 발표됨.</li> </ul>

# 01 김현감호(金現感虎) 작자 미상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  
투어 흥륜사(興輪寺)의 전탑(殿塔)을 도는 것으로 복회(福會)를 삼았다.

탑돌이. 초파일에 절에서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제각기 소원을 빌. → 배경인 신라 시대의 사회상  
원성왕(元聖王) 때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시대적 배경  
않았다.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호랑이 처녀 탑돌이  
를 끝내자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西山)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으로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  
에게 물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  
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기에 나  
관련 속담: 쓰아 놓은 살이요. 얽질러진 물이다.  
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 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호랑이 처녀의 오라비들이 김현을 해칠까 봐 걱정함. - 호랑이 처녀가 김현이 집에 따라오는 것을 거절한 이유  
하였다. ▶ 호랑이 처녀와 정을 통한 김현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 두었다.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벌이 으르렁거리  
처녀의 오라비들. 처녀도 호랑이임을 알 수 있음.  
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 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라고 하  
사람(김현)의 냄새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  
슨 미친 소리냐?”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절대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보기로 한 호랑이에게만 얽한 벌을 내리려 함.  
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세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

심하는 기색이었다. 처녀가 말하기를, “세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  
『』 강력한 힘을 지녀 당대인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호랑이이나 하늘만은 무서워함.  
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살신성인의 자세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 오빠들을 대신해 하늘의 징계를 받으려 하는 호랑이 처녀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  
김현  
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  
호랑이 처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 속마음  
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  
김현은 사람이고, 처녀 자신은 호랑이임.  
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  
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  
인간사 상가가 늘어선 거리  
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  
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 작품 연구

갈래: 사원 연기 설화, 변신형 설화

성격: 불교적, 전기적, 환상적

제재: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주제: 자기희생적인 고귀한 사랑

특징: ① 신이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남.

② 동물 변신 모티프가 드러남.

## 어휘·어구 풀이

- 흥륜사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에 있던 신라 최초의 왕실 절.
- 복회(福會) 복을 빌기 위한 모임.
- 원성왕(元聖王) 신라의 제38대 왕.
- 낭군(郎君) 젊은 귀공자의 호칭.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호랑이인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은 김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생각해 낸 방책』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사람과 호랑이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하늘이 준 행운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명령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

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 공덕에 따라 얻게 되는 보배로운 결과

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호랑이 처녀가 죽기 전에 김현에게 부탁하는 말

『자신의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로움을 들어 김현을 설득하는 호랑이 처녀』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죽음으로써 김현에게 보은하고자 하는 호랑이 처녀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다시 호랑이로 변신한 처녀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

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

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전설임을 보여 주는 증거물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변신형 설화임을 알 수 있음.

이에 김현이 찔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김현이 자신을 죽이기 힘들 것이고, 죽이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것이므로 처녀가 칼로 찢러 스스로 죽음.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왔다. 지금도 세간에 흥륜사의 간장을 상처에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라고 한 것

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김현에게 보은한 호랑이 처녀 설화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근거 이 작품이 설화 중 전설임을 보여 주는 증거물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

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호랑이를 애도하기 위해 절을 짓고 호원사로 명명함.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

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 ▶호원사를 지어 호랑이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김현

『이 글을 쓴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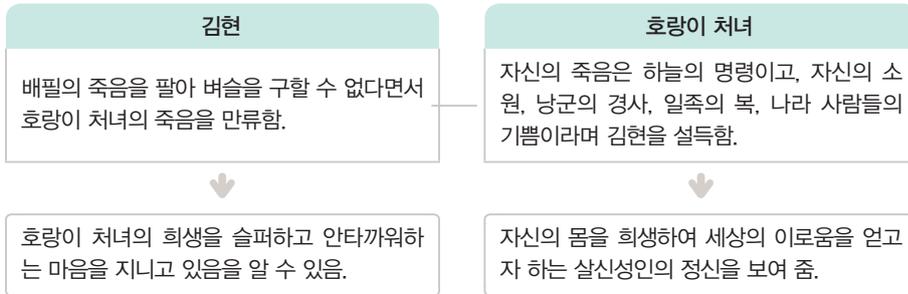
● 호원사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에 있던 절.



● 서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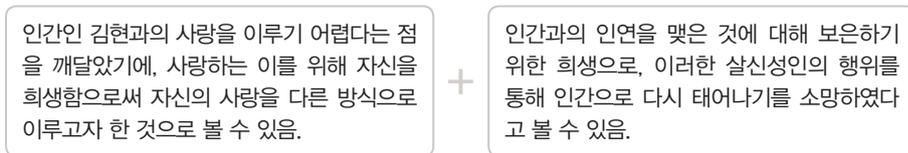
● 등장인물의 성격



● 작품의 설화적 특성

'호원사'라는 절의 창건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	불교적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변신형 설화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 뛰어난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

●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희생한 까닭



● 「이생규장전」과의 비교

	「김현감호」	「이생규장전」
공통점	두 작품은 각각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하고, 죽은 아내가 환생하는 전기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실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음.	
차이점	주인공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고, 그 희생을 통해 벼슬을 얻은 뒤 절을 지어 은혜에 보답함. →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종교적 차원에서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설화적 특성을 보임.	주인공 이생은 죽은 아내가 환생하여 나타나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환신과 함께 세월을 보냄. → 현실적으로 좌절된 사랑을 귀신과의 사랑으로 성취함으로써 현실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의식, 개인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소설적 특성을 보임.

인과 법칙에 따른 소설적 구성

- 호랑이 처녀가 김현의 정성스러운 탐돌이에 감동함. → 호랑이 처녀와 김현이 부부의 연을 맺음.
- 호랑이 처녀가 현생에서의 죄를 씻고 자신을 받아 준 김현에게 보은함. →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



정제된 구성, 필연적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서사에 가까운 짜임새를 갖춘.

김시습, 「이생규장전」  
갈래: 한문 소설, 전기(傳奇) 소설, 명혼(冥婚) 소설  
성격: 전기적(傳奇的), 낭만적, 비극적  
제재: 남녀 간의 사랑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은 '흥륜사', '호원사' 등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으므로 ( )로 분류할 수 있다.
- 02** 이 작품은 '호원사'라는 절의 건립 내역을 밝힌 ( ) 설화이다. 불교적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전승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호랑이 처녀의 보은'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은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 )에 해당한다.
- 04** 다음은 이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                         |
|--|-------------------------|
| 호랑이 처녀가 김현의 정성스런 탐독이에 감동함.             | 호랑이 처녀가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음. |
| 호랑이 처녀가 현생에서의 죄를 씻고 자신을 받아 준 김현에게 보은함. |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            |
- ↓
- 이 작품은 단순한 에피소드의 나열, 축약적 서술이 아닌 정제된 구성, 필연적 ( )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 서사 구성 방식에 가까운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 05** 이 작품에 나타나는 호랑이 처녀의 행동과 태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쓰시오.
- 06** 이 작품에서 김현이 호랑이 처녀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출세한 후 호원사를 건립한 행동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쓰시오.

## 02 구운몽(九雲夢) 김만중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 대사는 남악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 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 사례한다.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위 부인이 육관 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게 된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에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 격식에 맞추어 매무시를 바르게 한 다음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 도량 육관 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 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 “우리는 위 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 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이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성진이 팔선녀와 희롱하는 계기로 적용함.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 성진과의 갈등이 시작되며 이는 수작으로 이어지고 있음.

성진이 답하기를,

“넷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 “옛날 달마 존자는 갈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관 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神通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넷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 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오. 마침 명주 여덟 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 값을 치르겠나이다.”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여덟 봉오리 땅에 떨어져 불가의 계율을 여기게 되는 성진 여덟 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주워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

### 작품 연구

갈래: 문자류 소설, 양반 소설, 영정 소설

성격: 불교적, 전기적, 이상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시간적 - 당나라 때

공간적 -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 동정호(현실), 당나라 서울과 변방(꿈)

제재: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 과정

주제: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 / 인생무상의 자각을 통한 허무의 극복

특징 ① 현실(신선) 세계와 꿈(인간)의 세계가 교차하는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을 취함.

②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이 결합된 가운데 불교의 공(空) 사상이 강조됨.

### 어휘·어구 풀이

● 육환장(六環杖) 승려가 짚는,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빈승(貧僧) 도학(道學)이 깊지 못한 승려.

● 도량(道場) 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 달마(達磨)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승려(?~534?). 중국 선종의 시조로, 반야다라에게 불법을 배워 대승선(大乘禪)을 제창하였다.

● 화상(和尚) 수행을 많이 한 승려.

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보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권의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팔선녀와 만난 후 불도에 희의를 느끼는 성진

『성진의 내적 갈등』

[중략 부분 줄거리]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에 희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팔선녀는 각기 진채봉, 계섬월, 적경홍, 정경패, 가춘운, 이소화, 심요연, 백능파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팔선녀와 차례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여섯 남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룬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처첩들과 가무를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 선방(禪房) 참선하는 방.
- 요순(堯舜)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옥대(玉帶) 임금이나 관리의 공복(公服)에 두르던 옥으로 장식한 띠.
- 바리때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
- 성천자(聖天子) 덕이 높은 천자.
- 옥용화태(玉容花態) 옥과 같은 얼굴과 꽃과 같은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형용하며 이르는 말.
- 신후(身後) 사후(死後).
- 장자방(張子房) 장량(張良). 중국 한나라의 건국 공신(?~B.C.168). 만년에 신선술을 익혔다고 함.
- 적송자(赤松子) 신농씨 때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의 이름.
- 문수보살(文殊菩薩)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 사보살의 하나. 제불(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
- 진세(塵世) 티끌세상.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떼뻗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굵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 승상이 여러 남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남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인생무상을 느끼는 양 승상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敎)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무제·현종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스스로 선법을 닦아 구함. 성진의 꿈속에 다른 꿈이 등장하는 몽중몽 - 성진의 현실 세계와 연관됨. 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 고

『』: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된 한나라의 '장자방'이 신선이 '적송자'를 따르고자 한 것처럼 양 승상 역시, 불교의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을 찾아 도를 이루겠다는 결심이 나타남.

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전생에서 남악 형산의 위 부인을 모시는 선녀들이었음.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 "상공께서 부귀변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오? 우리 자매 팔 인은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는 향을 피웁니다.』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濟度)해 주소서."

『』: 출가하겠다는 양 승상의 말에 여러 남자가 공감하면서 자신들도 구제해 달라고 말함.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 "우리 아홉 사람의 뜻이 같으니 꽤사라. 과인은 내 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남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남자들이 말하기를, /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 사람이 대승상을 뵈옵니다."

태사가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남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 꿈속의 꿈에 대한 언급으로, 양 승상은 선계에서의 일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음.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 성진이 현실에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불도에 정진하던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 성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부분임.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중하였으리오?" /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 "이는 어렵지 않다."

- 고락(苦樂)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예불(禮佛) 부처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 의식을 행함.
- 제도(濟度) 미혹한 세계에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 내어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
- 이인(異人) 재주가神通하고 비범한 사람.
- 토번(吐蕃) 중국 당나라 · 송나라 때에, '티베트족'을 이르던 말.
- 경사(京師) 서울.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남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회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鄧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 불교에서,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

에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sup>①</sup>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변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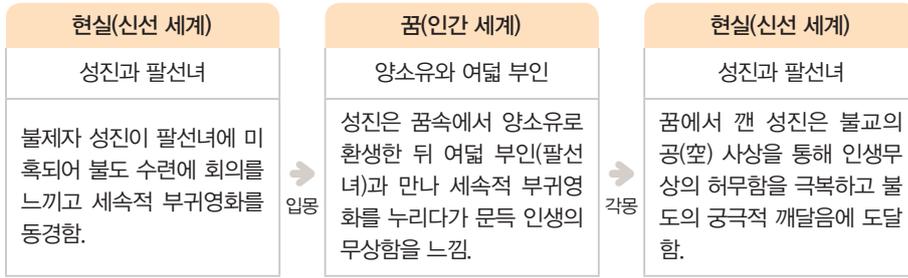
몽자류 소설

고전 소설 가운데, 제목에 ‘몽(夢) 자가 들어가는 소설로 주로 주인공이 꿈속에서 현실과 다른 존재로 태어나 현실과 전혀 다른 일생을 겪은 다음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석장(錫杖) 승려가 잡고 다니는 지팡이.
- 누대(樓臺) 누각과 대사와 같이 높은 건물.
- 환술(幻術)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 풍도옥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문무를 다 갖추어 장상(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냄.
- 공명신퇴 공(功)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벼슬에서 물러남.
- ①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다가 깨서는, 자기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로, 꿈과 현실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호접지몽(胡蝶之夢), 장주지몽(莊周之夢)이라고도 한다.



● 서사 구조



● 등장인물의 특성

성진(양소유)	육관 대사의 수제자. '성진(性眞)'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 '소유(少遊)'는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두 이름은 인생무상의 깨달음이라는 성진의 깨달음을 나타냄.
팔선녀(여덟 부인)	위 부인의 시녀들로, 성진의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함.
육관 대사	성진의 스승으로, 세속적 부귀영화를 꿈꾸는 성진과 팔선녀를 하룻밤 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함.

● 제목 '구운몽'의 상징적 의미

구(九)	→ 작품의 인물: 성진(양소유) + 팔선녀(여덟 부인)
운(雲)	→ 작품의 내용: 부귀영화가 구름과 같이 덧없음.
몽(夢)	→ 작품의 구성: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

● '꿈'의 기능과 '육관 대사'의 역할

'꿈'의 기능	꿈은 성진과 팔선녀가 속세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장치임.
'육관 대사'의 역할	육관 대사는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성진과 여덟 선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함.

● 「옥루몽」과의 비교

「구운몽」은 '입몽'과 '각몽'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환몽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옥루몽」은 '입몽'과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꿈속 세계에서 한 번 더 환몽 구조가 펼쳐진다.



작품의 주제 의식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달음.  
 → 일장춘몽(一場春夢), 남가일몽(南柯一夢), 한단지몽(邯鄲之夢)



주제 의식  
 "네가 말하기를, ~ 어느 것이 꿈이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 → 호접지몽, 장주지몽

「구운몽」의 문학사적 의의

-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취함.
- 꿈속의 내용이 오히려 현실의 세계를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됨.

남영로, 「옥루몽」  
 갈래: 한문 소설, 영정 소설,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성격: 전기적, 비판적  
 제재: 영웅적 인물들의 활약상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활동과 부귀영화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보기>를 참고하여 선녀를 만난 후의 성진의 내적 심리를 쓰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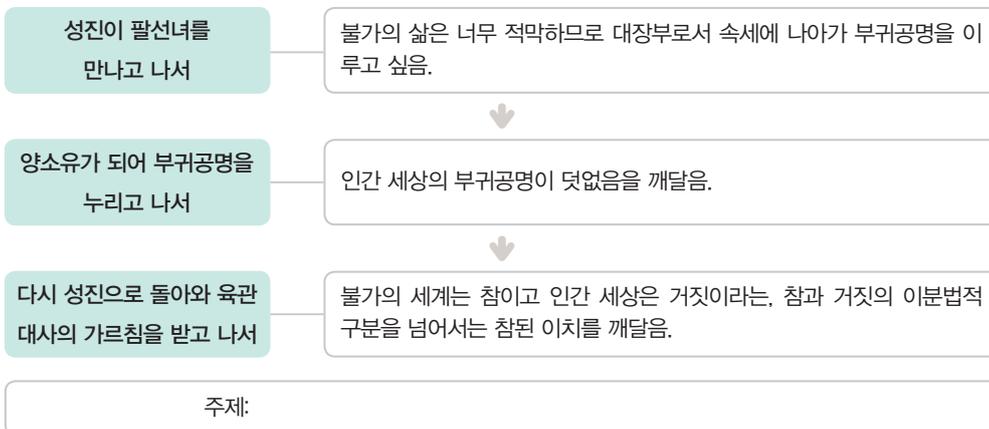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  
 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  
 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권의 경  
 문과 백팔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 02 육관 대사가 호접지몽을 인용하여 알려 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 03 이 작품에서의 '꿈'의 기능과 '육관 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쓰시오.

'꿈'의 기능	①
'육관 대사'의 역할	②

## 04 다음 표에 나타난 성진(양소유)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를 쓰시오.



# 03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앞부분 줄거리] 전쟁 중,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현 중위는 부상을 당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 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 달라고 은연중에 압박하지만 주 대위는 이를 외면한다. 결국 현 중위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고, <sup>남이 모르는 가운데</sup> 김 일등병이 혼자서 주 대위를 업고 이동한다.

김 일등병도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 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주 대위를 업고 있어서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큼.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부리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한결같이 눈에 띄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sup>삶의 희망</sup> 풋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 나간 고즈넉함과 김 일등병의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적막감과 김 일등병의 힘겨움을 드러냄.  
그래도 주 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삶에 대한 주 대위의 강한 의지, 김 일등병에 대한 책임감

『한번은 주 대위가 저리 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 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 대위가 말하는 데로 가 보니, 바위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 이후 사건에서 김 일등병이 못 듣는 '개짚는 소리'를 주 대위가 듣는 사건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십 리 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산길이라 힘들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진해 가고 있음. 두 사람의 극한 상황

김 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어져 거의 기는 시늉이었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김 일등병이 힘들어할수록 주 대위의 생존 희망은 낮아지게 됨. ▶극단적 상황 속에서 지쳐 가는 김 일등병의 모습

저녁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노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 하고 날아올랐다. 전쟁의 병혹함을 상징하며, 현 중위의 죽음을 암시함. 짧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 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어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 중위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서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현 중위가 김 일등병보다는 체력적으로 덜 지쳐 있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 작품 연구

갈래: 단편 소설, 실존주의 소설, 전후 소설

성격: 사실적, 휴머니즘적, 상징적

시장: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 6·25 전쟁 중

• 공간적 -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

제재: 6·25 전쟁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의지

특징: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간결한 문체로 묘사함.

② 우화적인 장면을 통해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 어휘·어구 풀이

● 능선(稜線)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옥까옥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꾼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전쟁의 비극성을 느끼게 함.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 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현 중위의 시체를 보자 마 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절망함.

잠시 후에 김 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 ① 죽은 동료의 시체나마 지켜 주고 싶은 동료애의 표현 ②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표현 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 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옥까옥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은 도로 와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버렸다.

체념과 절망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다.

김 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고 공포감을 느낌. 카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 김 일등병에게는 죽음보다 죽음의 공포 자체가 더욱 괴로움.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 없었다.

▶ 현 중위의 죽음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진 김 일등병과 주 대위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 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점점 쇠퇴하여 바닥이 난

“푹소릴세.”

삶의 희망을 주지만 일시적일 뿐, 더 큰 실망감을 주는 소재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렛소리 삶의 희망, 구원의 손길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 군대에서의 경험이 많은 주 대위 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임.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체력적으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거리이기에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실망감의 표현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

#### 어휘·어구 풀이

- 기미 감새.
- 떼꾼하니 눈이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어.
- 허청거리며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걸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 혼곤히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프게.
- 감별(鑑別) 보고 식별함.
-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그동안 현 중위는 주 대위의 권총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주 대위에게 죽음을 강요해 왔음. → 주 대위에게 권총은 삶의 희망을 버림과 동시에 죄책감을 씻어 버릴 도구임.

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 주 대위가 죽으려는 이유 - ① 현 중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② 김 일등병 혼자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푹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김 일등병이 혼자서 아군 진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줌.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위기가감이 최고조에 달함.  
▶ 김 일등병에게 길을 알려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주 대위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푹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사건의 극적 전환. 삶에 대한 희망을 이어 가게 되는 계기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개 짖는 소리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근처에 인가가 있음을 알시 → 주 대위의 강인한 생존 욕구가 현실화된 것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됨.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함.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삶에 대한 기대감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등성을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의 판단을 환청으로 생각함.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김 일등병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싶음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삶의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두 오늘 밤뿐야.”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려는 김 일등병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김 일등병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는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

고는 또렷하게, / “날 업어!” / 하는 것이다.  
주 대위가 살고자 하는 의지이자 김 일등병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

어휘·어구 풀이

- **진지(障地)**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설비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부대를 배치하여 둔 곳.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박에 없었다.

“자, 걸어라!”

▶개 짖는 소리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김 일등병을 위협하는 주 대위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살을 포기한 채 탈진하여 쓰러지려는 김 일등병을 세우는 마지막 방법  
등성이를 넘어 킁킁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엄한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 삶의 희망을 이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주 대위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러고는,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주 대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김 일등병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생명의 위협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루!”

『.』 김 일등병을 위협하면서 걸음을 옮기게 하는 행위로, 지치고 절망한 김 일등병에게 삶의 의지를 주고자 하는 주 대위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김.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 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인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드러냄.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

『.』: 살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졌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음.- 주 대위의 협박이 아니고서는 극복해 낼 수 없음.

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총을 겨누어 김 일등병의 걸음을 재촉하는 주 대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도 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

희망의 구체적 형상화

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엄한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인가까지 김 일등병을 인도한 뒤 죽음을 맞는 주 대위

주 대위의 죽음

#### 어휘·어구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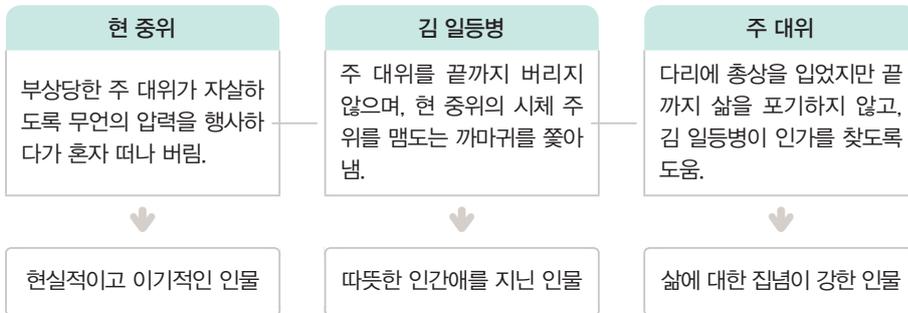
- 고역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
- 단내 몸의 열이 몹시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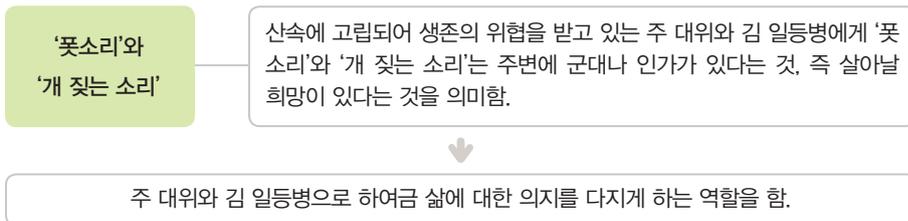
● 서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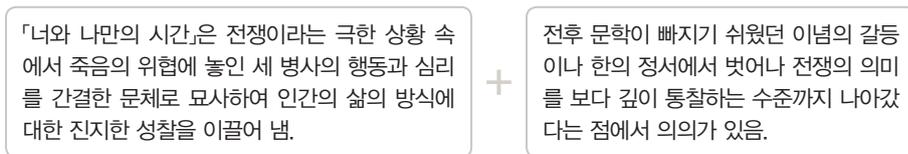
● 등장인물의 성격



● 소재의 의미와 역할



● 전후 문학으로서의 특징



● 「유예」와의 비교

「너와 나만의 시간」	「유예」
전쟁 중 본대에서 낙오한 세 인물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여 준 행동과 심리를 간결한 문체로 묘사함.	전쟁 중 인민군의 포로가 된 주인공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느끼는 여러 상념들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함.

두 작품 모두 전쟁 중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물의 심리와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함.

작품의 제목인 '너와 나만의 시간'이 갖는 의미  
이 작품의 인물인 현 중위, 김 일등병, 주 대위는 전장을 이탈하는 극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계급적 위계 질서와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는 '너'와 '나'라는 실존적 개체만이 존재하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연을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권총’의 역할

- 개 짖는 소리를 듣기 전 주 대위가 자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삶의 희망을 버리고 좌책감을 씻어 버릴 도구임.
- 개 짖는 소리를 들은 후: 김 일등병을 위협하는 수단이자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

오상원, 「유예」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전후 소설  
성격: 독백적, 실존적  
배경: • 시간 - 6.25 전쟁 당시의 겨울  
• 공간 - 어느 산골 마을의 눈 덮인 들판  
시점: 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주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고뇌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01** 이 작품의 제목인 '너와 나만의 시간'의 의미를 쓰시오.
- 02** 이 작품은 삶에 대한 욕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 대위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 김 일등병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① )와 (② )에 대해 통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 03** 이 작품의 등장인물 중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인물형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은 누구인지 쓰시오.
- 04** ( )는 주변에 시체가 있음을 알려 주고, 죽음의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 05** 현 중위의 시체에 돌을 던지는 김 일등병의 행위에 담긴 의미 두 가지를 쓰시오.
- 06**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었던 것은 ( )라고 할 수 있다.
- 07** 김 일등병은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주 대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 )의 마음을 갖기도 한다.
- 08** '개 짖는 소리'의 서사적 기능을 서술하시오.

# 0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기력한 도시 빈민, 강자에게 억압받는 약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옹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타인의 시선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  
1부의 서술자인 장남 영수  
 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함.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  
자신의 삶이 행복하므로 힘든 삶에는 관심이 없음.  
 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  
난쟁이 가족의 힘든 삶 - 천국과 지옥의 대비. 현실의 고통스러움 강조  
 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  
 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함.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삶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철거를 알리는 계고장 - 갈등의 계기

“기어코 왔구나!”

현재 딱친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음.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난쟁이 가족이 무허가촌에 살고 있음을 알려 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음.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  
궁핍한 삶을 짐작하게 하는 초라한 밥상

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작품 연구

갈래: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상징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시간 - 1970년대

공간 -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제재: 도시 빈민들의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된 꿈

특징: ① 현재와 과거의 시점이 교차되어 구성됨.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드러냄.

③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남.

④ 반어적 표현으로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삶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함.

## 어휘·어구 풀이

●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 낙원구

주택: 444,1-

197×.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빈민층에 가해되는 공권력의 폭력

철거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원구 청장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는 난쟁이 일가를 억압하는 폭력적 현실(자본의 힘, 산업화)을 상징하며, 난쟁이 가족의 삶을 침범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나'의 가족과 동요하는 주민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 많은 돈이 필요한 입주 절차와 적은 금액의 이주 보조금은 도시 빈민에 대한 산업화 사회의 횡포임. 나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 영희.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궁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 철거 계고장의 역할

철거 계고장  
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곧 철거하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적 문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주민들에게 철거 계고장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함.



사건을 긴장감 있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함.

## 어휘·어구 풀이

- 거간꾼(居間-)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 도장포 돈을 받고 도장을 새겨 주는 가게.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강하게 저항하는 영호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비호를 받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부분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

[중략 부분 줄거리]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아 동네를 떠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함.

“애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 온 이름을 통해 인물들에게 닥친 극단적 절망감을 드러냄.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 『』: 과거의 장면임. 현재와 과거의 교차 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툭거 보는 ‘나’의 꿈을 상징함.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 영희에게 기타를 사 주려는 ‘나’의 배려 디오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 ‘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함. 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 희망하지만 오지 않을 세계.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가 아주 먼 미래의 사회이며, 억압과 착취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 아버지에게 이상 세계를 동경하게 만든 인물. 현실의 부조리를 역설함. 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 아버지가 지섭의 생각에 공감함. 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의미 이제 없다고 말했다. ▶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의 일상

“왜?”

『』: 지섭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던 과거 장면을 제시함. - 현재와 과거의 교차

아버지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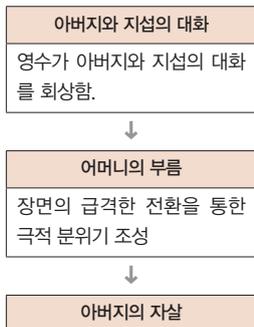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이기적 욕망만으로 가득 찬 현실 비판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장면의 전환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부조리한 현실에서는 종교도 무의미함.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이상적인 세계

“애들아!”

장면의 전환 - 현재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의 막대기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는 몸부림

▶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

▶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

[뒷부분 줄거리] 동네 주민 대부분은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아 동네를 떠나고, 우리 집도 입주권을 팔게 되지만,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입주권을 판 날 아버지가 사라지고, 영희도 사라진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고, 영희는 입주권을 사 간 부자 청년의 아파트로 따라가 그가 잠든 사이 입주권과 돈을 훔쳐 나온다. 영희는 그 돈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다.

‘달나라’의 의미  
삶의 터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한 현실에서 난쟁이 가족과 같은 도시 빈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므로 이때 ‘달나라’는 인물들이 가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함.



# 작품 한눈에 보기



## 서술자의 변화

이 작품에서는 제1부의 서술자를 영수, 제2부의 서술자를 영호, 제3부의 서술자를 영희로 설정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준다.

## 인물 간의 대립 구조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부도덕한 부유층의 화려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1970년대의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계층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함.

이시영, 『공사장 끝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극적, 애상적, 비판적  
제재: 철거민의 삶  
주제: 산업화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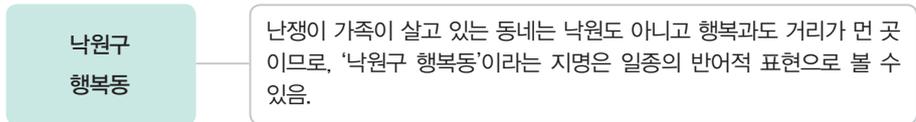
## ● 서사 구조

제1부	제2부	제3부
서술자: 영수	서술자: 영호	서술자: 영희
낙원구 행복동의 도시 빈민 가족인 난쟁이 일가는 어느 날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됨.	난쟁이 가족은 투기업자에게 끝내 입주권을 팔지만, 결국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됨.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긴 영희는 금고 안에서 입주권과 돈을 들고 나오지만,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사회에 대해 절규함.

## ● 등장인물의 특성

아버지	현실을 초월한 이상 세계를 갈망하는 인물로, 삶의 절망 끝에 공장 굴뚝 위에서 추락함.
어머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함.
영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인물로,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노동 운동에 뛰어들게 됨.
영호	은강 전기 회사에서 연마 일을 하는 노동자로,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분노함.
영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온갖 굶은일을 경험하며 가진 자와의 대결 의지를 다지게 됨.

## ●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까닭



현실과 반대되는 지명을 통해 난쟁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함.

## ●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 작품은 산업화와 도시 재개발이 한창 이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무허가 판잣 집에서 살고 있던 도시 빈민들이 무허가 정착지 정비 정책으로 인해 판자촌의 철거가 진행되자 입주권을 헐값에 넘기고는 무력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밀려 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쟁이: 무력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빈민 계층과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li> <li>•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제목: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함.</li> <li>• 줄 끊어진 기타: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영희의 꿈과 희망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함.</li> </ul>
--	---

## ● 「공사장 끝에」와의 비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공사장 끝에」
입주권을 헐값에 넘기고 동네를 떠나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난쟁이 가족'	해가 뜨면 집이 헐릴 처지이지만 갈 곳이 없는 '여자'

두 작품 모두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도시 빈민의 현실을 담고 있음.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다음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쓰시오.

철거 계고장	①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졸인 감자	②

**02** 이 작품에서 작가가 공간적 배경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지은 까닭을 쓰시오.

**03** 이 작품에서 ‘난쟁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04**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과 ‘줄 끊어진 기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

| 보기 |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을 통해 1970년대의 사회적 상황, 즉 개발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의 주변으로 밀려나 소외되는 가난하고 힘없는 도시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려들어 도시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무허가로 살고 있었으나 무허가 정착지 정비 정책으로 인해 판자촌의 철거가 시작되자 입주권을 헐값에 넘기고는 무력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밀려나게 된다.

(1) 일만 년 후의 세계:

(2) 줄 끊어진 기타:

**05** 이 작품에서 ‘달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 (3) 극 갈래의 흐름

## 핵심 개념

### 극 갈래

사건의 전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 유사하지만,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 다름. 주로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현재형의 시제로 표현됨.

### 전통극

특정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된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짐. 이 때문에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우며, 관객들이 배우와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는 등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근대극과 현대극

근대극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고 무대 장치도 사실적이며, 현대극은 근대극의 특징을 넘어선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 극 갈래의 개념과 특성

극은 어떤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설과 유사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설처럼 서술하거나 묘사하지 않음.

### 극 갈래의 특성

- 인물의 행위나 대사를 통해 관객의 눈앞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펼쳐 보임.
- 주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의 고조와 해소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됨.
-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곡이나 시나리오에는 장면, 장치, 의상, 조명, 배우의 연기 등에 관한 설명이나 지시가 곁들여짐.

## 2 극 갈래의 전개 양상

• 연극은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되어 점차 세련된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연극은 가면극, 인형극 등을 거쳐 창극, 신파극, 근대극, 현대극으로 전개되어 옴.

### 전통극

- 가면극: 신라의 오기(五伎: 다섯 가지의 놀이), 검무, 처용무에 이어 고려의 나례(儼禮: 음력 선달 그믐날에 묵은해의 마귀와 사신을 쫓아내려고 베푰던 의식), 조선의 산대희와 탈춤 등으로 발전함.
- 인형극: 삼국 시대의 목우희(나무 인형으로 노는 인형극)에서 고려 시대의 꼭두각시 놀음과 그림자극인 망석중놀이로 이어짐.



### 개화기

- 창극: 판소리를 변형·발전시킨 극으로, 혼자서 창을 하는 판소리와 달리 여러 명이 배역을 나누어 공연함.
- 신파극: 예술성과 흥미를 결합한 극으로, 주로 세상 풍속과 인정 비화 등의 통속적인 내용을 제재로 삼음.



### 일제 강점기

'극예술 연구회', '토월회'와 같은 신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사실주의 연극의 전통이 확립됨.



### 1960년대 이후

서사극이나 부조리극 같은 실험적인 연극들이 다양하게 시도됨.



### 1970~80년대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극들이 등장함.

- 일제 강점기 이후 영화도 끊임없이 제작·향유되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옴.
-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극 갈래들이 등장함.

# 01 봉산 탈춤

김진옥·민천식 구술 / 이두현 채록

## 제7과장 미얄춤

**미얄** (한 손에 부채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었으며, 굿거리장단에 춤을 추면서 등장하여 악  
미얄의 직업이 무당임을 알 수 있음.

공 앞에 와서 울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악공** **웬 할맘이나?** 극의 진행에 필요한 음악을 연주하는 인물. 이 부분에서는 극중 인물인 미얄과 말을 주고받으며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 사건을 진행시킴.

**미얄** **웬 할맘이라니, 평공하기에 굿만 여기고 한 거리 놓고 가려고 들어온 할맘일세.**  
장구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      곳을 하는가 하여 미얄이 한바탕 놀려고 찾아옴.

**악공** 그러면 한 거리 놓고 갑세.

**미얄** **놀든지 말든지 허름한 영감을 잃고 영감을 찾아다니는 할맘이니 영감을 찾고야  
가족을 찾아 떠도는 유랑민 신세**  
놀갔습네.

**악공** 할맘 본고향은 어디와? ▶미얄의 등장

**미얄** 본고향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일세.  
조선 시대에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함.

**악공** 그러면 영감은 어찌 잃었습나?

**미얄**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서로 도망을 하였더니 그 후로 아주  
미얄과 영감이 헤어진 이유 → 전란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민중들의 모습**  
까지 종적을 알 수 없습네. ▶영감과 헤어진 사연을 악공에게 이야기하는 미얄

**악공**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댁세.

**미얄**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  
영감이 말과 닭을.

**악공** 그러면 말 새끼란 말인가?

『』: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미얄** 아니, 소모색일세.

**악공** 그러면 소 새끼란 말인가?

**미얄** 아니, 마모색도 아니고 소모색도 아니올세. 영감의 모색을 알아서 무엇해. 아모  
리 바로 댁들 여기서 무슨 소용 있습나.

**악공** 모색을 자세히 대면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

**미얄** (소리 조로) 우리 영감의 모색을 대. **난간이마 주계턱 움케[우먹]눈에 개발코, 장  
얼굴**  
**통은 (갓 바른) 과녁(판) 같고 수염은 다 모즈러진 귀얄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영감의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사물에 빗대어 과장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함.  
**망 같고 키는 석 자 네 치 되는 영감이올세.** ▶영감의 모습을 악공에게 설명하는 미얄

**악공** 아 옳지, 바루 등 너머 망 쪼러 갔습네.

**미얄** 예잇, 그놈의 영감, 『**고리쟁이가 죽어도 버들개지를 물고 죽는다**더니 **상계 망을  
버들가지로 고리(례)를 만드는 사람**  
**쪼으러 다니나.** 아직도(방언)

『』: 영감의 직업이 멧돌 수선장임이 드러남.

**악공** 영감을 한번 불러 봅소.

## 작품 연구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성격: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 서  
민적

제재: 7과장 - 미얄과 영감의 만  
남과 다툼

주제: 7과장 - 봉건적 가족 제도  
에서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남  
성의 횡포 비판

구성: 전체 7과장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구성

특징: ① 춤, 음악, 대사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짐.

② 관객들이 극에 동참하는 마당  
극의 특징을 잘 드러냄.

③ 언어유희, 과장, 희화화를 통  
해 부정적 대상을 풍자함.

## 어휘·어구 풀이

● 굿거리장단 풍물놀이에서 쓰이  
는 느린 4박자의 장단.

● 거리 탈놀음, 꼭두각시놀음,  
굿 따위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

● 모색 얼굴의 생김새나 처린 모  
습.

● 난간이마 정수리가 넓고 특  
불거져 나온 이마.

● 주계턱 '주걱'의 방언. 주걱  
모양으로 길고 끝이 밖으로 굽은  
턱, 또는 그런 턱을 가진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움케는 '움푹'의 방언. 움푹  
들어간 눈.

● 개발코 너무죽하고 멧특하게  
생긴 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귀얄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 주로 돼지털이나  
말鬃을 넓적하게 묶어 만들.

미알 여기 없는 영감을 불러 본들 무엇합나.

악공 아, 그래도 한번 불러 봐.

『미알 영가암.

『』: 해학적 과정과 대구

악공 거 너무 짧아 못쓰겠습네.

미알 여영가암!

악공 너무 길어 못쓰겠습네.

미알 그러면 어떻게 부르란 말입나.

악공 아, 전라도 제주 망막골에 산다니, 쉬(세)나위청으로 불러 봅소. ▶미알과 악공의 재담

미알 (시나위청으로) 절절 절시구 저절절절 절시구,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절절 절시

구, 우리 영감 어데 갔나, 『기산 영수 별건곤에 소부·허유를 따라갔나, 채석강 명월야에 이적선 따라갔나, 적벽강 추야월에 소동파 따라갔나, 우리 영감을 찾으려

고 일원산(一元山)서 하로 자고, 이강경(二江景)서 이틀 자고, 삼부여(三扶餘)서 사흘 자고, 사법성(四法聖)서 나흘 자고, 삼국(三國) 적 유현덕(劉玄德)이 제갈공

명(諸葛孔明) 찾으라고 삼고초려(三顧草廬) 하던 정성, 만고성군(萬古聖君) 주문왕

(周文王)이 태공망(太公望)을 찾으려고 위수양(渭水陽) 가던 정성, 초한(楚漢) 적 항적(項籍)이

성, 저 정성 다 부러서 강산 천 리(江山千里) 다 다녀도 우리 영감을 못 찾았네.

우리 영감을 만나 보면 귀도 대고 코도 대고 눈도 대고 입도 대고 업어도 보고 안

아도 보련마는, 우리 영감 어데를 가고 날 찾을 줄을 왜 모르는가. 아이고 아이

고! (긋거리 춤을 추며 퇴장.) ▶영감을 부르다 퇴장하는 미알

영감 (이상한 관을 쓰고 회색빛 나는 장삼을 입고 한 손에 부채,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있

다. 긋거리장단에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쉬이이, 정치 없이 왔더니 풍악 소리 낭

자하니 참 좋긴 좋구나. 풍악 소리 듣고 보니 우리 할맘 생각이 간절하구나. 우리

할맘이 본시 무당이라 풍악 소리 반겨 듣고 혹 이리로 지나갔는지 몰라. 어디 한

번 물어볼까? 여보시오.

악공 거 뉘시오?

영감 그런 것이 아니오라 허름한 할맘을 잃고 찾아다니는데 혹시 이리로 갔는지 못 보

았소?

악공 할맘은 어찌 잃었습나? → 미알과 악공의 대화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됨.

영감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동서 사방으로 도망을 하였

는데, 그 후로 통 소식이 없습네. ▶미알과 헤어진 사연을 이야기하는 영감

『악공 본고향은 어디메와?

『』: 미알과 악공이 나눈 대화와 유사한 구조 → 구비 전승을 쉽게 하고 극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어휘·어구 풀이

- 시나위청 시나위 대금의 중심 음인, 대금 여섯 구멍을 다 막고 내는 음.
- 기산 영수 중국 요임금 때 전 설상의 은사인 소부와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으려는 왕명을 피하여 들어가 은거했다는 산과 물.
- 채석강 명월야 채석강의 달 밤. '채석강'은 이백이 달을 건지려 했다는 강.
- 주문왕(周文王) 기원전 12세 기경 중국 주나라를 창건한 왕.
- 항적 중국 초나라의 항우.
- 범야부 범중. 항우의 신하로 항우의 의심을 받아 물러남.
- 나고산 본래 '기고산'인데 광대들의 구비 전승 과정에서 '나고산'으로 와전되었음.

영감 전라도 제주 망막골이올세.

약공 그러면 할맘의 모색을 뎁세.

영감 우리 할맘의 모색은 하도 흥해서 뎁 수가 없습네.

약공 그래도 한번 대 봅세.

영감 여기서 모색을 뎁들 무엇하겠습나?

약공 세상일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모색을 대면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

영감 그럼 바로 대지. 『난간이마에 주계턱, 웅케눈에 개발코[빈대코], 머리갈은 다 모즈

「」: 인물의 회화화. 열거와 과장

러진 빗자루 같고, 상통은 깨진 (떡푸른) 바가지 같고, 한 손엔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방울 들고 키는 석 자 세 치 되는 할맘이올세.」 ▶약공에게 미알의 모습을 설명하는 영감

약공 옳지, 그 할맘이로군. 바로 등 너머 굿하러 갔습네.

영감 에에, 고놈의 할맘 항상 굿하러만 다녀.

미알의 신분은 무당이므로 직업적으로 하던 일의 습관이 이어짐.

약공 할맘을 한번 불러 봅소.

영감 여기 없는 할맘을 불러 무엇합나?

약공 그런 것이 아니야. 한번 불러 봅세.

영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하라는 대로 해 보지. 『할맘!

「」: 해학적 과장과 대구

약공 너무 짧아 못쓰겠습네!

영감 할마암.

약공 그것은 길어서 못쓰겠습네.

영감 그러면 어떻게 부르란 말입나?

약공 전라도 제주 망막골에 산다니 시나위청으로 불러 봅소.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함.

영감 (시나위청으로) 절절 절시구 저저리 절절 절시구,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절시구,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음구

우리 할맘 어디를 갔나. 『채석강 명월야에 이적선을 따라갔나, 적벽강 추야월에

「」: 미알의 노래를 그대로 활용함.

소동파 따라갔나, 우리 할맘 찾으려고 일원산(一元山)·이강경(二江景)·삼부여(三

扶餘)·사법성(四法聖), 강산 천 리를 다 다녀도 우리 할맘 보고지고, 칠년대한(七

年大旱) 가뭄 날에 빗발같이 보고지고, 구 년 홍수(九年洪水) 대홍수에 햇발같이

보고지고, 우리 할맘 만나 보면 눈도 대고 코도 대고 입도 대고 건드러지게 놀겠

미알을 찾으면 실컷 기뻐하겠다는 말

구만, 어텔 가고 날 찾을 줄 모르는가? (굿거리 곡으로 춤을 추면서 한쪽으로 가면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미알이 다음과 같이 부르며 등장한다.)

▶노래를 부르며 미알을 찾는 영감

미알 『절절 절시구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 절절 절시구 거 누가 날 찾나? 날 찾을

「」: 중국 고사를 인용한 노래로, 판소리 「수궁가」 중 자라가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찾자 토끼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난

사람 없건마는 누가 날 찾나? 이태백(李太白)이 술을 먹자구 날 찾나? 상산사호

(商山四皓) 네 노인이 바둑 두자고 날 찾나? 수양산(首陽山) 백이숙제(伯夷叔齊)

채미(採薇)하자고 날 찾나?

어휘·어구 풀이

- 칠년대한(七年大旱) 중국 은 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계속된 큰 가뭄.
- 상산사호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 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인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 선생을 이름.

영감 (곳거리장단에 춤을 추며 다음과 같이 부르며 미알 쪽으로 간다.) 절절 절시구 열시구  
절시구 지화자 절시구, 할맘 찾을 이 누가 있나 할맘 할맘 내야 내야.

미알 이게 누구야 우리 영감이 아닌가. 아모리 보아도 우리 영감이 분명하구나. 지성  
이면 감천이라더니 이제야 우리 영감을 찾았구나. (노랫조로) 반갑도다 좋을시구!  
지극한 정성 덕분에 영감을 찾았다는 의미  
(춤을 추면서 영감에게 매달린다.)

영감 여보게 할맘, 우리가 오래간만에 천우신조로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안고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춤이나 추어 봄세. (노랫조로) 반갑고나 얼러 보세. ▶영감과 미알의 재회

[뒷부분 줄거리] 미알과 영감은 아들 낳는 흥내를 내지만 제대로 안 되고 싸움만 벌인다. 그러다가 서로  
지난 사연을 말하는데, 영감은 땀장иро 팔도를 떠돌아다녔다고 하고 미알은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고 한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영감이 미알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싸움이 다  
시 시작되고, 미알이 영감의 첩인 용산 삼개 덜머리집을 때리면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진다. 이 과정에서 미  
알이 죽게 되자,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미알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 어휘·어구 풀이

- 남강노인 봉산 탈춤 일곱째 마당에 나와 영감의 구박을 받고 죽은 미알의 넋을 위로해 주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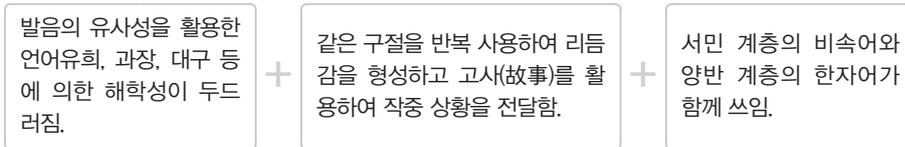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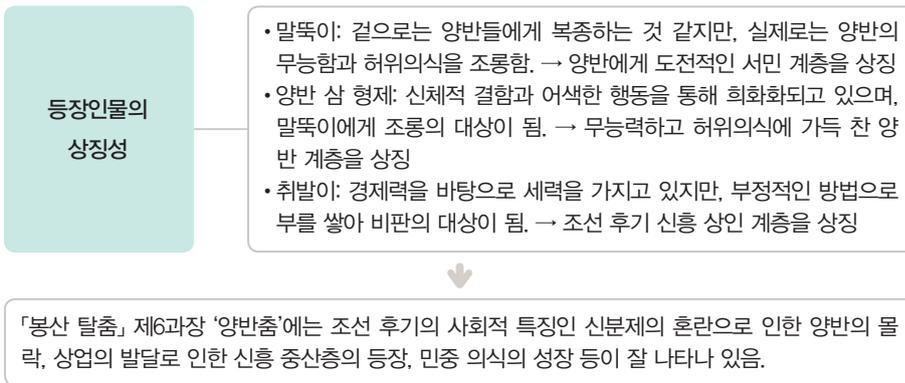
● 「봉산 탈춤」의 전체 구성

제1과장	사상좌춤	상좌 넷이 사방(四方)의 신에게 배례하는 의식무임.
제2과장	팔목중춤	여덟 목중의 파계와 법고놀이(목중들의 재담)를 통해 중을 희화화함.
제3과장	사당춤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노는 내용임.
제4과장	노장춤	노장이 소무의 유혹에 빠져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당하는 내용으로, 승려의 허위성을 비판함.
제5과장	사자춤	부처가 보낸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추는 내용으로, 놀이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함.
제6과장	양반춤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으로, 양반들의 무능과 허세를 비판함.
제7과장	미알춤	영감과 미알할미, 첩 덜머리집의 삼각관계를 통해 서민의 생활상과 남성 의 황포를 보여 줌.

● 제7과장 '미알춤'의 표현상 특징



● 제6과장 '양반춤'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



● 「소」와의 비교

전통극인 「봉산 탈춤」에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반면, 근대 사실주의 극인 「소」에는 헛간과 마당이 있는 농촌 집이 무대 장치로 설치되어 있다.

전통극(가면극)	근대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인과 관계가 없는 독립된 과장들이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됨.</li> <li>• 극 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며,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 없음.</li> <li>• 관객이 극 중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됨.</li> <li>• 극 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함.</li> <li>•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불가능함.</li> </ul>

제7과장 '미알춤'의 갈등 구조

인물과 환경	난리통에 미알과 영감이 헤어져 고난을 겪음.
미알과 영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감은 미알을 구박하며 헤어지자고 황포를 부림.
미알과 덜머리집	영감이 첩을 얻으면서 미알과 덜머리집 사이에 처첩간의 갈등이 야기됨.

약공 및 춤과 음악의 역할

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을 진행함.</li> <li>• 극이 연회되는 동안 필요한 효과음을 냄.</li> <li>• 혼자 등장한 인물의 대화 상대역을 하기도 함.</li> </ul>
춤과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함.</li> <li>•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냄.</li> <li>•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알림.</li> </ul>

유치진, 「소」  
갈래: 사실주의극, 장막극(전3막)  
성격: 사실적, 현실적, 고발적  
배경: 1930년대 농촌  
제재: 소  
주제: 일제 강점기에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현실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	-----	------	------

**01**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연희되던 ( ① )으로, 희극적이고 골계적인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제6과장에서는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정부패를, 제7과장에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남성과 사회의 횡포를 ( ② )하고 있다.

**02**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제6과장-양반춤	제7과장-미알춤
말뚝이가 양반의 비리와 몰락한 양반들의 생활상을 ( ① )로 고발함.	난리통에 영감을 찾아 나선 미알 할미는 영감의 애첩인 덜머리집과의 삼각관계에 얽혀 죽임을 당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뚝이: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li> <li>• 양반 삼 형제: 양반 계층의 ( ② )을 상징하는 인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알: 사회와 남성의 횡포로 고통받던 당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li> <li>• 영감: ( ③ ) 인물로, 미알에게 부당한 횡포를 가함.</li> </ul>

**03** 다음 대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미알과 악공의 대화	영감과 악공의 대화
악공: 할맘 본고향은 어디와? 미알: 본고향은 전라도 제주 망막골일세. 악공: 그러면 영감은 어찌 잃었습니까? 미알: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서로 도망을 하였더니 그 후로 아즉까지 종적을 알 수 없습네. 악공: 그러면 영감의 모색을 댁세.	악공: 할맘은 어찌 잃었습니까? 영감: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동서 사방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후로 통 소식이 없습네. 악공: 본고향은 어디메와? 영감: 전라도 제주 망막골이올세. 악공: 그러면 할맘의 모색을 댁세.

→ 미알과 영감이 각각 악공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는 ( )을 유리하게 하고, 극적 흥미를 유발하여 연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04** “난간이마 주게턱 웅케눈에 개발코, 상통은 (갓 바른) 과녁(판) 같고 수염은 다 모즈러진 귀얄 같고.”에 사용된 표현법을 쓰시오.

**05** 「봉산 탈춤」의 무대 장치적 특징을 쓰시오.

# 02 원고지 이근삼

등장인물: 중년 교수(본직 번역) / 처 / 장남 / 장녀

▶ 등장인물 소개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  
극 중 인물, 작품의 해설자 역할인 장남 무대 장치 소개

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  
『』: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장남  
 로 못 맥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  
 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  
 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장남  
교수의 실제 모습과 다르게 소개함.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교수의 무기력한 상황을 암시하는 음악 교수의 중압감을 드러내는 소재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낚은 가방을 들고  
① 아버지의 직업이 원고지와 관련 있음을 드러냄. ② 규격화된 일상의 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

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  
『』: 교수의 상황 제시 - 의상과 소품을 통해 현실에 얽매어 있는 교수의 상황을 보여 줌.  
 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펍 마른 얼  
사회적 압박, 현실의 중압감  
 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교수의 모습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이’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  
비명 같은 하품을 통해 교수의 삶이 고통스러움을 보여 줌.  
 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하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 현실에 짓눌려 피곤해지는 교수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장남과 같이 해설자 역할을 하는 장녀 아버지의 하품을 달콤한 것으로 이해하는 장녀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니가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실제와는 다르게 소개함.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교수처럼 삶에 지친 상태인 처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  
교수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처  
 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중략]

▶ 가족에 대해 무관심한 장녀

## 작품 연구

**갈래:** 희곡, 단막극, 부조리극  
**성격:** 반사실적, 풍자적, 상징적  
**배경:** 현대 어느 중년 교수의 집  
**제재:**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과 가족들의 모습  
**주제:**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의 현실 풍자  
**특징:** ① 특별한 사건 전개나 뚜렷한 갈등 없이 극 중 상황만을 전개함.  
 ② 대사와 행동의 반복, 유대감을 잃은 가족 관계의 제시를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함.  
 ③ 무대 장치, 분장, 소도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형상화함.

## 등장인물의 성격

- **중년 교수:** 한때는 꿈과 정열을 품었으나 지금은 사고 능력을 상실한 채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에 짓눌려 사는 현대인을 상징함.
- **처:** 남편을 노동하는 기계로 만드느 아내이자 자식들로부터 의무감을 강요당하는 어머니를 상징함.
- **장남/장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부모에게 이기적인 젊은이를 상징함.

## 등장인물의 이름 대신 ‘교수’, ‘장녀’ 등의 보통 명사를 사용한 까닭

- ① 극 중 인물들이 현대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임을 나타냄.
- ②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상실, 거리감을 나타냄.

처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란다. / 장남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에 교수가 원하는 곡이 아님.  
고장이 난 듯 똑같은 곡이 되풀이된다. 『처는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귀를 막는다. 『』: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 줌. 참다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시늉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 집에서도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친 모습의 교수와는 다른 지식들의 모습  
가 보인다.』

교수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처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교수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오?

처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교수 그 곡 이름이 뭐지? / 처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반어적 표현

교수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현대인들의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나타냄.

처 그런가 부조.

▶서로 무관심한 가족의 모습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부조리한 현실의 표현물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  
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 출판사 이름, 노동자를 착취하여 돈을 버는 회사라는 의미  
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 교수가 말도 되지 않는 해괴한 사건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는 장면으로, 이는 인물들이 속한 사회가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처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  
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  
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이 씨가 또 번역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교수의 기계적인 삶, 개성을 잃은 채 착취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냄.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 『』: 오늘 기사 내용과 삼 년 전 기사 내용이 같음. →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됨.  
데 또 매 맞았군.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보여 줌.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 내용이 같은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말.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됨.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삼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일상

신문의 내용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 삶의  
진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편  
적이고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  
상을 풍자한다.

출판사의 이름을 '착취사', '악마  
사'라고 지은 이유

착취사, 악마사  
출판사 이름으로, 노동자를 착  
취하는 기업을 상징함.



노동자에게 비정한 현실, 거대  
한 조직 속에서 위축된 개인  
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

장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애,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난 김에 밥이나 좀 쥐  
 태엽이나 좀 감아 줘라.  
 란. /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처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 교수 괜찮어. 밥 먹었어.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 - 시계에 밥을 줌으로써 시계가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  
 처 어디세요? 는 것처럼 교수가 끝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수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 언제요?

교수 오늘 아침에도 먹었구. 점심두……. 글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  
 을 못 하겠군.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  
 번역 작품의 종류가 다양함. →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번역하고 있음.  
 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  
 교수가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  
 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중략]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수  
 (이때 밖에서 시계가 여덟 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교수 여덟 시야! 여덟 시! 늦겠군. / 처 어디 가세요?

교수 어디 가진 어디 가. 나 가는 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전번 모양 철쇄를 졸라맨다.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  
 현대인을 구속하는 현실의 압력, 억압을 상징함. 교수의 집 - 자유와 개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폐쇄적인 공간을 상징함.  
 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처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기가 바쁘게.

교수 여덟 시를 치기에 아침 여덟 신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보여 줌.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 보니 밤 여덟 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처 공부는 안 하세요? / 교수 공부?

처 아, 번역 말이에요. / 교수 좀 쉬어야겠어.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

[뒷부분 줄거리] 기계적으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던 교수에게 감독관이 나타나 번역 원고 쓰기를 독  
 촉하고, 아내는 원고 한 장이 나올 때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 환상 속에서 젊은 날의 희망과 정열을 상  
 징하는 천사를 만난 교수는 자신의 꿈을 찾아 줄 것을 천사에게 갈구하지만 천사는 곧 사라져 버린다. 다시  
 나타난 감독관이 번역 일을 독촉하자 교수는 또 기계적으로 번역 작업을 해 나간다. 신문은 항상 똑같은 사  
 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교수는 번역하는 일에, 아내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는 일에 쫓기는  
 가운데 감독관이 번역을 독촉하는 일이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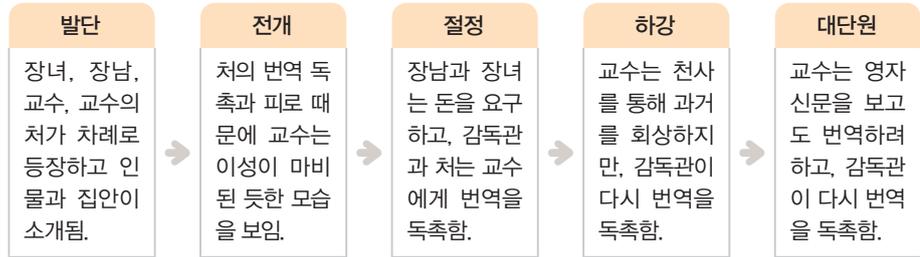
작품 속 대사의 특징

대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사건을 전개함. → 경제적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하는 단절적 가족 관계를 보여 줌.
독백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관객에게 직접 전달함. →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드러냄.
방백	극적 상황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심리적 거리를 두게 함. → 단절된 가족 관계 풍자

# 작품 한눈에 보기



## ● 서사 구조



## ● 등장인물의 성격

교수	처	장남, 장녀
삶의 무게에 눌려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번역 일만 하는 무기력한 인물	자식들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하고, 남편에게는 착취자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입장의 인물	이기적이고 오로지 물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로, 극 중 해설자의 역할을 함.

## ● 소재의 상징성

소재	상징적 의미
원고지 무늬로 된 교수의 양복	규격화된 틀에 갇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
교수가 매고 있는 철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현실의 구속
시끄럽게 반복되는 '찬란한 인생,이라는 음악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불안 의식에 젖어 있는 현대인의 복잡한 삶(반어적 표현)
삼 년 전 신문과 같은 오늘 신문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현대 사회의 비정상적인 모습

## ● 부조리극으로서의 특징

극의 구조	기승전결이 있는 인과적 전개가 아니라, 유사한 에피소드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며 극이 진행됨.
등장인물과 대사	주인공인 '교수'는 인간적 의지와 감정 없이 번역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의미한 대사가 반복됨.
무대 장치와 소도구	원고지 무늬로 되어 있는 무대 배경과 의상, 허리에 두른 쇠사슬 등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장치, 소도구를 사용함.

## ● 「8월의 크리스마스」와의 비교

시나리오인 「8월의 크리스마스」는 희곡 「원고지」와는 달리 잦은 장면 전환을 보이며, 디졸브 등과 같은 카메라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희곡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함.</li> <li>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롭지 못함.</li> <li>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음.</li> <li>막(幕)과 장(場)으로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함.</li> <li>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li> <li>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음.</li> <li>시퀀스(sequence)와 신(scene)으로 구성됨.</li> </ul>

### 제목인 '원고지'의 의미

'원고지'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교수의 생활 수단이며 사실적 신분 표현인 동시에 일상의 반복되는 틀로써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정해진 칸으로 짜여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을 의미한다.

### 부조리극으로서의 특성 - 비서사적 특성

서로 다른 상황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보여 준다거나, 등장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등 관객이 극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다.

### 허진호 외, 「8월의 크리스마스」

갈래: 시나리오  
 제재: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랑  
 주제: 죽음을 앞둔 남자의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

# 학습지

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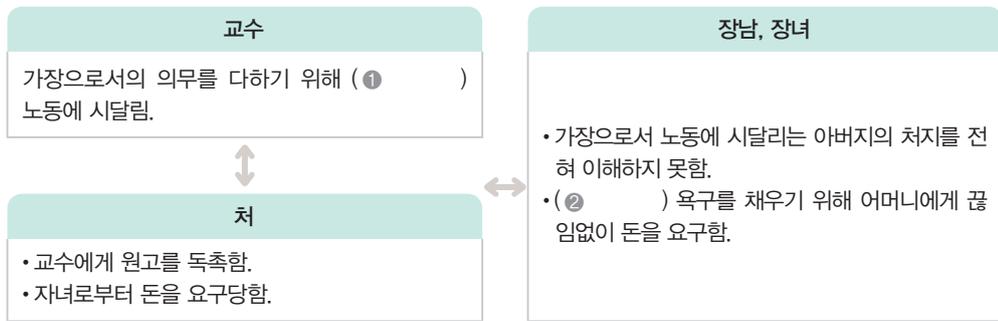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 )한 단막극이다.

**02** 이 작품에서 현대인을 짓누르는 구속감과 노동의 중압감을 상징하는 소재 두 가지를 쓰시오.

**03** 다음은 이 작품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04** 다음은 이 작품의 제목인 '원고지'의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b>원고지</b>	① 교수의 생활 수단인 동시에 사실적 신분 표현 ② 현대인의 ( ① )를 상징 ③ 정형화된 채 기계적으로 ( ② )되는 현대인의 일상
------------	--

**05** 해괴한 사건으로 가득한 '신문'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를 쓰시오.

**06** 다음은 이 작품의 부조리 극으로서의 특징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이 작품은 기승전결이 있는 인과적 전개가 아니라, 유사한 에피소드가 기계적으로 ( ① )되며 극이 진행되거나, 별 의미 없이 주고받는 대사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 ② )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 이 작품에서는 ( ③ )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장치와 소도구를 사용하여 부조리극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상황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보여 주거나 등장인물이 ( ④ )의 역할을 하여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등 사실주의극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 [4] 교술 갈래의 흐름

## 핵심 개념

### 교술 갈래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쓰이의 경험,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

## 1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성

교술(敎述)은 본래 대상의 의미를 알려 주면서 주장을 펼치는 서술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교술 갈래는 교훈적, 성찰적 성격이 강한 문학 갈래임.

### 교술 갈래의 특성

- 다른 갈래에 비해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다양함.
-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함.

### 가전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등을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

### 경기체가

고려 중엽 이후 형성된 신진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득의에 찬 삶과 향락적인 여흥을 위하여 창출한 시가 양식

### 약장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에 쓰인 노래의 가사로, 임금의 만수무강과 왕가의 번창을 기원하고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와 귀감을 그 내용으로 함.

### 가사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발생한 3(4)·4조, 4음보의 연속체 시가로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인 교술 시가임.

### 수필

글쓰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 삶에 대한 통찰 등을 붓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글을 말함.

## 2 교술 갈래의 전개 양상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존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의 행적 혹은 공과를 서술한 문학 양식임.</li> <li>• 주인공의 행적과 공과를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술성이, 생애와 행적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서사성이 드러남.</li> </ul>
경기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중간에 삽입된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에서 따온 갈래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면서 감탄을 직접 노출하는 흐름을 지닌 교술적인 시가임.</li> <li>• 고려 고종 때의 「한림별곡」을 최초의 경기체가 작품으로 보며, 조선 시대에도 간헐적이나마 꾸준히 창작되었음.</li> </ul>
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중에서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쓰이던 노래 가사로, 훈민정음의 실용적 쓰임새를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갈래임.</li> <li>•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등이 대표적이며, 조선 전기에만 나타난 독특한 문학 갈래임.</li> </ul>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음보 연속체로 된 율문으로, 한 음보를 이루는 음절의 수는 대체로 3·4음절이고 행수에는 제한이 없음.</li> <li>• 조선 전기에는 강호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여행·유배·정치적 진퇴 등 사대부들의 경험과 소회를 서정적으로 읊은 작품도 다수 창작됨.</li> <li>• 조선 후기에는 교술성이 짙어지거나 서사성이 강해졌으며, 사대부기와 서민층의 여성들이 가사의 창작과 향유에 다수 참여함.</li> </ul>
고전 수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문 수필: 고려에서 조선 말에 이르는 시기에 한문으로 창작된 모든 수필류를 말하는 것으로, 서(序), 설(說), 기(記), 녹(錄), 화(話), 담(談), 필(筆) 등의 문장이 이에 해당함.</li> <li>• 한글 수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창작된 것으로, 주로 여성들이 쓴 기행문이나 일기문 형식의 수필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궁정 수필, 기행 수필, 의인체 수필로 나뉨.</li> </ul>
근현대 수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대: 주로 고전 수필의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서구 수필의 개성적인 시각을 수용함.</li> <li>• 1950년대 이후: 이전보다 제재가 다양해졌고, 다양한 형식이 시도되었으며, 수필 작가의 수도 늘어나고 발표 무대가 확대되어 수필 문학의 위상이 높아짐.</li> </ul>

# 01 관상가와 의 대화 이규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관상가가 있었다. 『그는 관상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 관상 보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이상한 기술로 관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관상가’라 불렀다. 그래서 고위 관리부터 남녀노소까지 모두 다투어 초빙하고 분주하게 달려가 관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보는 관상은 다음과 같다.

부귀하면서 살지고 기름기 흐르는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모습이 몹시 야위겠으니, 당신처럼 천한 사람도 없을 것이오.』

관상 내용 ①  
빈천하면서 아프고 파리한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모습이 살찌겠으니, 당신처럼 귀한 사람도 드물 것이오.』

관상 내용 ②  
장님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눈이 밝겠소.”

관상 내용 ③  
민첩하여 잘 달리는 자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질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소.”

관상 내용 ④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할 것이오.”

관상 내용 ⑤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군요.”

관상 내용 ⑥  
당시 사람들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이군요.” 『』: 이상한 관상가가 관상을 본 내용  
관상 내용 ⑦ → 관상을 보는 사람의 겉모습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함.

그가 관상을 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재앙이나 복이 생겨나는 까닭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과 행동거지를 살피는 것이 모두 반대였다. 그래서 대중들은 사기꾼이라 시끄럽게 떠들며 그를 잡아다 심문하여 그의 거짓말을 취조하려 하였다. 관상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자세히 따져서 물음 ▶ 이상한 관상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내가 홀로 그들을 말리며 말하였다.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거슬리나 뒤에는 이치에 맞는 것도 있고, ① 겉으로는 천박하  
나 안으로는 심원한 것도 있네. 저 사람 또한 눈이 있는데, 어찌 살진 자, 마른 자, 장  
님을 알지 못한 채 살진 자더러 마르겠다 하고 장님더러 눈이 밝겠다고 하였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기이한 관상가임에 틀림없을 것이오.』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운명을 점치는 자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 글쓴이의 긍정적 평가  
이에 나는 목욕하고 양치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한 뒤 관상가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갔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는 물었다.  
관상가를 대하는 글쓴이의 자세

“그대가 아무개의 관상을 보고서 이리이러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요?”  
관상가의 관상 내용에 관한 글쓴이의 질문 ▶ 관상가를 찾아가 관상의 이유를 물은 글쓴이

## 작품 연구

- 갈래: 고전 수필
- 성격: 교훈적, 경험적, 철학적
- 제재: 이상한 관상가
- 주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
- 구성: 기-승-전-결
- 특징: ① 이상한 관상가의 사례를 들어 통념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함.  
②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함.

## 사례의 객관적 열거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이상한 관상가가 관상을 본 내용을 제시하면서 관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상을 본 결과만을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어휘·어구 풀이

- ① 말이라는 것은 ~ 맞는 것도 있고, 얼핏 듣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을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의 교훈과 의의

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관상가를 통해, 선입견 및 일반적 인식의 경계 및 삶에 대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깨우치도록 함.



진정한 진리란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리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함을 일깨워 줌.

어휘-어구 풀이

- 정위(廷尉)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형벌을 맡아보던 벼슬.
- 그의 말은 ~ 삼을 만하다. 현재의 모습보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운수를 점친다는 이상한 관상가의 말을 통해 외면으로만 판단하면 미래의 모습을 잘 못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상가가 대답하였다.

『부귀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불어나게 되고, 죄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쪽정이라도 먹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기에 ‘여윌겠다.’라 겁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아니한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고 하였고, 우매하여 어리석은 필부가 될 것이기에 ‘당신의 족속은 천하게 될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빈천하면 뜻을 낮추고 자신의 몸가짐을 겸손하게 하여 두려워하며 반성하는 뜻이 있습니다. 막힘이 지극하면 반드시 퍼지게 되는 법이니, 고기를 먹을 조짐이 이미 이르렀기에 ‘살찌겠다.’라고 하였고, 만 섬의 곡식과 열 대의 수레를 모는 귀함이 있을 것이기에 ‘당신의 족속은 귀하게 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아 만지게 하고, 진기하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그것을 탐하게 하며, 사람을 의혹 되게 하고 사람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눈입니다. 이 때문에 뜻밖의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눈이 밝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장님만이 『담박하여 탐내지도 않고 만지지 않아 온몸에서 치욕을 멀리하는 것이 현각자(賢覺者)보다 뛰어나기에』 ‘눈이 밝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첩하면 용기를 숭상하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을 능멸하여 끝내 자객이 되거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위(廷尉)가 체포하고 옥졸이 가두어서 발에는 족쇄를 차고 목에는 칼을 쓰게 되니, 비록 달아나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 없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색이라는 것은 음탕하고 사치한 사람이 보면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진흙처럼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인자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어머니를 잃은 아이처럼 슬프게 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픈게 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잔혹한 사람이 죽으면 거리마다 노래를 부르고 양고기와 술을 먹으며 축하하면서 연신 웃느라 입을 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이 아프도록 손뺑을 치는 사람도 있기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말하였다. / ‘과연 내 말이 맞았군. 이 사람은 참으로 기이한 관상가보다. 그의 말은 좌우명으로 삼고, 법으로 삼을 만하다.’ 『어찌 얼굴과 형상에 따라 귀한 상을 말할 때는 ‘몸에 거북이의 무늬가 있으니 높은 벼슬을 하겠고, 이마가 무소의 뿔처럼 튀어나왔으니 임금의 아내가 될 상’이라 하고, 나쁜 상을 말할 때는 ‘별의 눈과 승냥이의 목소리를 가졌으니 흉악한 상’이라 하여, 잘못을 고치지 않고 틀에 박힌 것만을 따르면서 스스로 거룩한 체, 신령스러운 체 하는 관상가이겠는가?’

물러 나와 그의 대답을 적는다.

▶ 글쓴이의 깨달음과 관상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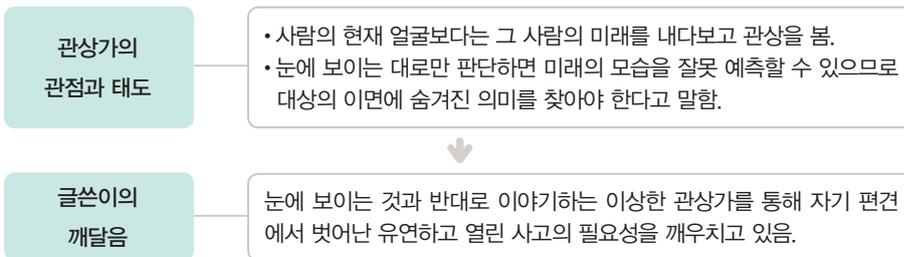
● 작품의 짜임



● 관상가의 관상 내용과 그 까닭

소재	관상을 보고 한 말	그 까닭
부귀하면서 살지고 기름기 흐르는 사람	야윽 것이며 족속이 천해질 것이라고 함.	부귀하면 교만하고 오만해져 하늘의 벌을 받아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
빈천하면서 아프고 파리한 사람	살찐 것이며 귀한 사람이라고 함.	빈천하면 자신을 낮추고 반성하므로 막힘이 빠져 부유하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
장님	눈이 밝다고 함.	장님은 담박하여 탐내지 않고 만지지 않아 치욕을 멀리하는 것이 현각자보다 뛰어나기 때문
민첩하여 잘 달리는 자	절뚝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 함.	민첩하면 용기를 숭상하다 자객이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되어 옥에 갇혀 형벌을 받기 때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할 것이라 함.	음탕하고 사치한 사람은 색을 아름답게 여기지만,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은 추하게 여기기 때문
사람들이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라고 함.	인자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슬프게 울 것이기 때문
사람들이 잔혹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라고 함.	잔혹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좋아서 축하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

● 글쓴이의 깨달음과 작품의 주제 의식



● 「동명일기」와의 비교

	「관상가와와의 대화」	「동명일기」
차이점	교훈담 형식의 한문 수필로, 옛사람들의 철학적이고 고상한 인생관을 접할 수 있게 함.	기행문 형식의 한글 수필로, 종래의 유교적 이념이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분방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임.
공통점	두 작품 모두 글쓴이가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관찰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을 기술한 교술 갈래에 해당함.	

‘관상가’에 대한 평가

**못 사람들**  
관상가를 사기꾼으로 평가함.  
→ 상투적인 관점으로 평가



**글쓴이**  
관상가를 특이한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함.  
→ 독창적인 관점으로 평가

이 작품의 진리관

이 작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항상 반대로 말하는 이상한 관상가를 소재로 하여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진리는 기존의 가치관과 사물관에 의문을 품고 현상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개성의 눈을 획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유당 김씨, 「동명일기」

갈래: 고전 수필, 기행문  
성격: 묘사적, 사실적, 주관적  
주제: 귀경대에서 본 일출의 장관  
특징: ①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함.  
② 섬세한 관찰과 필치가 돋보이는 한글 수필임.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우리의 통념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과 생각을 이상한 관상가의 ( )를 들어 표현한 고전 수필이다.

**02** 이 작품의 관상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속뜻을 헤아리는 ( )를 보여 주고 있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쓰시오.

| 보기 |

“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거슬리나 뒤에는 이치에 맞는 것도 있고, 겉으로는 천박하나 안으로는 심원한 것도 있네. 저 사람 또한 눈이 있는데, 어찌 살진 자, 마른 자, 장님을 알지 못한 채 살진 자더러 마르겠다 하고 장님더러 눈이 밝겠다고 하였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기이한 관상가임에 틀림없을 것이오.”

**04** 이 작품의 관상가는 관상을 보러 온 사람을, 글쓴이는 관상가를, 겉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속 모습을 보러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관상가를 통해 자기 편견에서 벗어난 ( )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5** 이 작품과 같은 고전을 읽는 것의 의의에 대해 쓰시오.

## 02 젊은 아버지의 추억 성석제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늘 중년이다. 아버지는 환갑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기운이 왕성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임.  
 지금도 나는 아버지, 하면 반사적으로 중년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중년을 나이로 환산  
 하면 서른 살에서 쉰 살 정도일까. 연부역강(年富力強), 사나이로서는 알맞은 경륜에  
 자신감 있는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황금기다. 중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를 중년으로만 기억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중년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화를 다룰 것임을 예고함.  
 ▶ ‘나’에게는 늘 중년으로 기억되는 아버지

열세 살이 되기 직전의 겨울, 나는 전형적인 사춘기적 증상과 맞부닥쳤다. 굳이 이름  
 을 붙인다면 ‘주제 파악 불량에서 기인하는 자존대형(自尊妄大型) 조발성(早發性) 천  
 재 증후군’이라 하겠는데, 그 증상은 먼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일단 그 증상에 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 보기로 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아버지도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아버지도 나와 같은 나이에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을 게 아닌가. 천재는 유전이니까.  
 ▶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 사춘기 시절의 글쓴이

『나는 평소에 비해 숙제를 충실히 했고 어둡기 전에 집으로 들어왔으며 모든 식구들에  
 게 경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재가 요즈음 웬일이야.”라는 찬사가 우리 집 지붕을 뚫고  
 하늘에 이르렀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기로 기다렸다(이 원리는  
 ① 팔호를 사용하여 부연 설명함. ② 독특하고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해학성이 드러남.  
 라디오에서 배운 것임)』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될 즈음, 아버지와 독대할 기  
 회를 맞았다. 식구들과 함께 밤에 읍내 성당에 갔다가(이런 일은 일 년에 몇 번 있을까 말  
 까 했다.) 술집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오라는 어머니 지시를 받은 것이다(이런 일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암시함. 대뜻술(큰 잔으로 마시는 술)을 파는 집  
 은 평생 한 번뿐이었다.). 포연처럼 연기가 자욱하나 대포(大砲)는 없는 대포(大砲)집에  
 가 보니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함께 가운데 연탄을 넣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식탁을 돌  
 러싸고 박격포와 자주포와 곡사포의 차이점, 잦은 정전과 월남전, 지역 출신의 역사적  
 인 인물의 공과에 대해 엄숙하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약주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과장되게 표현함.

나는 연기로 눈물을 쏟으며 한동안 서 있다가 “아버지요, 어머니가 약주 조금만 더 드  
 시고 빨리 오시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분이 “아이가 어찌면  
 이렇게 의젓한가!” 하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칭찬을 하며 내게 친구처  
 럼 술잔까지 내밀었다. 아이라도 어른이 주는 술은 마셔도 괜찮으며 어른 앞에서 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나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그 잔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미 막걸리 심부름을 하면서 조금씩 훔쳐 먹는 술에 중독이 된 지경인지라 새삼 술에 대  
 해 배울 것도 없었다.  
 아버지와와 독대

이윽고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분들은 가까운

### 작품 연구

- 갈래: 수필
- 성격: 고백적, 회고적, 성찰적
- 제재: 어린 시절 나누었던 아버지와의 대화
- 주제: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에 대한 성찰
- 특징: ① 글쓴이의 개성과 삶의 경험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음. ②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서술함.

### 과거의 ‘나’에 대한 ‘나’의 평가

- 과거의 ‘나’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대화를 통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의 ‘나’가 본 과거의 ‘나’: 과거의 ‘나’의 행동을 사춘기에 겪는 병적 증상으로 생각함.

### 어휘·어구 풀이

- 연부역강(年富力強)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함.

아버지의 표준어 사용

고민을 듣기 전
아버지는 글쓴이의 고민을 듣기 전에는 늘 하던 대로 사투리로 말함. → 아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음.
↓
고민을 들은 후
글쓴이의 고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뜻과 아들의 고민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기 위해 아들과 거리감을 두려고 표준어로 말함.

글쓴이가 자전거 위에서 깨달은 점  
 글쓴이는 아버지 없이 홀로 자전거를 탄 채 거센 바람에 자전거가 흔들리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림.  
 → 혼자서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자만에 가득찬 행동이었음을 알게 됨.

어휘·어구 풀이

- **주경야독(晝耕夜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 공부함을 이르는 말.
-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데에 살았지만 우리 집은 십 리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겨울인데 다 밤길이었던 고로 쉬운 길은 아니었다.

자기가 타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말, 여기서는 자전거  
**아버지는 휘파람으로 애마(愛馬)를 불러, 아니다, 술집 바깥에 세워 두었던 자전거에**  
작가의 독특한 문체가 사용된 부분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러곤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에 기대야 했다. **그 등은 알맞게 따뜻**  
글쓴이가 느꼈던 정서적 공감을 암시함.  
**했고 어느 때보다 넓고 관대하게 느껴졌다.**

사람의 흔적, 발자취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고 불렀다. / “왜?”**  
새로 만들어진 길.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낸 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아버지는 그날 마신 술로 기분이 좋았다. / “짜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  
사춘기적 증상 ②  
**결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으로 제 수준**  
글쓴이의 자만심이 드러나는 부분 ①  
**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씨익씨익, 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아들의 말에 고민하는 아버지의 행동 → 글쓴이는 이 행동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함.  
 나는 얼씨구, 내 말이 먹혀드는구나 싶어 주마가편(走馬加鞭)격으로 말을 쏟아 냈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두 달이 넘**  
글쓴이의 자만심이 드러나는 부분 ②  
**었습니다. 어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 주셔**  
**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 학교에 가기 싫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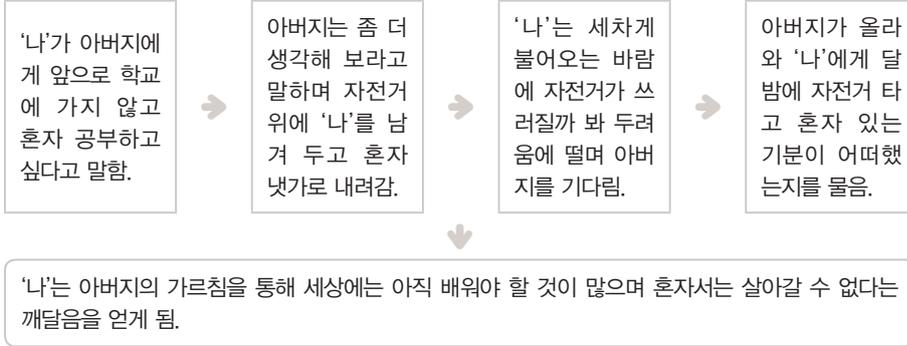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했다.  
진지해진 아버지의 태도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  
**니.” / 그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신**  
『』: 아버지의 의도: ‘내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임.  
**작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  
『』: 위태로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낌.  
**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 이리저도 저러**  
**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혼자 바람 부는 언덕의 자전거 위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음.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래로 보이더냐?”**  
아들의 자만심을 깨닫게 해 주는 훈계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면서 말씀하셨다.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사십 대 초입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 ‘나’의 자만심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의 훈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함.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반성      비교해 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나’



●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 표현상의 특징

- 한자를 활용한 새로운 어구를 사용함. → 자존망대형(自尊妄大型) 조발성(早發性) 천재 증후군
- 부연 설명을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함. → 식구들과 함께 밤에 읍내 성당에 갔다가(이런 일은 일 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다.) 술집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오라는 어머니 지시를 받은 것이다(이런 일은 평생 한 번뿐이었다.).
-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를 사용함. → 대포(大砲)는 없는 대포(大砲)집
- 사투리를 사용하여 대화 내용을 실감 나게 드러냄. → "아버지요, 어머니가 약주 조금만 더 드시고 빨리 오시랍니다."

● 아버지의 가르침 방식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침을 준 방식 → '나'가 자만심에 빠져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어두운 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혼자 있게 한 뒤 그 기분을 물음.  
→ 직접 훈계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줌.

● 글쓴이가 중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까닭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 한 자신의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 아버지처럼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감복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 글쓴이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 「바다」와의 비교

두 작품은 모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는 현대 수필로, 「젊은 아버지의 추억」에는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떠 자만심에 빠진 사춘기 소년의 모습이, 「바다」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를 들뜬 마음으로 상상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태준의 「바다」 → 독특한 시각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바다의 이미지를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필로, 바다의 웅장함과 역동성이 주는 감동이 잘 드러나 있음.

이 글의 구성



→ 중년의 '나'가 과거의 '나'와 중년의 아버지 사이의 일을 회상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있음.

이태준, 「바다」  
갈래: 경수필  
성격: 체험적, 비유적, 묘사적  
제재: 바다  
주제: 바다의 웅장함과 역동성이 주는 감동  
특징: ① 가정을 통한 상상, 단어가 주는 어감 분석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드러냄.  
②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서술함.

# 학습지

반 :

번호 :

이름 :

**01** 이 작품은 아버지와 의 소중한 추억을 다룬 수필로, ( )에 빠진 아들을 일깨워 주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

**02** 이 작품의 아버지가 글쓴이에게 가르침을 준 방법의 특징을 쓰시오.

**03** 다음은 이 작품 속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p>'나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말할.</p>	<p style="text-align: center;"><b>경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작로 위의 자전거에 혼자 남겨짐.</li> <li>• 자칫 잘못 내리다가 자전거와 함께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위에 앉아 안장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기다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깨달음</b></p> <p>세상에는 아직 배울 것이 많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 )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음.</p>
--	--	--

**04** 이 작품의 글쓴이는 아버지의 중년처럼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감복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 자신을 ( )하고 있다.

**05** 다음은 이 작품에서 해학성을 유발하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b>해학성을 유발하는 표현상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망대형 조발성 천재 증후군'에 사용된 ( ① ) 신조어 표현</li> <li>•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장된 표현</li> <li>• 괄호를 사용한 ( ② )</li> <li>• ( ③ )에 의한 언어유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재미와 ( ④ )을 더함.</li> <li>• 어린 시절의 글쓴이가 느낀 자만심의 허무맹랑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냄.</li> </ul>
---	---

##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 (1) 문학의 본질

####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본문 11쪽

1. (1)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대상(타인) (2) 외적으로 드러난 본 대상의 피상적 모습 (3)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선입견 (4)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5)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어울림의 시간 (6)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7) 대상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2. (1) × (2) ○ (3) × (4) ○ (5) ○

#### 02 두근두근 내 인생

본문 17쪽

1. ① 낯선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기대감 ② 새로운 만남에 대한 '나'의 설렘과 기대감 ③ 아버지의 두려움과 '나'에 대한 사랑 ④ '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의미함. 2. ① 직유법 ② 역설적 ③ 도치법 ④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이 쓰인 문학 언어는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전달 효과를 높이며,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보여 준다.

### (2) 문학의 가치

#### 01 흰 바람벽이 있어

본문 21쪽

1. 성찰 2. '흰 바람벽'은 '유리창', '거울', '우물' 등과 같이 내면을 성찰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즉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3. ①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② 체념적 ③ 극복 4. (1) ○ (2) ○ (3) ○

#### 0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본문 27쪽

1. 사실적 2. 비가 와서 일이 없는 날에는 연탄값을 떼어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돈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인정 많은 임 씨의 성격을 드러내며, 임 씨를 경계하고 의심했던 '그'와 '아내'를 부끄럽게 만든다.

4. 자식들에게 고품 한 번 못 먹인 것이 한이 된 임 씨에게, '곰국'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비애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자 자식들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소박한 희망을 나타내는 소재라 볼 수 있다. 5. ① 임 씨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려 함. ② 스웨터 공장 사장과 같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물이 잘 사는 현실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하고자 함. 6. ① 이해타산 ② 고친 견적서 ③ 서비스

###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 01 광장

본문 31쪽

1. 민족 2. ① 조화 ② 공존 3. ① 밀실만 있고, 광장이 없는 공간 ②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는 공간 4. ㉠은 '지식인이 처한 조국(현실)'을, ㉡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5. 북측과 남측의 설득자들이 펼친 논리의 모순과 위선을 간파했으며, 설득자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중립국을 선택한 데 대한 통쾌함과 승리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과 북에서 이상을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중립국을 선택한 데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 또는 자괴감이 뒤섞인 웃음으로도 볼 수 있다.

## 2. 문학의 소통

### (1)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 01 산도화(山桃花)

본문 37쪽

1. ① 인간 세계로부터 떨어진 탈속적 공간 ②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 이상향 ③ 동양적 이상향의 상징물 ④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 ⑤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 ⑥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 2. ① 석산, 봄눈 ② 산도화, 물, 암사슴 3. 시선 4. ① 풍경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인상적인 몇 개의 소재와 장면으로 제시함. ② 수식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여 표현함. ③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함. ④ 동양적 여백의 미를 구현함.

1. ① 긴장과 이완의 반복 ② 장단 2. ① 슬픔 ② 신세 한탄 ③ 긴박감 ④ 휘모리 ⑤ 흥분 3. (1)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홍보 마누라가 가난의 설움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함. (2) 박 속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홍보네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잔뜩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함. 4. 생생한 구어, 사투리, 비속어, 한문 투의 표현 등

0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 지식인 2. 고독감 3. 관념적 4. 이 소설은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이라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하기까지 하루 동안의 주인공이 관찰한 바와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플롯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는 약화되어 있는 반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의식의 추이에 관한 서술이 강화되어 있다. 5. 세태 6. ① 만연체 ② 심포 ③ 내면 의식 7. 작가는 1930년대, 식민 사회가 근대화·도시화되면서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이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01 즐거운 편지

1. (1)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상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일은 없으므로, '사소한 일'은 반어적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자신의 사랑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2. 반어법 3. 서정적 4. (1) 전통적인 애정관이 영원한 사랑을 강조한다면, 이시의 화자는 인간의 사랑은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강조한다. 즉 임에 대한 끝없는 기다림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떠나버릴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선택한 사랑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이 순환하는 자연 현상처럼 계속될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3) ① 밤, 골짜기 ②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

1. 아프리카인의 토테미즘의 표현, 토속적인 아프리카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서양인의 개발 도상국 문화에 대한 편견과 반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 2. 아프리카인의 혼이 담긴 전통적인 공예품, 생계의 수단 3. 아프리카인의 혼이 담긴 전통적인 공예품이자 아프리카인들의 생계 수단인 사자상을 남편이 헐값에 구입하여 예술품인 사자상을 '물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의 전통 문화를 폄하하였기 때문 4.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시골 역은 뾰족한 스위스 풍의 지붕을 얹고 있는 유럽식 건물이다. 그러나 역 주변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남루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이와 대비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5. 기차역 주변의 풍경과 인물들의 행위를 세밀하게 묘사함, 내용을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함. 6. 현재는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애환,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백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자기중심적 가치관 비판

03 허생전

1. ① 정신적 ② 실용적, 현실적, 경제적 ③ 실리 ④ 명분 2. ① 사대부의 관념적 지식만을 중시하는 태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함. ②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 계층을 비판함. ③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허례허식, 현실 개혁 의지가 부족한 집권층의 무능함, 북벌론의 허구성 등을 비판함. 3. 실존 인물인 이완 대장을 등장시켜 사실성을 높이고,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 집권층을 대변하는 이완을 꾸짖는 장면을 통해 당시의 집권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이다. 4. ① 주체적 ②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3) 문학의 확장

01 남한산성

1. 병자호란 2. ① 화(和)·전(戰) ② 공론(公論)·성단 ③ 의(義)·이(利) 3. (1) 짧고 간결한 문장의 사용으로 사건 전개 긴박감이나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2) 겨울밤의 모습을 비유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소설은 문자 언어

를 매개로 이야기가 구현되거나 영화는 소리나 영상을 통해 이야기가 구현된다. 따라서 소설은 작가 나름의 문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개성적으로 형상화하지만 영화 감독은 자신이 구상한 촬영 기법과 음향 등의 영화적 장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02 총, 꽃, 시

본문 72쪽

1. 사례 2. ① 강한 것, 큰 것, 폭력적인 것 ② 평화, 여성, 아이, 장애, 변방의 언어 3.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마크 리부, 「꽃을 든 여인」/어효선 작사·권길상 작곡, 「꽃밭에서」/지현곤, 「병사와 꽃 3」 4. 우리의 문화적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5. ① 상징 ②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 03 만화 토지

본문 77쪽

1. ① 표정, 자세 ② 공포심(두려움) ③ 갈등, 긴장감 ④ 극적 긴장감 2. • 문학의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미적 특성, 표현 방식, 감상 내용, 심미적 가치가 달라짐. /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짐. / 유통 방식이 변화됨. / 문학 활동이 다양화됨.

# 3. 한국 문학의 성격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01 어미 말과 새끼 말

본문 83쪽

1. 구비 설화 2. ① 일화 ② 사투리 ③ 입말체 3. 이 이야기는 설화 중 민담에 속한다. 그 까닭은 신성성이나 사실성이 없는, 허구적인 흥미 본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4. •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구비 전승되는 설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 즉흥적인 표현, 구어체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는 구어적 특성이 드러난다. 5.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이 약한 나라이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2 송인(送人)

본문 85쪽

1. 대비 2. 기승전결 3. 비 개인 긴 독의 고운 ‘풀빛’은 이별의 슬픔과 대비되어 이별의 정한을 더욱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4. 과장 5. 한글 창제 이전에 불가피하게 한자를 사용하여 창작한 문학 작품이거나 한글 창제 이후에 한자로 지어진 작품이라도 중세의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보편적인 문자 언어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송인」이나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같은 작품들도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01 사미인곡(思美人曲)

본문 90쪽

1. ① 충신연주시사 ② 계절의 변화 2. 범나비 3. (1) ○ (2) ○ (3) × (4) ○ 4.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물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5.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전달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에 빗대어 노래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 02 태평천하(太平天下)

본문 95쪽

1. 이 소재목은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그가 가장 믿고 아꼈던 손자 종학이라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2. 전보 3. 반어적 4. 편집자적 논평 5. 이 이야기의 서술자는 ‘~입니다’식의 경어체나 ‘~ 겠다요’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려서 (사건을 진술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건을 요약하고 평가하고 독자에게 일러바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작중 인물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이는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서술자는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6.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을 보호하고 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제 강점기야말로 ‘태평천하’라고 여기지만, 이는 사실 괴롭고 암담한 시대를 혼자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윤 직원을 풍자하는 것이다.

###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 01 정선 아리랑

본문 99쪽

1. ① 민요 ② 정서 2. 기능요(노동요) 3. 3~4연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입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인한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4. 한국의 한 지역인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5. '정선', '아우라지', '짜릿골' 등의 지명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과 향토색을 드러냄.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정서를 잘 드러냄. '여러 지역으로 전파·수용되는 과정에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됨으로써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 줌. 6. ① 지역 문학 ② 북한 7. ① 특수성 ② 보편성

## 4. 한국 문학의 흐름

### (1) 서정 갈래의 흐름

#### 01 제망매가(祭亡妹歌)

본문 104쪽

1. 비유 2. 5~8행(서 부분), 혈육(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3. 3행의 '나': 죽은 누이, 9행의 '나': 화자 4. 결 부분 / 9~10행(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도(道) 님아 기다리겠노라.) 5. ① 누이의 요절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냄. ② 같은 부모 6. ① 낙구(결 부분)의 첫머리에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②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 ③ 3단 구성을 취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존재한다. 7. 이 작품과 정지용의 「유리창 1」 모두 시작 동기가 혈육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02 청산별곡(靑山別曲)

본문 107쪽

1. 'a - a - b - a'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3·3·2조의 3음보 율격을 형성하며, 'ㄹ'과 'ㅇ' 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청산에 살어리랏다.',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쫓 었디 호리라.',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바르래 살어리랏다.' 등 3. 새 4. 밤 5. '돌'은 인간의 운명적인 삶을 의미한다. 6. '청산'과 '바다'는 화자의 이상

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7.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8.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 '바다'에 묻혀 살고 싶어 하는 화자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며 고된 삶의 시름을 달래려 하고 있다. 9. 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② 실연의 슬픔 ③ 삶의 고뇌와 비애

#### 03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본문 110쪽

1.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강호사시사 3. ① ·계절별로 1~10수까지의 여음이 각각 있음.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에 따라 각 수마다 다른 형태를 보이며 각 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시적 정서와 의미를 강화함. ②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시상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강호에서 느끼는 흥취를 북돋움.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평시조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줌. 4.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자세와 부귀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관이 드러난다. 5.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40수에 걸쳐 구체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노래하려 했다. 예를 들어 '춘사 1'은 봄날 아침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긍정적 시선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임금의 은혜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되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어부사시사」는 강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만족해하는 화자의 태도가 중심인 작품으로 심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정 갈래의 서정적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단사표음(單食瓢飮), 물아일체(物我一體), 안분지족(安分知足), 유유자적(悠悠自適)

#### 04 쉽게 씌어진 시

본문 113쪽

1. ①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일본 유학 중인. ② 일본에서 유학 중인 화자의 현실 2. ① 암담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정신적 지표,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 ②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③ 암담한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 즉 조국의 광복 3. 자기 성찰 4. 암담한 현실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와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고 극복하려는 내면적 자아 5. 화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시를 쓰

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본문 117쪽

1. ① 부끄러움 ② 자조적 2. ① 경험 ② 일화 3. ① 힘없는 자인 설령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 ② · 왕궁의 음탕 비판 · 언론의 자유 요구 · 월남 파병 반대 ③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고 자책함. 4. 화자는 자신을 사소한 일상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5. 본질적인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비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6. ‘붙잡혀 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던 시기임을 알 수 있고, ‘월남 파병’을 통해 1960년대임을 알 수 있다.

### (2) 서사 갈래의 흐름

## 01 김현감호(金現感虎)

본문 122쪽

1. 전설 2. 사원 연기 3. 변신형 설화 4. 인과 관계 5. 살신성인(殺身成仁) 6. 각골난망(刻骨難忘)

## 02 구운몽(九雲夢)

본문 128쪽

1. 여덟 선녀의 미색과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동경하고 있다. 2. 인간 세상과 꿈의 구별은 무의미하다.(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다.) 3. ① 꿈은 성진과 여덟 선녀가 속세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장치임. ② 육관 대사는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성진과 여덟 선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서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함. 4.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

## 03 너와 나만의 시간

본문 134쪽

1.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질서와 규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2. ① 생존 의지 ② 인간애 3. 현 중위 4. 까마귀 5. 자기만 살겠다고 대열을 이탈한 현 중위를 원망하지 않고, 죽은 현 중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

로 드러내 김 일등병의 인간애를 돋보이게 한다. 또한 까마귀가 지닌 죽음의 이미지를 물리치기 위해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는 김 일등병의 행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드러낸다. 6.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 7. 원망 8. 개 짖는 소리는 주 대위로 하여금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하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준다. 즉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 0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본문 141쪽

1. ① ‘나’의 가족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 ② ‘나’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음. 2. 실제 현실과는 대조적인 명칭을 붙여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난쟁이가족으로 대표되는 소외 계층의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 난쟁이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기력한 도시 빈민,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등을 상징한다. 4. (1)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세계가 일만 년 후라는 것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즉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2)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영희의 꿈과 희망이 좌절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5.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세계

### (3) 극 갈래의 흐름

## 01 봉산 탈춤

본문 148쪽

1. ① 민속극 ② 비판·풍자 2. ① 해학과 풍자 ② 어리석음, 무능함 ③ 가부장적 3. 구비 전승 4. 열거법, 과장법 5. 「봉산 탈춤」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서 공연 장소와 극 중 장소가 엄격하게 나뉘지 않으므로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아 배우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고, 관객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이 없어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 02 원고지

본문 153쪽

1. 풍자 2. 교수의 허리에 두른 철쇄와 원고지 무늬로 된 양

복 3. ① 기계적 ② 물질적 4. ① 단절된 인간관계 ② 반복  
 복 5. 현대 사회의 비정상성과 비인간성, (삼 년 전의 내용이  
 오늘과 같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6. ①  
 반복 ② 부조리극 ③ 비현실 ④ 해설자

#### (4) 교술 갈래의 흐름

##### 01 관상가와의 대화

본문 158쪽

1. 사례 2. 지혜 3.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자세 / 편견을 갖지 않으려는 자세 /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자세 4. 유연하고 열린 사고 5. 고전은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고, 시대를 뛰어 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개성과 감동, 교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전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02 젊은 아버지의 추억

본문 162쪽

1. 자만심 2. 직접적 경험을 통해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3. 자만심 4. 성찰(반성) 5. ① 한자 ② 부연 설명 ③ 동음이의어